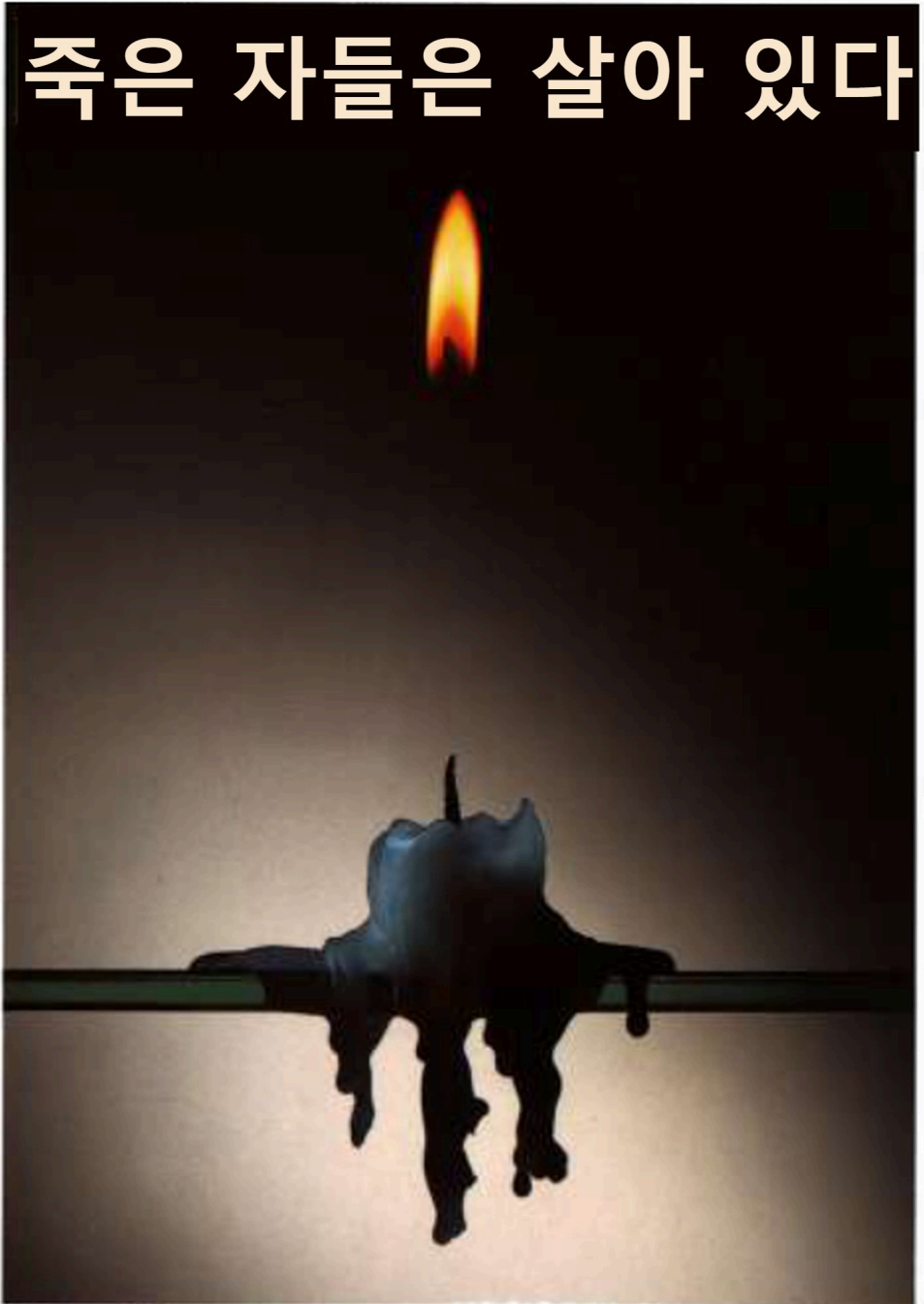


그래도

죽은 자들은 살아 있다

Hans-Jörg Ronsdorf



영혼 불멸

Hans-Jörg Ronsdorf

그래도 죽은 자들은 살아 있다

영혼 불멸

Christliche Literatur-Verbreitung

Postfach 11 01 35 • 33661 Bielefeld

사용한 성경 번역본: Überarbeitete Elberfelder(독일어 성경 번역본), 1999, CSV,
Hückeswagen

초판 1992년

제2판 1994년

제3판(개정 증보판) 2004년

© 1992 by

CLV • Christliche Literatur-Verbreitung

Postfach 110135 • 33661 Bielefeld

CLV 인터넷 주소: www.clv.de

조판: CLV

표지: Dieter Otten, Gummersbach

인쇄 및 제본: Ebner & Spiegel, Ulm

ISBN 3-89397-227-7

차례

머리말	
1 서론	12
1.1 주제의 중요성과 파급력	13
1.2 집필 동기와 도전	14
1.3 구성과 개요	15
1.4 장래 일들의 순서 - 예언의 달력	16
1.5 구약과 신약에 나타난 성경의 계시	18
1.5.1 신약의 계시	19
1.5.2 구약의 계시	20
1.5.3 구약에도 빛이 있다	21
1.6 죽음의 기원과 작용	23
1.7 죽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25
1.7.1 사람의 영과 죽음	25
1.7.2 죽을 때의 영혼	27
1.7.3 영과 혼	28
1.8 죽음의 여러 측면	28
1.9 죽음에 대한 승리	29
1.9.1 죽음과 죄	29
1.9.2 죽음과 마귀	32
2 죽음 뒤에는 무엇이 오는가?	34
2.1 나사로와 부자	34
2.1.1 여기서 말하는 것은 죽음 이후의 삶인가?	35
2.1.2 이 이야기의 뜻	36
2.1.3 비유인가?	37
2.1.4 죽음 이전	37
2.1.5 유대인의 내세관	38
2.1.6 아브라함의 품	39
2.1.7 나사로는 어떻게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는가?	40
2.1.8 하데스	41
2.1.9 누가복음 16장의 하데스	44
2.1.10 스올	46
2.1.11 눈을 들다	48
2.1.12 멀리서	49

2.1.13 큰 구렁텅이	49
2.2 산 자의 하나님	51
2.2.1 사두개인	
2.2.2 변화산의 모세와 엘리야	53
2.2.3 죽음 이후의 삶과 부활의 관계	55
2.2.4 씨앗의 비유	55
2.3 십자가에 달린 행악자	56
2.3.1 낙원	57
2.3.2 유대 전통 속의 낙원	58
2.3.3 신약의 낙원	59
2.3.4 누가복음 23:43을 달리 해석할 수 있는가?	62
2.4 영원한 영광 - 죽음 앞에서의 소망	64
2.4.1 겉사람	66
2.4.2 속사람	67
2.4.3 땅에 있는 장막 집	68
2.4.4 덧입음	70
2.4.5 나그네 길과 본향	73
2.4.6 다른 해석들	75
2.5 죽는 것도 유익하다	77
2.5.1 다른 설명들	80
2.5.1.1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하는가?	80
2.5.1.2 떠남	80
2.5.1.3 영혼 수면?	81
2.5.1.4 바울에게만 주어진 권리인가?	81
2.5.2 그분을 만나다!	82
2.6 잠자는 자들	83
2.6.1 잠자는 자들은 영혼 수면 상태에 있는가?	84
2.6.2 잠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84
2.6.3 스테반의 죽음이라는 예	85
2.6.4 휴거 때의 잠자는 자들	86
2.6.5 휴거 이전의 잠자는 자들	87
2.6.6 결론	88
2.7 그리스도 - 산 자와 죽은 자의 주	88
2.8 제단 아래의 영혼들	93
2.8.1 순교자들의 영혼	93
2.8.2 제단 아래	95

2.8.3 이 일은 어느 때에 일어나는가?	97
2.8.4 값아 달라는 호소	98
2.9 영생	99
2.9.1 영생이란 무엇인가?	100
2.9.2 영생과 불멸	101
2.9.3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수 있는가?	101
2.9.4 신자들은 어떻게 영생을 소유하는가?	102
2.9.5 영생과 죽음	103
2.9.6 세상을 떠난 신자들	104
2.9.7 살아 있는 신자들	105
2.9.8 영생의 장래 모습	106
2.9.9 성령	106
2.9.10 결론	107
2.10 옥에 있는 영들	108
2.10.1 베드로의 의도	109
2.10.2 본문에 대한 저의 설명	109
2.10.3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고 -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다	110
2.10.4 옥에 있는 영들에게 하신 선포	112
2.10.5 선포의 내용	112
2.10.6 영혼들과 영들	113
2.10.7 이 영들은 타락한 천사들인가?	114
2.10.8 영들 - 세상을 떠난 사람들	115
2.10.9 옥	117
2.10.10 구약 신자들이 스올에서 해방되었는가?	118
2.10.11 예수님의 지옥 강하?	119
2.10.12 결론	120
2.11 임종 체험과 근사 체험	121
2.11.1 이런 보고들은 믿을 만한가?	122
2.11.2 성경에 나오는 임종 체험?	123
2.11.3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	125
2.11.4 임종 체험 - 천국과 지옥	126
2.11.5 어둠의 미혹	127
2.11.6 죽은 자를 불러내는 자는 주께서 가증히 여기신다	129
2.11.7 사울과 사무엘	130
2.11.8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적 미혹	131
2.11.9 결론	

3 성경의 인간관	134
3.1 사람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135
3.2 사람의 영	138
3.2.1 생기	138
3.2.2 하나님에게서 온 영과 사람의 영	139
3.2.3 요약	141
3.3 사람의 영혼	142
3.3.1 요약	144
3.4 사람의 몸	145
3.5 결론	146
4 영혼 불멸	148
4.1 영생과 영혼 불멸	149
4.2 신약의 불멸	150
4.3 죽음과 부활 사이	152
4.3.1 몸 없는 영혼의 의식	152
4.3.2 영혼에게 아직 몸이 필요한가?	153
4.4 성경과 그리스 철학의 불멸	154
4.4.1 이원론	154
4.4.2 부활	155
4.4.3 영혼 불멸은 최종 상태가 아니다	156
4.4.4 인격	156
4.5 결론	156
4.6 이 진리의 의미	157
5 죽은 자들의 미래	159
5.1 부활	160
5.1.1 구약의 부활	161
5.1.2 생명의 부활	162
5.1.3 부활 때의 몸	165
5.1.4 부활의 시점	167
5.1.5 심판의 부활	170
6 영원 속의 인간	174
6.1 영원 속의 신자들	175
6.2 영원 속의 불신자들	176
6.2.1 지옥(게헨나)	177
6.2.2 불못	180
6.2.3 둘째 사망	181

6.3 형벌은 얼마나 오래 계속되는가?	181
6.3.1 신약의 “영원”과 “영원한”	183
6.3.2 “멸망”	185
6.3.3 요약	186
6.3.4 하나님의 의와 거룩하심	187
6.3.5 골고다의 십자가	189
7 부록	192
7.1 성경은 스올과 하데스에 대해 무엇을 가르치는가?	192
7.2 여러 용어를 정리한 표	199
8 참고 문헌	200
각주	206

초판 머리말

이 어렵고 복잡한 주제를 다루는 일은 결코 쉬운 과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독자 앞에 놓인 이 책은 이 주제를 빠짐없이 다룬 책이 아닙니다. 이 주제에 관한 수많은 책을 보여 주는 참고 문헌만 보아도 이 점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제 친구 마티아스 필(Matthias Piel)의 협력이 없었다면 이 책은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에게 특별한 감사를 전합니다. 마르틴 하이데(Martin Heide)에게도 도움을 준 데 대해 감사합니다. 끝으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제 아내에게 감사합니다. 아내는 오랜 시간 저 없이 지내야 했지만, 이 작업을 끝마치도록 저를 격려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 책에 복을 주셔서 그분께 영광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근거하여 제기되는 비판이라면 어떤 독자의 것이든 감사히 받겠습니다.

Hans-Jörg Ronsdorf

제3판 머리말

이 책은 신학자들을 위해 쓴 책이 아닙니다. 신학자들을 위해서는 이 문제를 더 자세하고 깊이 있게 다룬 연구서들이 있습니다. 특히 성경에 충실한 교회들 안에서도 성경 이해가 개선될 여지가 얼마나 많은지 보게 될 때, 저의 바람은 신자들에게 이 진리들을 간단하고 이해하기 쉽게 알려 주는 책을 손에 쥐여 주는 것입니다.

몇몇 곳에서는 원어를 인용합니다. 그러나 좋은 번역 성경으로도 이 책에서 다루는 질문들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 저의 깊은 확신입니다.

“영혼 불멸”이라는 이 책의 제목은 어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도발적으로 들립니다.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내용을 성경의 진리로 비추어 보려고 시도하며, 우리가 이 말을 성경적으로 이해하고 사용하기만 한다면 그것이 충분히 정당하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초판과 제2판이 나온 뒤 매우 많은 편지를 받았습니다. 많은 지지가 있었지만, 그만큼 많은 거부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 판에 많은 점을 반영했으며, 여러 곳에서 바로잡은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지적들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부분적입니다.

이 책에서 저는 이 주제와 관련된 (제가 바라기로는) 모든 성경 구절을 체계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이 책을 참고서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 장을 따로 읽을 수 있도록 하다 보니 반복되는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내용을 보충하여 완전히 새로 다듬은 이번 판에서도 저는 여러 사람의 협력과 도움을 받았습니다. 특히 Gummersbach의 베르너 뮐허(Werner Mueher)와, “더 깊이 생각해 볼 질문”을 넣어 준 알고이 지방 오버귄츠부르크(Obergünzburg)의 볼프강 클뢰크너(Wolfgang Klöckner)에게 깊이 감사합니다. 그들 덕분에 생각이 더 분명해지고 더 이해하기 쉬워졌습니다.

이런 작업을 하면서 저는 젊은 시절에 놓인 영적 기초가 오늘 저에게 얼마나 큰 유익이 되는지도 깨닫습니다. 그래서 수고하여 그 기초를 놓아 준 분들에게도 감사합니다.

저의 기도는 많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책에서 유익을 얻고, 죽음을 이기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과 그 승리에서 우리에게 흘러나온 복을 더욱 분명하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Hans-Jörg Ronsdorf, 알고이 지방 켐프텐(Kempten), 2003년 12월

1 서론

죽음 뒤에도 정말 존재가, 계속되는 삶이 있습니까? 있다면 우리는 그 존재를 어떻게 상상해야 합니까? 사람들은 이와 같거나 비슷한 질문을 되풀이해서 던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에 영원을 두셨고, 그 때문에 사람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어렵듯이 느낍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지으셨고, 또 사람들의 마음에 영원을 두셨으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헤아릴 수 없느니라”(전 3:11).

이 말씀 자체가, 성경에서 사람의 가장 깊은 곳이자 본질인 마음이 영원을 향하도록 지어졌다는 뜻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다음과 같은 사실은 말해 줍니다. 곧 사람은 우리 인식의 지평 너머에 무언가가, 곧 이 삶 뒤의 삶이 있다는 것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옛날과 오늘날의 모든 세계 종교와 부족 종교가 이것을 확인해 줍니다. 창조주께서 친히 사람에게 그분이 시간을 초월하신다는 의식을 주셨습니다.¹

그러나 전도자의 이 말씀은 동시에 인식의 한계도 말합니다. 죽음과 미래에 대해서는 **해 아래**에서 알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전도자에게 “**해 아래**”란 하나님의 계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의 관점에서 본 세계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계시를 손에 쥐고 있습니다. 전도자의 표현을 이어서 말하자면, 이 계시는 해 위에 계신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사람들은 과학과 사이버 과학의 모든 분야를 동원해 이 마지막 질문을 풀려고 애씁니다. 인식의 한계를 없앨 수는 없는데도, 그들은 죽음과 그 뒤에 오는 것을 -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 미혹하고 치명적인 방식으로 풀이하는 해답들을 내놓습니다! 어떤 이들은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낙원으로 넘어가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이들은 죽은 뒤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주장합니다. 또 어떤

1. 이 의식이 사람마다 매우 다르게 나타나고 많은 사람이 죽음 이후의 삶을 부정한다고 해서 이 사실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이들은 한동안 존재하다가 그 뒤에 어떤 이들에게는 최종적인 끝이, 다른 이들에게는 영생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설명들은 치명적입니다.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고, 죽음이 실제로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죄의 삯이며(롬 6:23) 하나님과의 분리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에 대해 무엇을 말해야 합니까?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한 우리의 견해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우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마음에 있는 소망에 관하여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고 또 그럴 능력이 있습니까(벧전 3:15)?²

우리는 숨을 필요도 없고 숨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 주변에서 죽음을 풀이하려는 온갖 시도가 있지만, 죽음과 그 이후에 대한 성경의 관점, 그리고 그와 함께 사람의 미래에 대한 성경의 관점은 유일무이하다는 것이 거듭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위대한 소망과 이처럼 아름다운 미래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물론 넓은 길과 좁은 길 끝에는 두 가지 서로 다른 목적지가 있습니다(마 7:13-14).

1.1 주제의 중요성과 파급력

이 책의 주제는 삶과 죽음의 영역에서 인간 지식의 한계에 놓인 질문들을 다룹니다. 우리는 이 주제에 대해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이런 일들에 대해 본질적인 것을 말해 주기는 하지만, 우리는 이 주제를 지나치게 강조하거나 성경이 부여하지 않는 가치를 여기에 부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에 대해 너무 많이 말하지도, 너무 적게 말하지도 않으려 합니다. 성경이 침묵하는 곳에서는 우리도 침묵하겠습니다! 성경은 미래에 대해서는 매우 많이 말하지만, 죽음과 부활 사이의 시간에 대해서는 비교적 적게 말합니다. 그 시간은 언젠가 영원히 끝나게 될 중간 단계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언뜻 보기에 죽음과 부활 사이의 삶은 신앙의 기초(예를 들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성경의 영감)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떤

2. 우리의 소망은 죽음 이후의 삶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죽음과 부활 사이의 시간은 “단지” 일시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과 미래는 부활 안에서 누릴 영생입니다.

사람이 죽은 뒤 부활할 때까지 의식 없는 잠에 빠진다고 확신한다고 해서, 그것이 곧 이단³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 흔히 볼 수 있는 일이지만 - 여기서 더 나아가 영원 속에도 이런 의식 없는 상태가 있다거나 존재가 끝난다고, 예컨대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 소멸된다고 결론짓는다면, 그때는 기독교 신앙의 기초가 공격을 받습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보겠지만, 하나님의 본성, 곧 그분의 사랑과 거룩하심과 의까지도 문제가 됩니다. 어떤 독자는 이런 연관성에 놀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기서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지닌 효력과 그 결과입니다.

이 주제, 곧 사람의 미래를 폭넓게 살펴보면 우리는 모든 것이 어떻게 하나로 이어지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죽음과 부활 사이의 삶보다 더 큰 문제입니다.

1.2 집필 동기와 도전

얼마 전 저는 영혼이 죽은 뒤에도 계속 존재한다는 것을 부정하는 견해와 마주했습니다. 이런 확신은 여러 이단 종파나 잘못된 가르침(안식교인⁴과 여호와의 증인⁵ 등)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불멸하는 영혼을 가지고 있지 않다. 죄 때문에 사람은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비로소 불멸을 얻는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이 받는 영생이다.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지 못한 사람은 모두 영원히 살지 못하고 언젠가 존재하기를 멈춘다. 곧 그들은 지옥에서 소멸되고, 그들의 존재는 지워진다.

3. 저는 이 견해를 잘못된 가르침으로 봅니다. 그 자체만 보면 큰 영향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단, 곧 사람들을 잘못된 길과 멸망으로 이끄는 가르침(신명기 27:18; 에스겔 13:10)으로 넘어가는 걸음은 아주 가까이 있으며, 적지 않은 사람들이 실제로 그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4. 예를 들어 Tobler, G., *Wann beginnt das ewige Leben*, (Advent-Verlag, Zürich). Tomasi, M., *Tod und Auferstehung, Himmel und Hölle*, (Advent Verlag, Zürich). *77 Fragen an die Gemeinschaft der Siebenten-Tags-Adventisten*, (Union Verlag Berlin), 1988.

5. 이 두 종파는 분명히 구별해서 보아야 하지만, 이 점에서는 둘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으며, 둘 다 잘못된 가르침을 주장합니다.

사람의 영혼은 불멸하지 않고 죽을 수밖에 없으므로, 죽음 이후의 삶도 없다. 죽을 때 영혼도 죽고, 사람 전체가 사라지며, 정신적이든 심리적이든 모든 기능이 꺼진다. 이 견해의 한 변형은 이 “비존재” 상태가 죽음 뒤부터 부활 전까지의 상태를 가리킬 때 이를 영혼 수면이라고도 부른다. 이 영혼 수면 동안에는 아무런 의식도 없다.⁶

이 견해는 사람을 나눌 수 없는 하나의 통일체로 봅니다. 사람은 (몸 안에서) 살아 있거나 아니면 죽어 있습니다. 이 두 존재 형태 사이에는 중간 상태가 없습니다. 하나의 통일체로 창조된 사람은 부활 때에야 비로소 다시 의식을 갖게 됩니다. 이 견해에 따르면 몸 없이, 또는 몸 밖에서 존재하는 영혼이나 영은 없습니다.

저는 죽음과 영혼 불멸에 관한 무신론적이고 유물론적인 견해와 논쟁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성경을 근거로 내세우는 한 견해에 응답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책은 조건적 불멸설(Konditionalismus)이나 영혼 수면이라는 특정한 문제와 씨름하는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주제를 근본적으로 다루어 보고 싶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1.3 구성과 개요

먼저 우리 주제에 관한 성경의 말씀을 균형 있게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 성경(신약)의 사도들은 내세의 일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그다음에는 죽음을 그 기원과 작용 방식이라는 면에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신 승리에 특별히 주목하겠습니다.

이런 준비 작업을 마친 뒤 저는 죽은 직후에 무엇이 오는지를 다루겠습니다. 이때 이에 관해 말하는 신약의 중요한 성경 구절을 모두 살펴봅니다. 이

6. 이 견해는 “조건적 불멸설”(Konditionalismus)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지만, 독일어권에서는 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용어(라틴어 *conditio*, “조건”에서 온 말)는 사람의 불멸이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소유하고 있느냐 하는 조건에 달려 있다는 뜻입니다.

본문들은 본래의 주제에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서 여러 저자가 죽음과 부활 사이의 시간을 직접 언급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저자는 이 주제를 스치듯 언급하고, 어떤 저자는 구체적으로 다룹니다. 성경 구절이 너무 적다는 말은 결코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다시 사람이란 무엇인가 하는 질문과 맞닿아 있습니다. 특히 영혼의 본질과 불멸이 문제가 됩니다. 조건적 불멸설이 기초로 삼는 견해들의 뿌리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죽음 이후의 중간 상태는 시간적으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그다음에 우리는 이 상태를 끝내는 큰 사건, 곧 부활에 이르게 됩니다. 또 다른 장에서는 영원한 상태를 다루며, 특히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운명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정말 영원한 지옥이 있을 수 있느냐는 질문이 거듭 제기됩니다.

1.4 장래 일들의 순서 – 예언의 달력

이 주제에 관해 어떤 책을 읽든지, 모든 책의 바탕에는 종말론, 곧 장래 일들에 관한 가르침에 대한 특정한 견해가 깔려 있습니다. 이 책도 다르지 않습니다. 저는 독자가 전체 맥락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예언된 사건들의 순서와 그 중심점에 관한 제 확신을 미리 분명히 밝혀 두고자 합니다. 여기서는 더 이상의 근거를 대지 않고 몇 마디로 제 확신을 밝히겠습니다.⁷

저는 모든 그리스도인, 곧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머지않아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휴거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때에는 그 순간까지 세상을 떠난 모든 신자가 부활하여 살아 있는 사람들과 함께 휴거됩니다. 그다음에는 큰 심판의 때가 올 것이며, 그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구속사의 초점은 무엇보다 이스라엘 땅과 백성이 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옛 백성 이스라엘에게 주신 모든 약속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다음에 그리스도(히브리어 **Messias**, 메시아)께서 산 자들을 심판하러 나타나셔서 그분의 왕국을 세우실 것입니다. 권능과 영광의 이 왕국을 세우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다스리러 오시는

7. 여러 견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요한계시록 주석의 서론 등에서 볼 수 있습니다. W.J. Ouweeneel, *Das Buch der Offenbarung*, Bielefeld (CLV) 1995, 그리고 J.D. Pentecost, *Bibel und Zukunft*, Dillenburg (CVD) 1993.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왕국이 끝난 뒤 사탄의 큰 미혹이 다시 한 번 있을 것입니다. 그 뒤에야 비로소 모든 사람에 대한 최후 심판이 오는데, 사람들은 흔히 이것을 “마지막 날”이라고 부릅니다. 그때 땅과 하늘이 풀어지고 새롭게 창조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언의 연대기를 서로 다르게 이해한다고 해서, 우리 주제와 관련된 모든 점에서 반드시 서로 다른 결론에 이르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부활이라는 주제에서는 그 방식에 대해서는 의견이 크게 일치하지만, 그 시점과 부활이 한 번인지 여러 번인지에 대해서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옆의 그림은 부활과 심판의 순서를 보여 줍니다. 독자께서는 제시된 성경 구절들을 직접 찾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지옥¹¹ · 새 하늘과 새 땅¹⁰ · 아버지 집¹²
- **영원한 상태**⁹
- □ 세상 끝에 크고 흰 보좌 앞에서 있을 **죽은 자들의 심판**⁸
- ▲ 천년 왕국 뒤에 크고 흰 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기 위한 모든 불의한 자의 부활⁷
- ▲ **첫째 부활** B 구간⁵ 환난 때의 순교자들
- □ 천년 왕국이 시작될 때 땅 위에서 **산 자들을** 심판하시기 위한 그리스도의 나타나심⁶
- □ 하늘에서 영화롭게 된 신자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심판대⁴
- ▲ **첫째 부활** A 구간² 교회가 하늘로 휴거됨 y³
-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¹

□ = 심판 ∴ = 시간 · ▲ = 부활

¹ 고전 15:1-23; 행 17:31; ^{2 + 3} 살전 4:13-17; 고전 15:51-54; ⁴ 고후 5:10; 고전 3:13-15; 4:4-5; ⁵ 계 20:4-6; ⁶ 마 25:31-46; ⁷ 계 20:5; 요 5:29; 욥 14:10-12; ⁸ 계 20:11-15; 고전 15:24; ⁹ 벨후 3:13; 고전 15:24; ¹⁰ 계 21:1-8; ¹¹ 마 18:8; 유 7, 13; 계 14:11; 20:10; ¹² 요 14:2-3; 17:24; 살전 4:17

1.5 구약과 신약에 나타난 성경의 계시

사람이 죽은 뒤와 영원 속에서 어떤 상태에 있는가 하는 질문을 가지고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 구약과 신약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 눈에 띕니다. 본질적인 차이는 계시의 정도에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에 대해 한편으로는 구약에서, 다른 한편으로는 신약에서 어느 정도로 말씀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세와 사람의 불멸에 관한 질문에 포괄적이고 최종적으로 답하는 것은 신약에 와서야 비로소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구약에서 이 주제에 관해 찾을 수 있는 것이 적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과 스올에 관한 말씀은 오히려 신약보다 구약에 더 많습니다. 그러나 구약 사람들의 말에는 흔히 죽음에 대한 불확실함과 무지, 의심, 심지어 두려움이 배어 있습니다. 그 까닭은 이 사람들에게는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 계시된 것이 매우 적었고, 그들에게는 하나님과의 평화와 영원한 구속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신약의 신자들에게서는 전혀 다른 태도를 봅니다. 그들에게 죽음은 더 이상 구약의 많은 신자에게 그러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그런 불확실함과 무지가 더는 없으며, 의심이나 두려움도 없습니다. 욥의 말과 사도 바울의 말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 내가 (다시 돌아오지 못할) 땅, 곧 흑암과 죽음의 그늘의 땅, 어둠같이 캄캄한 땅, 죽음의 그늘이 덮여 아무 질서가 없고 빛도 어둠 같은 땅으로 가기 전에!”(욥 10:21).⁸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고전 3:22).⁹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죽음에 대한 신자들의 태도는 근본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죽음에 대한 승리와 죽음을 이기신 승리자를 압니다. 이 승리는 부활 때에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직후의 상태에서도 드러납니다.

8. 또한 욥기 14:12; 30:23; 38:17 참조.

9. 또한 빌립보서 1:23; 고린도전서 15:54-56; 고린도후서 4:7-5:10 참조.

1.5.1 신약의 계시

왜 신약은 내세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계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죽음이 정복되고 폐하여졌으며, 그로써 그 규모에 있어 모든 것을 바꾸어 놓는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이 전환이 바로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폐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또는 쇠하지 않을 것]을 드러내신지라**”(딤후 1:9-10).

누가도 사도행전에서 비슷하게 말했습니다.

“...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 백성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포하시리라 함이니이다”(26:23).

구약의 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있는 뒤에야 비로소 올 수 있었던 일들에 대해 분명히 알고자 연구했습니다. 그들에게 죽음은 - 적어도 주관적으로는 - 아직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폐하여지지 않았습니다.¹⁰ 그들은 생명과 썩지 아니함이 드러나기 전의 죽음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은 단지 계시의 문제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휘장을 걷어 올리시는 일은 쉬운 일이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연결된 이런 일들의 계시였습니다.

내세의 일들에 대한 완전한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기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 전에는 내세의 일들에 대한 약속이나 계시가 얼마 없었습니다. 그에 비해 오늘날 우리는 주 예수님께서 오신 뒤 신약 성경을 통해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요 3:11-13; 엡 1:3 이하; 빌 3:20).

10. 그럼에도 구약의 모든 신자는 죽은 뒤 하늘의 낙원으로 갔습니다. 이것은 뒤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죽기 전에는 이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곧 그것이 계시되지 않았습니니다.

1.5.2 구약의 계시

구약에는 매우 다양한 저자들이 있고, 그에 따라 여러 가지 본문 형식¹¹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과 함께하신 길을 기록한 역사서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지자들을 통해 그분의 백성과 다른 민족들의 도덕적 상태와 그들의 미래에 대해 말씀하신 예언서들이 있습니다.

그 밖에 욥기, 시편, 전도서 같은 시가서들도 있는데, 이 책들은 특별한 방식으로 사람의 생각과 느낌과 감정을 표현합니다.¹² 마지막에 언급한 이 세 권의 책에서 우리 주제와 관련하여 관심을 끄는 말씀을 가장 많이 발견합니다.

전도자는 때때로 삶과 세상의 의미를 순전히 수평적인 관점에서 설명하려 합니다. 이때 그의 지평은 그가 “해 아래”에서 보는 것을 넘어서지 않습니다 (1:3; 2:11, 18, 22). 의미에 대한 질문에 그가 내놓는 대답 가운데 하나는 이렇습니다.

“사람의 자녀들이 당하는 일과 짐승이 당하는 일이 같으니, 그들이 당하는 일은 한 가지라. 이것이 죽는 것같이 저것도 죽고, 모두에게 숨은 하나뿐이니, 사람이 짐승보다 나은 것이 없도다. 모든 것이 헛되기 때문이라. 모두 한 곳으로 가나니, 모두 흙에서 났으므로 모두 흙으로 돌아가는도다. 사람의 숨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숨은 아래 땅으로 내려가는지를 누가 알랴?”(전 3:19-21).

전도자가 이르는 결론은 오직 이 세상의 관점에서만 참됩니다. 그러므로 이 책이 내세의 일들, 더구나 영원한 일들에 대한 주된 증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시편에서도 전도자의 말과 매우 비슷한 말씀들을 볼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시 49:12; 103:15-16). 이 말씀들도 내세에 대해 최종적인 해명을 주지는 않습니다.¹³

11. 역사 기록, 시, 잠언 등.

12. 제가 여기서 이 책들이 사람의 생각을 담고 있다고 말하지만, 그럼에도 이 책들은 성경의 다른 모든 책과 마찬가지로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되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를 위해 기록된 것입니다.

13. 시편은 성격이 다릅니다. 시편은 대부분 예언적 성격을 띠니다. 특별한 점은 이 예언들이 매우 자주 사람의 생각과 감정으로 표현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다윗이 말하는 고난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 아래 결국 그리스도의 고난에서만 성취될 수 있는 형태를 띠니다.

구약을 신약과 떼어 놓고 보면 모순을 마주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인상은 구약 시대에는 내세의 일들이 부분적으로만 제시되었다는 사실을 잊을 때에만 생길 수 있습니다. 구약의 말씀을 가장 강력한 논거로 삼는 논증은 진리 전체를 보여 줄 수 없습니다.

1.5.3 구약에도 빛이 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주제와 관련하여 빛이 전혀 없었다는 말은 아닙니다. 구약도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지 않는다는 암시를 충분히 줍니다.

-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다”(독일어 직역: “자기 백성에게로 모이다”).¹⁴ 우리 일상 언어에서도 “모이다”는 대개 모든 참석자에게 관계된 일로 여러 사람이 한곳에 함께 모이는 것을 뜻합니다. 이 표현이 죽음에도 쓰인다면, 거기에는 적어도 죽은 자들이 한곳에, 곧 죽은 자들의 세계 - 구약에서는 스올¹⁵ - 에 함께 모인다는 암시가 담겨 있습니다. 눈에 띄는 것은 매장이나 장례가 “모이는 것”과 구별된다는 점입니다.¹⁶ 그러므로 이미 역사의 처음부터 내세와 관련된 개념들이 있습니다.
- 엔돌의 신접한 여인과 사무엘의 영(삼상 28장). 이스라엘에서는 죽은 자를 불러내는 자들이 죽은 사람의 영을 불러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죽은 사람의 영이 어떤 방식으로든 어딘가에 존재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적어도 죽은 자들의 이런 영들이 존재한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이와 별개로 하나님께서는 신비술로 죽은 자를 불러내는 자들을 통해 죽은 자들의 영에게 묻는 것을 가장 무거운 형벌로 금하셨습니다.¹⁷
- 에녹(창 5:24)과 엘리야(왕하 2장)가 하늘로 옮겨진 일. 이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은 예외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들이 하늘로 올라간 뒤 어디에 머물렀는지 물을 수 있습니다.¹⁸ 엘리야와 모세 - 모세는 자연스럽게 죽었습니다 - 는 둘 다 변화산에 나타나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¹⁹

14. 창세기 25:8, 17; 35:28-29; 또한 창세기 37:35; 사사기 2:10 참조.

15. 창세기 37:35; 42:38; 44:31; 민수기 16:30; 사무엘상 2:6.

16. 창세기 35:29; 열왕기하 22:20; 역대하 34:28.

17. 레위기 19:31; 20:6, 27; 신명기 18:11.

18. 2.2 단락 참조.

19. 마태복음 17:3; 마가복음 9:4; 누가복음 9:30.

- 다윗과 그의 죽은 아이(삼하 12:23). 다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과 신자들의 교제와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신뢰는 죽음에서도 끊어지지 않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드러나는 말씀들 외에, 확신과 평안과 기대를 발견하는 말씀들도 있습니다. 시편 16:9-11; 17:6; 31:5; 49:14-15; 73:24-26; 116:15.

정리하자면, 구약은 내세에 대해 어느 정도까지만 알려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약에서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확정적인 진술을 끌어내려고 한다면, 신약에서 이에 대해 발견할 수 있는 빛을 어렵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의 말씀을 신약에 비추어 살피고 그 빛 안에서 해석할 때에만 그것을 바르게 이해할 것입니다. 신약은 언제나 구약을 여는 열쇠이며, 그 반대가 아닙니다.

다음 구절이 구원에 대해 말하는 것은 그 뜻으로 보아 사람의 미래에도 해당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많은 것을 보고 기록했지만, 그것은 찾고 살피는 일이었고, 온전한 깨달음은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벧전 1:10-11).

이 문제에서 구약과 신약의 관계는 독일 기본법 제31조의 한 개념으로 분명히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연방법은 주법에 우선한다.” 곧 같은 사안에 관한 조항들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에는 연방법이 우선합니다.

더 깊이 생각해 볼 질문

- 구약에서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 무엇이 계시되었는지 요약해 보십시오!
- 구약과 신약의 계시에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 왜 구약을 사람의 미래에 관한 가르침의 기초로 삼을 수 없습니까?

1.6 죽음의 기원과 작용

영원하신 하나님²⁰, 곧 오직 홀로 불멸하시는 분²¹의 손에서, 더 좋고 더 아름다울 수 없는 창조 세계가 나왔습니다(창 1:31; 전 3:11).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어(창 1:26-27; 약 3:9) 보이는 창조 세계의 중심이 된 사람은 그의 창조주와 교제하며 살도록 정해져 있었습니다. 사람은 이 목적을 이루기에 가장 알맞은 환경인 놀라운 동산에서 살았습니다.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창 2:9, 16; 3:22). 힘차고 다채로운 생명이 창조 세계의 특징이었습니다. 생명, 그것도 아무런 시간적 제한이 없는 생명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가장 높은 것이었습니다. 사람은 언제든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사람은 처음부터 끝없는 생명을 누리도록 지어졌습니다. 오직 이것만이 하나님의 본성과 뜻에 맞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사람이 불순종하여 창조주를 의지하는 관계와 그분과의 교제에서 벗어날 경우에 대한 죽음의 경고는 더욱 강렬합니다(창 2:17). 생명이 넘쳐흐르는 이 영역에서 죽음의 경고는 있을 수 있는 가장 무서운 경고였습니다. 사람에게 죽음이란, 그가 볼 수 있는 창조 세계, 곧 그 땅의 영역을 떠나야 한다는 것을 뜻했습니다. 그와 함께 이 (보이는) 창조 세계 안에서 알았던 창조주도 떠나야 한다는 것을 뜻했습니다. 사람은 흙으로 지어졌고(창 2:7), 다시 흙이 될 것이었습니다.

“네가 흙[원어로는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창 3:19).

생명을 위해 창조된 사람이 사라지고, 땅 위의 삶을 잃고, 흙처럼 아무 의미 없는 존재가 될 것이었습니다. 이보다 더 큰 대조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20.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지니이다”(시편 90:2). “...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로마서 16:26).

21. “...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원어로는 왕 노릇 하는 자들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원어로는 주관하는 자들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디모데전서 6:15-16).

사람은 뱀, 곧 마귀의 미혹을 받아 불순종을, 그리고 그와 함께 죽음을 택했습니다(창 3:1-7). 죄는 죽음에게 문을 열어 주어 이 창조 세계에서 그 끔찍한 일을 시작하게 했습니다(롬 5:12 이하). 죽음은 죄의 삶입니다(롬 6:23). 죽음은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간 데 따른 끔찍한 결과입니다. 이것이 죽음에 관한 성경의 근본적인 진술입니다. 죄가 원인이고 죽음은 피할 수 없는 결과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관계에서 벗어나고, 그로써 생명을 가지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을 떠납니다.²²

그러므로 죽음은 자연스러운 삶의 끝도 아니고 은혜로운 삶의 끝도 아닙니다. 죽음에는 좋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죽음은 사람이 내주고 싶어 하지 않는 생명을 끝냅니다. 죽음은 최종적이며 되돌릴 수 없습니다. 사람이 죽음에서 다시 돌아올 수 없다는 것(삼하 12:23; 14:14)은 죄인이 된 사람의 끔찍한 운명입니다. 이런 암울한 전망과 함께 역사의 흐름이 시작됩니다. 온 창조 세계가 죽음과 덧없음의 판결 아래 놓였습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언젠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여 온 창조 세계가 해방되는 길을 열 것이기 때문입니다(창 3:15).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또는 덧없음, 헛됨]에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해산하는 수고를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롬 8:19-22).

죽음은 자연을 거스르는 것으로서 창조 세계 안으로 침입해 들어왔습니다. 사람이 이길 수 없는 원수로서, 잔인하고 무자비하게 그 일을 합니다. 사람도 대개 죽음을 그렇게 느낍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은 죽음의 두려움에 시달립니다. 자기에게 무엇이 닥칠지 모르고, 또 자기 양심이 그를 고발하여 정죄하고 살아 계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불러넣기 때문입니다(히 2:15).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벌거벗음을 가리시려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창 3:21). 그들은 처음으로 죽음과 마주했습니다.

22. 요한복음 1:4; 또한 잠언 14:27; 19:23 참조.

이 옷을 만들기 위해 짐승 한 마리가 죽어야 했습니다. 그들에게 훨씬 더 끔찍했던 것은 형제에게 살해된 죽은 아들을 바라볼 때였습니다(창 4:8). 죽음은 파괴적이고 이길 수 없는 원수로 자신을 드러냅니다. 죽음은 거침없이 그 승리의 행진을 시작합니다(호 13:14; 고전 15:54). 아담이 매우 오래 살았지만(창 5:5), 그가 죽어 흠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더 깊이 생각해 볼 질문

- 죽음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 죽음은 무엇을 일으켰습니까?

1.7 죽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여기서 다루는 것은 죄의 결과로 사람의 땅 위의 삶을 끝내는 육체적 죽음입니다. 그런데 죽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는 이미 죽음이 분리를 일으키고, 함께 속한 것을 찢어 놓는다는 것을 넌지시 말했습니다. 죽음은 하나의 통일체, 곧 사람의 온전함의 끝입니다.

사람은 하나의 통일체이지만, 그의 존재를 이루는 여러 측면이 있습니다. 죽음과 관련해서는 영과 혼과 몸이 언급됩니다.²³ 죽음은 몸이 영과 혼에서 분리되는 것, 곧 속사람이 겉사람에게서 분리되는 것입니다(고후 4:16 이하).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을 여러 번 증언합니다.²⁴

1.7.1 사람의 영과 죽음

사람이 죽을 때 사람의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많은 질문에 이 세상의 관점에서 답하는 전도자조차 이렇게 말합니다.

“... 흠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전 12:7).

누가도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일을 기록하면서 이것을 언급합니다.

23. 이에 대해서는 3장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24. 여기서 저는 사람을 둘로 나누거나(이분설) 셋으로 나누어(삼분설) 보려는 것이 아닙니다. 영과 혼이라는 개념은 흔히 서로 바꾸어 쓰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들이 죽음 뒤에도 살아남고 죽음을 넘어 사람의 인격을 보존하는, 사람의 한 부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본질을 말할 때에는 사람의 마음도 성경에서 똑같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예수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눅 8:54-55).

죽음이 닥쳤을 때 소녀에게서 떠났던 영이 돌아왔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영이 몸을 떠납니다(시 146:4). 야고보도 이렇게 말합니다.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약 2:26).

하나님께서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에게 영을 주셨습니다(창 2:7).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께서 그 영을 다시 거두어 가십니다.

“하늘을 펴시며 땅의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영을 지으신 여호와가 이르시되”(스 12:1).

“주께서 낮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숨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주의 영[원어로는 입김(또는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시 104:29-30).

죽는 것은 영이 하나님의 손에 맡겨지는 것입니다(시 31:5).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서 저자들은 이것을 분명히 언급합니다.²⁵

마태: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이 떠나시니라”(마 27:50).

누가: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눅 23:46).

요한: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을 넘겨주시니라”(요 19:30).

창조주로서 그분은 처음에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셨지만, 십자가에서는 온전히 사람이셨기에 그분의 영을 아버지의 손에 맡기셨습니다(시 31:5).

25. 예수님께서서는 영을 넘겨주셨습니다. 곧 그분은 이 넘겨주심의 때를 친히 정하셨습니다. 이 점에서 그분은 유일무이합니다. 그분에게는 자기 목숨을 버릴 권세가 있었습니다(요한복음 10:18). 피조물인 사람에게는 이런 권세가 없습니다.

그분은 영(막 8:12)과 혼(막 14:34)과 몸을 지니신 사람이셨고, 그 몸으로 고난을 받고 죽으셨습니다.

스데반은 죽어 가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 예수여 내 영을 받으시옵소서”(행 7:59).

1.7.2 죽을 때의 영혼

라헬이 베나민을 낳다가 죽을 때 그의 영혼이 떠나갔습니다(창 35:18).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이의 영혼이 돌아오기를 기도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시므로 그 아이의 영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왕상 17:22).

구약에서는 때때로 영혼이 죽는다는 말도 나옵니다(예를 들어 민 23:10; 삿 16:30). 그러나 이것은 영혼의 죽음이 아니라 몸의 죽음을 뜻합니다. 이것은 영혼이 몸에서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 점은 “삶에 지친” 엘리야의 말에서 분명해집니다. 그는 로렘 나무 아래 앉아 자기 영혼이 죽기를 무엇보다 간절히 바랐습니다(왕상 19:4). 그는 주님께 자기 영혼을 거두어 가시기를 구했습니다.

요나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자기에게 낫다며, 여호와께서 자기 영혼을 거두어 가시기를 기도했습니다(욥 4:3).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도, 헤롯 왕에게도 그들이 “영혼을 내쉬었을” 때 죽음이 찾아왔습니다(행 5:5, 10; 12:23).²⁶

하나님께서서는 곡식이 풍성한 부자에게 생명만이 아니라 그의 영혼도 요구하셨습니다(눅 12:20).

그러므로 죽는 것은 (단지 생물학적 생명만이 아니라!) 영혼이 하나님께로 거두어지는 것이지, 결코 영혼이 해체되거나 소멸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사람의 영혼이 죽음에서 사라지지 않고 계속 살아 있다는 것을 조금도 의심의 여지 없이 분명히 합니다.

26. “숨지다”로 번역된 헬라어 *ek-psycho*는 문자적으로 “영혼이 빠져나가다”라는 뜻입니다.

1.7.3 영과 혼

앞에서 인용한 성경 말씀에서 영과 혼은 둘 다 사람이 죽을 때 그를 떠나 다른 곳으로 가거나 “몸 없는” 상태로 존재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영”과 “혼”이라는 두 개념은 여러 곳에서 같은 뜻으로 쓰이며, 흔히 같은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의 뒷부분에서 사람의 영과 혼을 말할 때 이 두 개념을 하나로 묶겠습니다. 저는 “영-혼”이라는 말을 쓰겠습니다. 이 말은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이해를 쉽게 해 줍니다.

더 깊이 생각해 볼 질문

- 죽을 때, 곧 죽어 갈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해 보십시오!
- 사람들은 왜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 죽음과 죄의 관계를 설명해 보십시오!
- 죽음과 관련하여 한편으로는 마귀가, 다른 한편으로는 주 예수님께서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말해 보십시오!

1.8 죽음의 여러 측면

죽음은 사람의 몸에만 관계된 것이 아닙니다. 신약은 모든 사람이 자기 죄 때문에 처해 있는 영적 죽음에 대해서도 말합니다.²⁷ 영적 죽음은 사람의 영의 “비존재”나 소멸이 아니라, 그의 영이 하나님에게서 분리된 것입니다.

신약은 또 “둘째 사망”에 대해서도 말합니다.²⁸ “첫째 사망”은 사람이 보이는 세상을 떠날 때 맞는 육체적 죽음을 가리킵니다. 불신자들에게는 그들이 부활한 뒤 둘째 사망이 뒤따릅니다. 그것은 부활한 뒤에 다시 한 번 죽는 것과 같으며,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둘째 사망은 사람의 최종적인 소멸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최종적으로 분리되는 것이며, 거기서 하나님과의 교제로 다시 돌아오는 일은 없습니다.

27. 누가복음 15:32; 요한복음 5:25; 에베소서 2:1-10; 골로새서 2:13; 요한일서 3:14; 유다서 12; 요한계시록 3:1.

28. 요한계시록 2:11; 20:6, 14; 21:8.

1.9 죽음에 대한 승리

죽음은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승리의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분리된 곳에는 죽음만 있습니다. 죽음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렇다면 죽음이 계속 권세를 쥐고 사람이 영적 죽음과 육체적 죽음과 마침내 영원한 죽음에 계속 매여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딤후 2:3-4). 또 “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겔 18:23).

1.9.1 죽음과 죄

생명을 주기 위해서는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했습니다. 죽음과 죄에 빠진 사람의 구원을 찾으신 구주 하나님께서(딤후 2:11; 3:4) 길을 찾으셨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롬 16:26), 자기 속에 생명이 있으시고(요 5:26) 빛이시며(요일 1:5) 사랑이신(요일 4:8)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생명의 빛으로(요 1:4; 8:12) 죽음의 땅을 비추십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마 4:16; 사 9:2 인용).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을 묘사하고 있기는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가 차매 그분의 아들을 보내셔서(갈 4:4; 히 1:1) 죽음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일을 다 이루시고 부활하신 뒤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 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 있어 사망과 하데스의 열쇠를 가졌노니”(계 1:17-18).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직 하나님께만 해당되기 때문입니다(계 1:8; 2:8; 22:13). 그분은 구약에서 자신을 계시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사 41:4; 44:6; 48:12).

주 예수님께서서는 땅 위에 사람으로 계실 때 죽음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나사로(요 11장)와 나인 성 과부의 아들(눅 7:11-14)과 야이로의 딸(눅 8:49-56)을 살리심으로써 그분은 이것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분이 죽은 자들을 살리신 일은 그분이 생명의 주(행 3:15)이시며, 따라서 하나님 자신이시라는 증거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성과 똑같이 중요한 것은 그분이 사람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으실 수 있도록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죄를 위한 제물로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사흘 뒤에 하나님께서 그분을 살리셨습니다. 부활하신 그분은 이제 사람으로서 풀어질 수 없는 생명을 가지고 계십니다(히 7:16). 그러므로 부활하시고 영화롭게 되신 사람으로서 그분은 사망과 하데스의 열쇠를 가지고 계십니다. 열쇠는 권위를 나타내는 그림입니다.²⁹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과 하데스, 곧 죽은 자들의 세계를 다스리는 권위를 가지고 계십니다. 죽음은 더 이상 그분을 어찌하지 못합니다(롬 6:9-10). 그러므로 그분과 하나 된 사람들도 죽음이 더 이상 어찌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그분께로 돌이켜 그분의 생명, 곧 부활하신 분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사람을 죽음에서 영원히 해방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이 되어 죽으셔야 했습니다. 그로써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을 뿐 아니라, 죽음도 부활로 말미암아 정복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거룩하신 분, 곧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잉태하게 하신 분이셨습니다(눅 1:35). 그러므로 그분의 삶에는 말에도, 생각에도, 행위에도 죄가 없었습니다(요일 3:5; 고후 5:21; 벰전 2:22). 그래서 다른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 그분에게는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죽으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분이 죽으셨을 때, 그분은 자원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분에게는 목숨을 버릴 권세가 있었고, 또 그것을 죽음에서 다시 얻을 권세도 있었습니다(요 10:17-18).

이것은 우리를 다시 죽음과 죄의 관계로 이끕니다. 죄가 죽음을 불러왔습니다. 죽음의 문제는 동시에 죄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이 원인을 다루어야

29. 요한계시록 3:7; 9:1; 20:1; 마태복음 16:19; 18:18; 이사야 22:22 참조.

했습니다. 앞에서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것, 곧 그분이 절대적으로 거룩하시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분은 죄를 보실 수 없고(합 1:13) 죄를 벌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그의 죄와 함께 받아들이시고, 그의 죄를 위한 속죄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그에게 생명을 주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요 1:29). 그분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죄인을 대신하여 짊어지셨습니다(고후 5:21). 하나님의 요구는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다 채워졌습니다. 그분의 거룩하심이 완전히 충족되었습니다.

속죄를 이룬 그리스도의 죽음은 평범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거룩하신 분이 죄가 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 편에서 죄 때문에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이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없는 분을 우리 죄 때문에 벌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죄의 삯으로 받는 죽음은 육체적 죽음일 뿐 아니라 결국 영원한 죽음이기도 합니다. 영원한 죽음, 곧 하나님에게서 영원히 분리되는 형벌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겪으셨습니다. 믿는 우리를 거기서 영원히 해방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사흘 뒤에 부활하셨을 때, 그분은 자신의 신적 능력으로 죽음의 사슬을 끊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죄는 속죄되었으며, 죽음은 정복되었습니다. 그분은 죄와 죽음의 권세를 꺾으셨습니다(롬 5:12-21). 이것이 부활 메시지의 중심입니다. 이것이 죽음의 지배의 끝입니다!

그러나 이 승리가 죽음이 지금 이미 폐지되어 세상에서 치워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죽음은 여전히 세상을 다스립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가진 신자들도 아직 죽습니다. 그러나 신자들에게 죽음은 이미 권세를 잃었습니다. “멀하다”(폐하다)는 “효력 없게 하다”, “무력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세상에서는 죽음이 죄를 통해 계속 다스리지만, 신자는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에게 죽음은 더 이상 심판이 아니라 영광으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히브리서 2:14-15는 이 생각들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매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 주려 하심이니.”

1.9.2 죽음과 마귀

마귀가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마귀가 자기 뜻대로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까? 마귀가 죽음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생명을 그분의 손에 쥐고 계시고, 그분이 원하실 때 그것을 거두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죽음의 권세를 동맹군으로 자기 편에 두고 있습니다. 마귀는 교활한 유혹으로 사람을 죄에 빠뜨렸고, 그로써 사람을 죽음의 권세 아래 두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렇게 마귀는 사람에게 영향력을 얻었습니다. 그는 이 세상의 신(고후 4:4)이자 이 세상의 임금(요 12:31; 14:30; 16:11)이 되었습니다. 죽음과 어둠의 권세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입니다(요 8:44; 요일 3:8). 다시 말하지만, 마귀에게는 죽일 권세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교활한 미혹자로서 사람을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함으로써 살인합니다. 이 미혹의 독은 사람을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리고 영원히 죽입니다. 하나님 없이 죽는 모든 사람은 영원히 그의 먹잇감이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죽음은 마귀를 위해 일하고 그의 악한 의도를 돕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마귀의 세력권인 죽음 속으로 들어가셔서 부활로 승리를 거두심으로써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그분의 십자가 죽음은 마귀에 대한 승리입니다(골 2:15).

마귀는 소멸되지는 않았지만, 결정적인 패배를 당했습니다. 그는 아직 살아 있고, 처음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활동합니다. 그러나 마귀와 죽음의 끝은 이미 확정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지금은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사람들에게만 해당됩니다. 그들은 죽음의 두려움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죽음은 정복된 원수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에 따르면(고전 3:22) 죽음은 이제 오히려 그들의 것입니다. 죽음이 그들을 낙원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데려가기 때문입니다.

신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신다면(롬 8:28), 죽음조차 거기서 예외가 아닙니다.

죽음을 이기신 승리자를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한평생 종노릇을 뜻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양심이 속죄되지 않은 죄책 때문에 깨어나 그들을 고발할 때, 죽음 앞에서 그들의 두려움은 가장 큼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2:14-15를 쓸 때 저자는 특히 율법의 종노릇 아래 있으면서 죄 사함의 확신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는 죽음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의 종노릇을 깨뜨렸습니다. 죄와 죽음과 마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음과 부활로 정복되었습니다. 이것이 머지않아 죄가 우주에서 없어지고(요 1:29; 히 9:26) 죽음이 마지막 원수로서 멸망당할(계 20:14) 근거입니다.

“땀 나중에 멸망 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고전 15:26).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쓰는 것이 어디 있느냐’”(고전 15:54-55; 사 25:8; 호 13:14 참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요일 3:8).

그분은 정말로 그 일을 하셨고, 또 완성하실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2 죽음 뒤에는 무엇이 오는가?

죽은 뒤부터 부활할 때까지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에 대해 성경은 그리 많이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우리의 기대를 완성의 날로 향하게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분의 백성을 하늘의 본향으로 데려가시는 것을 향합니다. 이 복된 소망 앞에서 죽음과 부활 사이의 삶은 뒤로 물러납니다.

그렇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죽음으로 성취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통해서가 아니라 부활의 때에야 비로소 최종 목적지에 이릅니다. 그러나 중간 상태는 최종 목적지 앞의 마지막 구간이며, 이것은 완성을 미리 맛보게 하는 복된 깨달음입니다.

죽음 이후의 삶을 말할 때 우리는 시간적으로 제한된 중간 상태를 말합니다. 제가 다음에서 살펴보려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죽은 뒤 사람의 의식 상태는 어떠한가? 이때 저는 죽은 뒤의 모든 의식과 내세 전반을 부정하는 견해와 몇 차례 논쟁하겠습니다.

이제 저는 이 질문들을 열한 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살펴보면서 신약의 중요한 성경 구절들을 다루겠습니다. 각 장은 그 자체로 충분히 자세하게 쓰여 있어 따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반복이 생길 수 있습니다.

2.1 나사로와 부자

죽음 이후의 삶을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이 분명히 이 잘 알려진 이야기를 가장 먼저 떠올릴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언제나 그런 의미로 이해되어 왔습니다. 그런데도 이 이야기가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 것처럼, 이 이야기를 죽음 이후의 삶과 완전히 떼어 놓는 해석들이 있습니다. 저는 한편으로는 이 이야기의 뜻을 밝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잘못된 설명들에 대해서도 견해를 밝히겠습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며 살았다. 그런데 나사로라는 이름의 한 가난한 사람이 헌데투성으로

그 집 대문 앞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를 채우기를 바랐다. 개들까지 와서 그의 헌테를 핥았다. 그러다가 그 가난한 사람이 죽어 천사들에게 이끌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부자도 죽어 장사되었다. 그가 하데스에서 고통을 받는 가운데 눈을 들어 보니, 멀리 아브라함이 보이고 그의 품에 나사로가 있었다. 그가 불러 말하였다. ‘아버지 아브라함이며,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해 주십시오.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합니다.’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애야, 너는 살아 있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마찬가지로 나쁜 것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여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는다. 그뿐 아니라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서,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려 하여도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다.’ 부자가 말하였다.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 주십시오. 내 형제가 다섯 있으니, 그가 그들에게 간곡히 경고하여 그들도 이 고통 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 주십시오.’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하였다.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할 것이다.’ 그가 말하였다. ‘아닙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며. 죽은 자 가운데서 누가 그들에게 가면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하였다. ‘그들이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누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 해도 설득되지 않을 것이다’”(누가복음 16:19-31, 독일어 Elberfelder 성경에서 번역).

2.1.1 여기서 말하는 것은 죽음 이후의 삶인가?

다음과 같은 이유들은 여기서 말하는 것이 죽음 이후의 삶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 줍니다.

- 이 이야기의 대부분, 곧 3분의 2가 넘는 부분은 두 사람이 죽은 “뒤에” 일어나는 일들을 묘사합니다. 두 사람의 부활에 대해서는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 부자가 죽은 뒤 눈을 든 “하데스”와, 가난한 사람이 죽은 뒤 이끌려 간 “아브라함의 품”은 모두 죽음 너머의 장소나 상태를 가리킵니다. 이 개념들은

달리 설명할 수 없습니다.

- 유대인들은 이 개념들에 익숙했습니다. 그들의 전통에서는 내세에 관한 이런 묘사나 이와 비슷한 묘사가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 부자는 그의 형제들이 아직 살아 있을 때 죽음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형제들은 같은 시간에 존재합니다. 한쪽은 땅 위에, 다른 한 사람은 하데스에 있습니다.³⁰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여기서 휘장을 걷으시고, 그때까지 구약 성경에 계시되지 않았던 것을 드러내십니다.

2.1.2 이 이야기의 뜻

이 이야기가 죽은 직후의 상태를 말한다고 해서, 우리가 문맥(다른 비유들)이나 이 이야기가 직접 겨냥하는 사람들, 곧 바리새인들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이야기에서 예수님께서서는 부자의 사치와 이기심을 그 끔찍한 규모 그대로 보여 주십니다. 부자는 공공연히 율법을 어기는 사람으로 그려지지 않습니다. 그의 죄도, 바리새인들의 죄도 거기에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죄, 곧 돈을 사랑하는 것은 경건이라는 위선의 겉옷 아래 숨겨져 있었습니다(눅 16:14). 돈을 사랑하는 것(딤후 6:10)은 영원에 영향을 미치며, 그 결과는 죽은 직후에 이미 시작됩니다. 이것이 이 이야기의 주제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주님의 제자들에게 하신(눅 16:1)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를 얼마간 떨어진 곳에서 함께 들었습니다(눅 16:14).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주님을 비웃자, 주님께서서는 그들에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특별히 엄중하고 오해의 여지가 없는 교훈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부자의 행동을 통해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르침은 바리새인들이 돈을 사랑하는 것을 꾸짖는 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 경고는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모든 사람이 언젠가 죽어야 한다는 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 경고는 무엇보다 그 뒤에 오는 것을 향합니다. 그래서 훨씬 더 큰 부분이 죽음 너머의 사건들, 특히 부자의 운명을 다룹니다. 두 사람이

30. 그러므로 이 세상의 흐름에 예를 들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나 부활 같은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죽은 뒤의 사건들은 돈에 관한 교훈을 담기 위한 의미 없는 틀이 아니라, 이 이야기의 중심 내용입니다.

2.1.3 비유인가?

이 이야기가 비유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많은 말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이 비유이므로 교리적 진술을 하거나 전에 알려지지 않았던 것을 계시하는데 쓰이지 않는다고 강조합니다. 또 비유에는 하나의 핵심 사상만 있으므로 비유의 세부 사항을 하나하나 해석할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 핵심 사상은 바리새인들의 돈 욕심과 돈을 잘못 쓰는 것을 꾸짖는 것이라고 합니다. 죽음 이후의 삶이 아니라 바로 그것이 핵심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누가는 이 이야기를 비유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가 자기 복음서에서 열한 번이나 비유를 언급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 그렇게 부르기를 기대했는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비유가 아니라는 가장 강력한 논거는 고유한 이름, 곧 나사로라는 이름이 쓰인다는 것입니다. 비유에서는 보통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고유한 이름 - 나사로는 잘 알려진 이름이었습니다(요 11장 참조) - 은 실제로 일어난 사건을 말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분명히 내세를 가리킬 때 쓰던 개념들을 사용하십니까? 그렇게 하심으로써 그분은 바리새인들의 생각, 곧 그들이 내세에 관해 믿던 바로 그것을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일의 엄중함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2.1.4 죽음 이전

처음 세 절만이 땅 위의 삶을 묘사하며(눅 16:19-21), 두 사람의 죽음 이후의 삶을 결정지은 바로 그것을 담고 있습니다. 이름이 언급되지 않은 부자는 이기적으로 살았습니다. 그의 옷은 최고급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부를 하나님의 복으로 여겼을지 모르지만, 그의 삶에는 모든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이웃 사랑을 알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은 가난한 사람을 대하는 그의 태도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가난한 사람은 부자의 집 대문 앞에서 개들과 같은 신세였습니다. 그는 거기서 비참한 거지로 연명하며 부자가 버린 것으로 살았습니다. 부자의 죄는 부유함이 아니라

이기심이었습니다. 그는 어쩌면 날마다 가난한 사람을 보았을 텐데도 그를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개들이 부자보다 오히려 나사로를 더 불쌍히 여긴 것이 분명합니다.

부자와 달리 가난한 사람의 이름은 언급됩니다. 나사로는 “하나님은 도움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에 가난한 사람의 삶의 태도를 푸는 열쇠가 있습니다. 그는 가난한 가운데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께 도움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죽은 뒤 아브라함의 품으로 데려간 것은 그의 가난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그의 신뢰였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렇듯이, 이 두 사람에게도 땅과 작별해야 하는 날이 왔습니다. 두 사람은 똑같이 죽었습니다. 부자는 장례를 치렀지만, 가난한 사람의 장례는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죽자 모든 것이 갑자기 다른 빛 아래에서 보입니다.

사람이 죽을 때, 무엇이 정말 중요하고 무엇이 죽음 너머까지 남는지가 그에게 드러나는 진실의 시간이 옵니다. 그때에는 자기기만도 불신도 없습니다. 그때 사람은, 살아 있을 때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늘 요구하던 증거를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사람이 죽은 뒤의 차이가 땅 위에서 살 때보다 훨씬 더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상황이 뒤바뀌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복된 곳에 있고, 땅 위의 삶을 떠난 것을 아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영인(히 1:14) 천사들이 나사로가 죽는 순간 그를 아브라함의 품으로 데려갑니다.

2.1.5 유대인의 내세관

주 예수님께서 여기서 그분의 청중이 가진 생각, 곧 유대인이신 그분 자신도 알고 계셨던 생각에 연결하여 말씀하신다는 것은 널리 인정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당시의 내세관을 간단히 설명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유대인들은 죽은 자들의 영혼이나 영이 스올로 간다고 믿었습니다. 스올은 죽은 자들의 세계이며, 부활을 기다리는 동안 머무는 임시 거처일 뿐입니다. 그들은 또 - 이것은 구약 성경의 증언을 넘어선 것입니다 - 그곳에서 의인과 불의한

자가 나뉜다고 믿었습니다. 한쪽은 복을 누리고, 다른 쪽은 형벌과 보응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죽은 자들이 온전한 의식을 유지한다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복과 형벌은 아무 의미가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역사가 요세푸스(Josephus)는 바리새인들의 믿음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들은 또한 영혼이 죽지 않는다고 믿으며, 사람이 덕스럽게 살았는지 악덕을 행했는지에 따라 영혼이 땅 아래에서 상이나 벌을 받아, 악덕을 행한 자들은 영원한 감옥에 갇혀 괴로워해야 한다고 믿는다.”³¹ 이런 배경에서 바리새인들은 이 이야기를 이해하는 데 아무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죽음 이후의 사람의 삶과 존재에 대해,

그리고 이 존재가 땅 위의 삶에 의해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구약을 넘어서는 이런 견해에 이르렀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제 의도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이 구약과 모순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주 예수님께서도 이 견해를 정죄하거나 바로잡지 않으시고, 이 생각의 기본 사상³²에 연결하여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신적인 전지하심으로 죽음 뒤에 무엇이 오는지를 계시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여기서, 그것도 유대 철학이나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지 않고, 죽음 이후의 삶이 기쁨 가운데서도 고통 가운데서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사람은 그분의 인격을 의심하지 않고서는 이 말씀을 다르게 해석할 수 없습니다.

2.1.6 아브라함의 품

아브라함의 품은 전형적인 유대식 표현입니다. 청중은 이 표현을 알고 있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표현이 한 번만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품은 의인이 죽은 뒤 받아들여지는 복된 곳이었었습니다. “의인들의 품”이라는 표현도

31. Flavius Josephus, *Jüdische Altertümer*, 18권 1.3장, Wiesbaden (Fourier Verlag), 1985, 506-507쪽.

32. 제가 굳이 “기본 사상”이라고 말하는 것은, 당시의 사상 세계에는 누가복음 16장이 확증하지 않는 지나친 상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죽음 너머의 장소를 가리켰습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벗 아브라함이 중심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뒤에도 계속 살아 있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의문의 여지가 없었습니다(눅 20:27-40). 유대인에게 아브라함의 품은 죽은 뒤에 꼭 차지하고 싶은 영예로운 자리였습니다. 이 자리는 교제와 가까움과 기쁨을 가리킵니다(요 1:18; 13:23).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그분이 유대인들의 생각에 연결하여 말씀하셨다 해도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가르침은 신약의 다른 말씀들과 일치하여 원칙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품”을 “낙원”이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이 생각도 유대인들에게 낯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 “아가 탈군”³³에도 이 생각이 엿보이는데, 거기서는 세상을 떠난 의인들의 영혼을 천사들이 낙원으로 데려간다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품은, 때때로 주장되는 것처럼 장래의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다른 곳에서 이 나라에서 조상들과 함께하는 잔치에 대해 말씀하시기는 하지만 (마 8:11), 그 잔치는 땅 위에서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나사로와 부자가 땅 위가 아니라 보이는 세상 밖에 있다는 것을 봅니다. 동시에 부자의 다섯 형제는 그때 아직 땅 위에 살고 있었습니다. 부자는 누군가 죽은 자 가운데서 보내져 그들에게 경고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그가 전에 살던 것처럼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1.7 나사로는 어떻게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는가?

사람이 죽으면 몸은 썩지만 그의 영-혼은 계속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으로 이끌려 간 온전한 사람으로 그려집니다. 그의 영-혼만 그곳으로 이끌려 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모순이 아닙니다. 세상을 떠난 영혼들에 대해서는 언제나 그들이 몸을 가지고 사는 상태에 있는 것처럼 말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떠난 사람들의 감각과 삶의 표현은, 주 예수님께서 여기서 하시는 것처럼, 그리고 몸을 가진 삶의

33. 구약과 신약 사이 시대의 외경.

현실에 맞게 묘사하는 것 외에는 언어로나 그림으로 달리 묘사할 길이 없습니다.

두 사람의 죽음 뒤에 이어지는 사건들의 묘사는 죽기 전 그들의 삶에 대한 묘사와 다르지 않습니다. 두 사람의 의식과 지각에 관한 한, 죽음은 여기서 분명히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인격, 주변을 의식적으로 지각하는 능력, 기억은 죽은 뒤에도 아무 제한 없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2.1.8 하데스

부자는 하데스에서 눈을 뜨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데스(헬라어 *hadēs*)는 그리스 세계에서 잘 알려진 개념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데스는 지하 세계의 신이었고, 또한 죽은 자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니다.

하데스를 지옥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안타깝게도 몇몇 성경 번역본(예를 들어 Luther(독일어 성경 번역본))은 여기에 쓰인 헬라어 “하데스”를 “지옥”(독일어 *Hölle*)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두 개념이 같은 것을 가리킨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둘은 서로 다른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의 하데스를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고립된” 그래서 잘못된 설명에 이르지 않도록, 신약에서 하데스가 언급되는 10군데를 모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와 세 번째 용례: “가버나움아, 하늘에까지 높아진 너는 하데스에까지 낮아질 것이다”(마 11:23; 눅 10:15).

여기서 “하데스”는 “하늘”과 대조를 이룹니다. 가버나움이 하늘에까지 높아진 것은, 메시아께서 이 도시에서 가장 많은 기적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마 9:1). 여기서는 심판 날에 가버나움이 깊이 떨어지는 것을 “가장 높은” 곳과 “가장 낮은” 곳 사이의 큰 대조로 분명하게 보여 줍니다. 이런 뜻으로 “위”와 “아래”라는 말이 자주 쓰입니다.³⁴ 여기서 하데스는 심판의 장소이며, 복의 장소인 하늘에서 도저히 닿을 수 없을 만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34. 요한복음 8:23; 디모데전서 6:9; 베드로후서 2:4; 유다서 6; 요한계시록 20:1; 잠언 9:18; 15:24 참조.

두 번째 용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모임[또는 교회]을 세우리니 하데스의 문들이 이기지 못하리라”(마 16:18).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이 자기 교회를 세우실, 함락될 수 없고 흔들리지 않는 기초이십니다. 이 반석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하데스조차 교회를 이길 수 없습니다. 하데스에는 권세가 있으며, 이것이 문들로 상징적으로 표현됩니다. 하데스 뒤에는 죽음의 권세가 숨어 있습니다. 하데스와 죽음의 권세는 교회를 이기거나 “점령”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생명이시며 죽음을 이기신 분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데스는 악한 권세이며, 여기서는 교회의 원수로 나타납니다.

네 번째 용례: “그가 하데스에서 고통을 받는 가운데 눈을 들어 보니, 멀리 아브라함이 보이고 그의 품에 나사로가 있었다”(눅 16:23).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용례: 베드로는 시편 16편을 인용하여 주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내 영혼을 하데스에게 버려두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임이로다”(행 2:27; 또한 31절 참조).

이 말씀은 다윗이 수백 년 전에 한 말입니다(시 16:10). 베드로는 오순절 설교에서 이 말씀을 메시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언으로 인용합니다. 하데스는 말하자면 구주의 거룩한 영혼을 낚아채어 자기 것으로 삼으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그러나 하데스는 그분의 영혼을 차지할 수 없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셨기 때문입니다.³⁵ 그분은 죽으셨을 때 하데스에 넘겨지지 않으시고 낙원으로 가셨습니다. 그분의 몸은 무덤에 놓였지만,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썩음을 보지 않았습니다.

35. 대부분의 번역본은 여기서 “내 영혼을 하데스 안에 (남겨) 두지 아니하시며”나 이와 비슷하게 옮깁니다. 이런 문구라면 주님께서 하데스에 계셨던 것이 됩니다. 이때 하데스는 스올과 마찬가지로 의인과 불의한 자를 구별하지 않는, 죽은 자들이 있는 곳 일반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구약의 진술과 일치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C. 브림(C. Briem), *Ein Volk für seinen Namen*, Teil 2, Hückeswagen (CSV), 1983, 100-103쪽 참조. 저는 이 견해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바로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자신의 복음서에서, 한편으로는 누가복음 16장에서 유일하게 하데스와 아브라함의 품을 서로 대조하고(곧 아브라함의 품은 하데스 안에 있거나 하데스의 일부가 아닙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주님께서 죽으실 때 낙원으로 가셨다는 주님의 말씀을 인용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예수님 당시에 이미, 복된 자들이 있는 곳은 하늘이고 불의한 자들이 있는 곳은 스올이라는 견해가 있었습니다. 저는 신약의 하데스를 일관되게 죽음의 권세 아래 있는 불의한 자들이 있는 곳으로 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곳에 계시지 않았습니다(이에 대해서는 부록 참조).

여기서 하데스가 불의한 자들의 영혼이 있는 곳이라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몸, 곧 육체는 무덤과 썩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영혼은 여기서도, 다른 모든 곳에서도 하데스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무덤과 하데스는 분명히 서로 구별됩니다. 둘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일곱 번째 용례: “...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 있어 사망과 하데스의 열쇠를 가졌노니”(계 1:18).

이것은 부활하신 분으로서 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분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죽음과 하데스를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죽음(몸과 관련하여)도, 하데스(영혼과 관련하여)도 하나님의 아들 앞에 굴복해야 했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께 복종합니다! 죽은 자들의 세계와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분의 권위 아래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롬 14:9)고 했기 때문입니다. 신자들은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의 권세는 또한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데에 있습니다. 그분은 열쇠로 하데스를 여시고 영혼들을 이끌어 내셔서, 부활 때에 그 영혼들을 몸과 결합시키십니다.

여덟 번째 용례: “내[요한]가 보매, 볼지어다 청황색 말이 있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하데스가 그 뒤를 따르더라”(계 6:8).

죽음과 하데스는 함께 같은 일을 이루기 때문에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³⁶ 이 둘의 협력은 무엇입니까? 죽음은 몸을 붙잡고, 하데스는 영혼을 붙잡습니다. 이런 뜻에서 하데스는 죽음이 손댈 수 없는 영혼들을 받아들이기 위해 죽음을 따릅니다(마 10:28).

“하데스”라는 말은 언어사적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뜻일 수 있습니다. 하데스는 채워지지 않는 굶주림으로 죽은 자들을 삼킵니다. 이 점에서 하데스는 스올(구약의 하데스)과 비슷합니다. 히브리어 화자들은 스올을 “요구하다”라는 말과 연결해서 이해했습니다(행 2:27, 31 참조).³⁷

36. 사무엘하 22:6; 이사야 28:15, 18; 호세아 13:14; 하박국 2:5 참조.

37. 잠언 1:12; 27:20; 30:16; 이사야 5:14.

아홉 번째와 열 번째 용례: “사망과 하데스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고 사망과 하데스도 불뭇에 던져지니”(제 20:13-14).

죽은 자들이 하데스에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복음 16장의 이야기와 더불어 하데스의 본질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 주는 말씀입니다. 하데스는 복음을 믿지 않은 죽은 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오직 이들만 크고 흰 보좌 앞에 나타납니다.

여기서 우리는 육체적 죽음의 끝을 봅니다. 죽음은 불뭇, 곧 지옥에 던져집니다. 이때에는 모든 죽은 자가 부활했으므로, 하데스에 머물 수 있는 죽은 자들의 영혼이나 영은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필연적으로 하데스의 끝이기도 합니다. 잃어버린 자들은 부활 때에 받은 몸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집니다. 그래서 하데스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으며, 죽음처럼 지옥에서 끝을 맞습니다.

요약: 하데스는 죽음으로 몸에서 분리된, 세상을 떠난 사람들의 영혼을 받아들입니다. 하데스는 죽음의 권세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멸망으로 이끄는 이 죽음에는 오직 불신자들만 매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데스도 그리스도 없이 죽은 사람들만 머무는 곳입니다. 하데스는 부활 때까지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 거쳐 가며 머무는 곳입니다.

2.1.9 누가복음 16장의 하데스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하데스의 뜻은 앞에서 살펴본 구절들에서 드러난 것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게다가 여기에서만 언급되는 세부 내용도 더 있습니다.

부자는 장사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영-혼은 무덤이 아니라 하데스에 있었습니다. 그에 대해 가장 먼저 하는 말은 그가 “고통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죽음으로 감각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감각뿐 아니라 온전한 의식도 죽음 너머까지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말을 하고, 자기 생각을 표현하며,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는 고통과 괴로움으로 가득한 주변을 눈으로 지각할 수 있습니다. 부자는 이 주변을 스스로 고통 받는 “곳”이라고 부릅니다(28절). 그러므로 하데스는 하나의 상태일 뿐 아니라 실제로 머무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부자가 느끼는 고통과 불꽃의 뜨거움은 삶과 피로 된 몸을 전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죽은 뒤부터 부활할 때까지 그런 몸을 더 이상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의 묘사를, 아직 몸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낯선 현실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 현실의 깊이와 크기는 그것을 직접 견디는 사람만 이해합니다. 지옥에서도 비슷한 모습으로 만나는 이 그림은, 하데스의 고난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보여 주기 위해 필요합니다.

헤르만 크레머(Hermann Cremer)는 이 고난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영혼은] 죽음 속에서, 죽기에는 너무 많이 가졌고 살기에는 너무 적게 가진 가난한 사람과 같다. 삶과 죽음 사이에 매달려 떠는 이 상태, 끝없이 죽어 가는 이 상태는 얼마나 끔찍한가! 죽음이 이 점에 대해 사람의 눈을 아직 열어 주지 않는 동안에는, 사람은 자신을 속이고 자기 영혼에 아무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망상에 빠질 수 있다. 우리가 자기 몸의 주인이고, 일이나 기분 전환을 통해 우리를 둘러싼 세상과 교류할 수 있는 동안에는, 영혼의 모든 느낌과 필요를 피해 갈 수 있다. 그러나 죽음과 함께 이 가능성은 끝나고, 영혼의 무력함이 끝없는 쇠약 속에서 드러난다.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 하나님과 떨어진 영혼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생명과도 떨어져 있다. … 영원히 힘없고, 막히고, 묶여 있는 영혼에게 그 불멸은 죽음보다 나은 것이 아니라, 훨씬 더 비참하고 나쁜 것이다. 그것은 존재를 위한 영원한 싸움이요, 모든 만족을 영원히 잃는 것이요, 하나님을 떠난 모든 것과 하나님과 떨어진 모든 존재에 맞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래에서 끝없이 스스로를 소진하는 것이다. 죄 있고 구속받지 못한 사람에게 불멸은 영원한 죽음일 뿐이다. 밤을 밝히는 한 줄기 빛이 아니라, 빛이 드리운 그림자일 뿐이다.”³⁸

이것은 물론 영혼 수면이나 죽음 이후의 비존재와는 전혀 다릅니다. 이 이야기는 정확히 그 반대를 증명합니다. 영혼 수면이라는 잘못된 가르침을 유지하려면 이 이야기를 완전히 다르게 해석해야 합니다. 곧 하데스는 부자의 시신이 묻힌 무덤일 뿐이라고 말해야 합니다. 이런 해석은 구두점³⁹을 달리 찍어서 문장의 뜻을 바꾸는 읽기 방식을 근거로 삼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데스는 부자가 들어가 누운 무덤이 됩니다. 그 읽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38. Hermann Cremer, *Jenseits des Grabes*, Gießen (Brunnen-Verlag), 연도 미상, 31, 32쪽.
39. 구두점이란 원래의 본문에는 없었고 몇 세기 뒤에야 덧붙여진 문장 부호를 말합니다.

“부자가 죽어 하데스에 장사되었다. 그가 고통 가운데 눈을 들었을 때 …” 이렇게 본문을 나누는 것을 뒷받침하는 헬라어 사본 증거는 두세 개도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누는 방식은 오늘날 믿을 만하다고 알려진 성경 번역본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문장의 구두점을 정할 때 결정적인 것은 본문의 문맥과 신약 전체와의 내용상 일치입니다.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신약의 어느 구절도 하데스가 무덤과 같다는 것을 확증하지 않습니다.

언어사적으로 “하데스”라는 말에는 “보이지 않는 것”, “지각할 수 없는 것”이라는 뜻도 있습니다.⁴⁰ 이 점에서도 “하데스”라는 표현이 무덤을 가리킬 수는 없습니다.

하데스와 무덤이 같다는 생각은, “하데스”가 실제로 히브리어 “스올”을 옮긴 헬라어라는 데에서 생겨났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단락에서 보겠지만, “스올”이라는 말은 구약에서 더 넓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2.1.10 스올

시편 16:10이 사도행전 2:27에 인용된 것을 보면, “하데스”가 히브리어 “스올”(히브리어 sheol)을 옮긴 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칠십인역에서 “스올”은 “하데스”로, 때로는 “죽음”으로도 번역됩니다. 구약에는 “스올”이 65번 나옵니다. 그 가운데 절반 이상이 욥기, 시편, 잠언에 있습니다.

구약에서 스올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구약에서 이 말의 뜻을 여러 가지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스올은 죽음의 영역과 관련이 있으며, 여기에는 죽음의 두려움, 무덤, 깊은 구렁, 죽은 자들의 세계도 포함됩니다.

- 무덤이나 구렁이로서의 스올: 창세기 37:35; 42:38; 44:29; 민수기 16:30; 신명기 32:22; 사무엘상 2:6; 욥기 7:9; 시편 139:8; 전도서 9:10; 에스겔 31:16.
- 무덤이나 구렁이지만, 죽음 이후의 의식 있는 삶을 암시하는 스올: 사무엘하 22:6; 열왕기상 2:6-9; 욥기 17:13-16; 아모스 9:2.

40. Dictionary of New Testament Theology, Vol. 2 (Paternoster Press) 1981, 206쪽

- 죽은 자들의 세계, 곧 영혼들이 머무는 곳으로서의 스올: 시편 16:10; 잠언 15:11; 27:20; 이사야 14:9-15.
- 죽음, 악, 두려움, 곤경, 사로잡힘의 권세라는 상징적인 뜻의 스올: 시편 116:3; 이사야 28:15; 57:9; 요나 2:2.

이 성경 구절들은 “스올”이라는 말에 여러 뜻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스올이 언제나 무덤이나 구덩이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그러므로 이 뜻을 신약의 하데스에 옮겨 적용하는 것도 똑같이 잘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셨을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스올에 대한 생각은,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스올 또는 하데스의 묘사와 본질적으로 일치했습니다.

슈트라크(Strack)와 빌러벡(Billerbeck)은 이렇게 씁니다. “에녹서 22장과 누가복음 16:19 이하 사이에 여러 가지 접점이 있다는 것은, 에녹서 22장이 대변하는 스올에 대한 생각이 유대 백성 가운데 어느 정도 퍼져 있었고 예수님 당시에 대중의 일반적인 견해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 준다.”⁴¹

유대인들의 여러 문헌(예를 들어 에녹서)에서 하데스는 세상을 떠난 사람들의 영이나 영혼이 머무는 곳이었습니다. 그 밖에도 스올에는 의인을 위한 구역과 불의한 자를 위한 구역이 있다는 생각이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의인들은 그곳에서 기쁨을 누리고, 불의한 자들은 고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스올이 무덤인 경우가 많기는 하지만, 스올과 무덤은 서로 다른 개념이며 언제나 같은 뜻으로 쓰이지는 않습니다. 무덤은 스올과 달리 복수형으로도 나오며, 땅을 파서 만들고(예를 들어 창 50:5), 특정한 사람에게 속하며(예를 들어 왕상 13:30; 대하 34:28), 그 안에 시신을 뒹글니다.⁴² 이런 특징은 스올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한 문장에서 세 개념을 언급하는데, 그는 이것들을 구별했으므로 이것들은 같은 뜻일 수 없습니다. “스올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마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하심을 바라지 못하되”(사 38:18).

41. Kommentar zu Talmud und Midrasch IV에서 인용.

42. 예를 들어 열왕기하 13:21; 시편 88:5; 예레미야 26:23.

그러므로 신약의 “하데스”와 관련된 “스올”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무덤 너머의 일들이 전혀 계시되지 않았거나 암시로만 계시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관점에서는 스올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할 수 없습니다. 앞에서 말한 스올의 뜻 가운데 **하나**(예를 들어 무덤이라는 뜻)만을 신약의 하데스에 옮겨 적용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2.1.11 눈을 듣다

우리는 부자가 하데스에서 눈을 들었다는 말씀을 읽습니다(눅 16:23). “눈을 듣다”는 말은 잠에서 깨어나는 사람을 떠올리게 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 표현을 쓰셔서 부자의 놀람과 어리둥절함과 함께 그의 경악을 묘사하십니다. 그는 갑자기 지금까지 익숙했던 것과 완전히 다른 환경과 상태를 지각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그는 이런 일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영혼 수면의 가르침을 찾아내려는 사람들은 “눈을 듣다”는 것을 부활로 설명합니다. 하데스가 무덤이라고 말한다면 다른 설명은 남아 있지 않습니다. 무덤 속에서는 눈이 떠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설명은 언뜻 보기에 아주 영뚱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죽음의 잠과 깨어남이 부활과 연결된다는 생각은 쉽게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설명은 의심스럽습니다. 이 이야기의 30절과 31절에서는 문자 그대로 부활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한 번은 문자 그대로, 다른 한 번은 그림으로만 말한다는 것은 이상한 일입니다.

“들다”(헬라어 **epairo**)라는 말은 “눈”이나 “보다”와 함께 자주 나옵니다.⁴³ 신약은 이 표현으로 잠에서 깨어나는 과정이나 더욱이 부활을 묘사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불의한 자들이 부활하면, 곧바로 크고 흰 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고 불못, 곧 지옥에 던져질 것입니다(계 20:11-15). 이 이야기에는 최후 심판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하데스에서 부자는 아직 재판장 앞에 세워지지 않습니다. 최종 상태는 하데스가 아니라 불못입니다. 하데스에도 이미 고통과 괴로움이 있지만, 하데스를 지옥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죄인들이 지옥에

43. 예를 들어 마태복음 17:8; 누가복음 6:20; 18:13; 요한복음 4:35; 6:5; 17:1.

던져지면, 불의한 자들이 머무는 곳으로 쓰였던 하데스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앞의 내용 참조).

2.1.12 멀리서

부자는 멀리서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봅니다. “멀리서”라는 표현은 그곳에 닿을 수 없다는 것과, 절망적으로 잃어버린 채 바뀔 수 없는 상황을 분명히 보여 줍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거리는 두 사람이 살아 있을 때에도 이미 있었습니다. 이제 이 거리는 훨씬 더 커졌고, 더 이상 없앨 수 없습니다. 이것은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로 견디게 될 하나님과의 멀어짐(살후 1:9)이 어떤 의미에서는 죽은 직후에 이미 시작된다는 암시가 아니겠습니까?

부자는 자기 고통을 덜기 위해 아브라함에게 호소합니다. 그는 나사로가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자기 혀를 서늘하게 해 주기를 구합니다. 부자는 자기 처지를 깨달았습니다. 이 부탁은 아주 작은 것이며, 그의 삶에서 알려진 평소의 태도와 더 이상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손가락에서 떨어지는 물 한 방울은, 가난한 사람이 헛되이 바랐던 부스르기과 같지 않습니까? 이 부탁조차 들어주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부자의 상태를 더 이상 바꿀 수 없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드러나는 것은, 죽은 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일이 완전히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한 영향이든 악한 영향이든, 사람이나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든, 천사나 귀신을 통해서든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죽은 뒤에 오직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히 10:31). 성경은 세상을 떠난 사람들을 위한 중보도, 기도도 알지 못합니다.

2.1.13 큰 구렁텅이

하데스와 아브라함의 품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습니다. 죽은 뒤에는 머무는 곳을 더 이상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이보다 더 인상 깊게 묘사한 말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회개할 가능성은 더 이상 없습니다. 이 구렁텅이는 동정으로도, 임의로도 넘을 수 없습니다. 부자 자신도 이곳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더 이상 없다는 것을 압니다.

죽은 뒤에는 더 이상 자비가 없습니다. 사람의 이 땅에서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충분한 기회와 시간을 주기 때문입니다(롬 2:4; 고후 6:2). 주 예수님께서서는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을 결정한다는 것을 그분의 청중에게 진지하게 일깨우십니다.

죽은 뒤에 회개할 가능성, 곧 두 번째 기회를 내세우고 그것을 전하기까지 하는 사람은 어둠으로 가는 길을 가리키는 유리하는 별과 같습니다(유 13). 죽은 뒤에 두 번째 기회를 기대하는 것은 치명적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원한다 해도, 그런 가능성은 없습니다.

부자에게는 더 이상 구원이 없지만, 그는 자기 형제들을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경고하기 위해 그가 아직 무엇을 할 수 있었습니까? 그는 죽었다가 죽음 뒤에 무엇이 오는지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의 말이라면 형제들이 들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부자의 형제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돌아온 사람의 말도 듣지 않을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놀라운 증언조차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회개하게 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것입니다.

얼마 뒤에 주님께서서는 다른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불러내셨습니다(요 11장). 이 나사로는 부자가 요구한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사로의 경우에 아브라함의 대답이 옳았다는 것이 확인됩니다. 유대인들은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이기는커녕, 그분의 전능하심을 보여 주는 이 증언을 잠재우려고 생명과 죽음의 주님을 죽일 계획까지 의논했습니다.

주 예수님 자신도 죽은 자 가운데서 돌아오셨습니다. 그분의 부활은 목격자들을 통해 증명되었고 그분의 제자들이 이 소식을 전했지만, 사람들은 이 증언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부패한 마음은 진리 앞에 굴복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죄인이 하나님께로 인도되는 것은 증거를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회개하는 마음과 밝아진 양심을 통해서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더 깊이 생각해 볼 질문

- 누가복음 16장의 이야기가 비유가 아닌 이유를 설명해 보십시오!

- 신약의 “하데스”와 구약의 “스올”이라는 개념이 무엇을 뜻하는지 요약해 보십시오!
- 누가복음 16장에서 무엇을 통해 죽은 뒤에는 두 번째 기회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집니까?

2.2 산 자의 하나님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과 벌인 잘 알려진 논쟁은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한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복음서 기자 마태, 마가, 누가 모두 한목소리로 이것을 언급합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그에게 물어 말하였다. ‘선생님, 모세가 우리에게 써 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죽었는데 자식이 없으면, 그 동생이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 형을 위하여 씨를 일으켜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일곱 형제가 있었습니다. 맏이가 아내를 맞았다가 자식 없이 죽었고, 둘째와 셋째도 그 여자를 맞았으며, 일곱이 다 그렇게 하였으나 자식을 남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마지막에는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그러면 부활 때에 그 여자는 그들 가운데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일곱이 다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았으니 말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세상의 아들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간다. 그러나 저 세상과 죽은 자 가운데서의 부활에 참여하기에 합당하다고 여김을 받는 사람들은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는다.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다. 그들은 천사들과 같고, 부활의 아들들이므로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이다.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 대목에서 보여 주었다. 거기서 그는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른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그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 있기 때문이다.’ 그러자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대답하여 말하였다. ‘선생님, 잘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아무것도 감히 그에게 묻지 못하였다”(누가복음 20:27-40, 독일어 Elberfelder 성경에서 번역; 막 12:18-27; 마 22:23-33 참조).

사두개인들의 무리와 그들의 견해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2.1 사두개인⁴⁴

이 본문의 몇 가지 세부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복음서 기자 누가의 말을 한번 더 들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사도행전에서입니다.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23:8; 행 4:2 참조). 사두개인들의 가르침은 그 자체로 앞뒤가 맞고 일관성이 있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영들, 곧 몸에서 분리된 세상을 떠난 사람들의 영⁴⁵도 존재하지 않습니다(히 12:23; 벧전 3:19).

역사가 요세푸스(Josephus)의 성경 밖 증언도 이것을 확증합니다. 그는 사두개인들이 영혼 불멸과 지하 세계에서의 형벌과 상급을 부인했다고 기록합니다.⁴⁶

여기서 부활과, 죽음 이후 몸 밖에서의 영-혼의 존재가 직접 연결되어 있으며 서로에게 달려 있다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과 몸에서 분리된 영-혼이 서로 모순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 없이는 다른 하나도 있을 수 없을 만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둘 다 부인했습니다.⁴⁷

이 교묘한 논증에 대한 주 예수님의 대답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 있기 때문입니다(38절). 주님께서서는 이 사실을,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에서 이끌어 내십니다. “나는 네 조상의

44. 사두개인(아마 솔로몬 시대의 대제사장 사독의 이름을 딴 것으로 보입니다)은 오래된 제사장 귀족 계층에서 나왔으며, 대략 기원전 150년부터 기원후 70년까지 유대 제사장 가문 안에서 보수적이고 로마에 우호적인 당파를 이루었습니다. 그들의 “전통적인” 반대자였던 바리새인들과 달리, 사두개인들은 영혼이 계속 살아 있는 것과 천사와 영들의 존재를 부인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일에 개입하신다는 것도 믿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바리새인들의 반대자로서 구전 토라를 거부했고, 사람의 자유 의지보다 하나님의 섭리를 앞세웠습니다. 그들은 모세 오경만 계시로 인정했고, 부활의 소망과 천사에 대한 믿음은 거부했습니다(사도행전 23:8). 사두개인들은 백성 가운데 넓은 지지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정치적·종교적으로 영향력 있는 집단으로서는 사라졌습니다.

45. 이 구절에서는 천사와 영들이 구별됩니다. 이것은 여기서 말하는 영들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의 영이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다른 곳에서는 천사들도 영들이라고 불립니다(예를 들어 히브리서 1:14).

46. *Geschichte des Jüdischen Krieges*, 2권, 8.14장.

47. 이와 달리 이 가르침들은 바리새인들의 확신에 속했습니다(사도행전 23:6-7 참조).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출 3:6; 또한 14-15절 참조). 청중은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세 족장 가운데 아무도 더 이상 살아 있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죽었습니다. 죽음이 완전한 소멸과 비존재, 또는 일시적인 소멸과 비존재라도 뜻한다면, 여호와께서 어떻게 자신이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실제로 죽은 자의 하나님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것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청중은 이것을 이해했습니다.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그분이 잘 말씀하셨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이 하나님의 지혜에 아무 대꾸도 할 수 없었습니다.⁴⁸ 그들이 크게 오해했기 때문에 그분께서 그들의 입을 막으셨습니다(마 22:34).

어떤 사람들은 족장들이 언젠가 다시 살아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억이나 계획 속에서 살아 있다고 이것을 설명합니다. 그러나 이 구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말씀하셨을 때 족장들이 어떤 방식으로든 살아 있어야 했다는 것(곧 기억 속의 생각으로만이 아니라) 외에 다른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족장들의 하나님이 “셨다”거나, 부활을 바라보며 “되실 것이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분이 그들의 하나님이 “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까지 그렇습니다. 또한 그들이 그분에게 “살아 있었다”가 아니라 “살아 있다”고 말합니다.

주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이 살아 있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에게로 넓히셨다는 것은 누가만 기록합니다. 그분은 “그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 있기 때문이다”(그러니까 족장들만이 아니라)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족장들처럼 오래전에 죽은 사람들도 분명히 포함됩니다.

2.2.2 변화산의 모세와 엘리야

복음서 기자들은 구약 시대의 두 신자가 죽은 뒤에도 살아 있었다는 예를 직접 제시합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변형되셨을 때⁴⁹ 모세와

48. 흥미롭게도 예수님께서는 출애굽기에서 인용하셨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부활과 천사의 존재와 불멸(천사는 죽지 않으므로)에 관한 말씀으로 사두개인들의 여러 주장을 한꺼번에 반박하셨습니다.

49. 마태복음 17:1-8; 마가복음 9:2-8; 누가복음 9:28-36.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엘리야는 죽지 않고 하늘로 옮겨졌습니다(왕하 2:11). 에녹도 마찬가지입니다(창 5:24).

엘리야는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곳에 직접 나타났다는 것은 그래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어떻습니까? 그는 죽었습니다(신 34:6; 유 9 참조). 모세가 죽은 뒤에 더 이상 살아 있지 않았다면, 그는 도대체 어디에서 왔습니까? 그가 이미 부활했습니까? 성경은 그에 대해 아무것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럴 수도 없습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는 모세가 아니라 그리스도이시며(고전 15:20, 23), 신자들의 부활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롬 16:26)은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모세도 지금, 그의 죽음 뒤와 그의 부활 전에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나타남을 위해 모세와 엘리야를 살리셨다가 다시 잠들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신자가 아니라 그들만 의식이 있고 복된 상태에 있다고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모든 시대의 신자들이 지금 모두 낙원에 있습니다.⁵⁰

이렇게 모세와 엘리야의 나타남에서도, 주님께서 사두개인들에게 대답하신 말씀에서도, 또 성경 전체의 문맥에서도, 죽은 모든 사람이 살아 있다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많은 유대인(사두개인을 제외하고)에게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살아 있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그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지금 어떤 곳에 있으며, 신실한 유대인도 그곳에 가서 족장들의 영접을 받는다고 믿었습니다.⁵¹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사는 사람들뿐 아니라 세상을 떠난 사람들에게도 생명을 보존하시는 분입니다. 그들과 살아 있는 모든 것이 그분에게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뜻에서 영혼 불멸은 그 자체로 있는 불멸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달려 있는 불멸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족장들에 대해 말씀하셨을 때, 문제는 죽음 이후의 상태가 아니라 부활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족장들이 그때 살아 있었다는 사실이 부활의 증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하며, 간단히 말하면 이런

50. 2.3 단락 참조.

51. 외경 마카베오4서 13:16.

뜻입니다. 세상을 떠난 사람들의 영혼이 살아 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2.2.3 죽음 이후의 삶과 부활의 관계

죄를 통해 세상에 들어온 죽음은 사람에게 대한 하나님의 창조 계획을 가로막았습니다. 죽음은 몸의 삶, 곧 이 땅에서 사람이 몸을 가지고 존재하는 것을 끝내지만, 사람은 영-혼의 인격으로서 계속 살아 있습니다. 그러나 몸 없는 영-혼의 인격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을 때 뜻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⁵² 그분의 뜻과 계획에는 후회하심이 없으므로(롬 11:29),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가지셨던 계획이 이루어지고 사람이 그 “온전함”으로 회복되려면 몸이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죽음이 마지막 말을 하지 않습니다. 몸 없는 영혼들이 그대로 영원한 상태로 남는다면, 그것은 죽음이 이겼다는 것을 증명할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그리스 사람들의 믿음은 죽음을 몸에서 영원히 해방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부활은 하나님께서 원하신 하나 됨 가운데로 사람을 회복시킵니다.

2.2.4 씨앗의 비유

모든 사람이 살아 있다는 사실과 일치하는 것이 바울이 부활을 설명하기 위해 쓰는 그림입니다. 그는 열매를 맺기 전에 먼저 땅에 심기는 씨앗에 대해 말합니다. 그는 이것을, 언젠가 부활할 세상을 떠난 신자의 죽은 몸과 비교합니다(고전 15:35-44; 요 12:24 참조).

흥미로운 것은, 땅에 심긴 씨앗이 유기적인 과정이 완전히 끝난다는 의미에서 실제로 죽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씨앗이 완전히 사라지고 분해된다면, 결코 열매가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 있는 배아에서 새로운 식물이 나옵니다. 배아는 자라날 식물을 결정하는 모든 유전 정보를 자기 안에 지니고 있습니다. 배아를 감싸고 있는 씨껍질이나 겉껍질은 떨어져 나가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는 이 부분만 죽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사람(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신자)이 죽은 뒤에도 계속 살아 있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또 하나의 암시입니다. 씨앗의 겉껍질은 사라지는 몸과 비교됩니다. 배아는 속사람(고후 4:16), 곧 영-혼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52. 3.4 단락 참조.

이 부분은 죽은 뒤에도 계속 살아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배아가 새 열매를 맺는 것처럼 몸이 다시 살아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씨앗의 일부가 분명히 계속 살아 있는데도, 씨앗을 땅에 심는 것을 명시적으로 “죽는다”고 부른다는 점을 짚어 두겠습니다. 이것은 모순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사람의 죽음은 결코 사람이 완전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몸에서 분리되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더 깊이 생각해 볼 질문

- 죽음 이후의 삶과 부활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 왜 부활이 있어야 합니까?
- 씨앗의 비유는 어떤 점에서 부활의 그림일 뿐 아니라 죽음 이후의 삶의 그림이기도 합니까?

2.3 십자가에 달린 행악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악자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하신 말씀은 죽음 이후의 삶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 줍니다. 그분은 그곳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눅 23:43).

골고다의 장면은 가슴을 울립니다. 예수님의 오른편과 왼편에 달린 두 행악자에게는 끝이 왔습니다. 그들은 자기 행위에 합당한 것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더 이상 한 줄기 희망도 없었습니다. 절망 가운데서 행악자 가운데 한 사람이 자기 죄를 뉘우치며 가운데 계신 분께 호소합니다. 그것이 그가 아직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눅 23:42). 이 행악자는 자기 옆에 있는, 그가 무죄하다고 확신하는 이분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요 왕이심이 틀림없다고 짐작합니다. 그러니 그에게 어떻게든 아직 희망이 있다면, 그 희망은 언젠가 만물 위에 왕으로서 마지막 말씀을 하실 분께 있었습니다.

이 행악자는 이 순간에 미래를, 곧 메시아께서 오셔서 그분의 통치를 시작하실 때를 생각했습니다. 유대인의 소망은 바로 그것을 향해 있었습니다. 구약을 통해 메시아에 대해, 곧 그분의 통치, 그분의 나라, 그분의 위대함과 권능에

대해 많은 것이 알려져 있었습니다.⁵³ 이 행악자는 메시아께서 그분의 나라를 시작하시며 나타나실 때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단 12:2; 사 26:19). 그는 자기도 그분의 나라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자기를 기억해 달라고 그분께 구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서는 놀라운 대답을 하십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대답이 그토록 놀랍게 보이는 것은, 구주께서 그분의 말씀으로 행악자의 부탁에 그대로 응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행악자는 장래의 왕국을 생각하지만, 구주께서는 낙원을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미래가 아니라 “오늘”을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님께서서는 때때로 그분께 던져진 질문에 직접 대답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그분의 대답은 질문이 의도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드러내기 때문에 얼마나 놀라운지 깨닫게 됩니다(요 2:19-22 참조).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낙원과 왕국은 분명히 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낙원**이라는 개념을 무엇으로 이해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행악자와 일반적인 유대인이 낙원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3.1 낙원

이 말은 아마 페르시아어에서 왔으며, “둥글게 둘러친 올타리나 담”, “공원”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페르시아 왕들의 화려한 정원을 가리키는 데 쓰였습니다. 구약에서도 비슷하게 쓰였습니다.⁵⁴ 구약의 헬라어 번역인 칠십인역에서는 이 말이 에덴동산, 곧 땅 위의 낙원⁵⁵이나, 그냥 동산을 가리키는 데 쓰입니다.⁵⁶ 성경의 처음 몇 장에서 우리는 땅 위의 낙원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이었는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사람이 살 곳으로 마련하셨습니다. 타락 후에 사람은 낙원에서 쫓겨났고, 다시는 그곳에 들어갈

53. 예를 들어 시편 2편; 8편; 24편; 이사야 4장; 9장; 11장; 53장; 다니엘 2장; 7장; 미가 5장 등.

54. 느헤미야 2:8; 전도서 2:5; 아가 4:13.

55. 창세기 2:8; 13:10; 이사야 51:3; 에스겔 31:8.

56. 민수기 24:6; 이사야 1:30; 에스겔 31:8.

수 없었습니다. 그 뒤로 우리는 이 낙원에 대해 더 이상 듣지 못합니다. 에덴에 있던 원래의 땅 위의 낙원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께서 이 낙원을 뜻하지 않으셨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구약의 기록은 에덴의 낙원에 국한되어 있고, 구약 어디에서도 다른 낙원에 대해 말하지 않으므로, 우리는 예수님 당시에 낙원을 무엇으로 이해했는지 알아보기 위해 성경 밖의 정보원인 유대 전통을 살펴보겠습니다.

2.3.2 유대 전통 속의 낙원

예수님 당시의 유대 전통, 곧 옛 회당은 낙원을 세 가지 서로 다른 형태로 알고 있었습니다.⁵⁷

- 원래의 땅 위의 낙원. 이것은 그 뒤의 모든 낙원 관념을 결정지었습니다.
- 영혼들의 낙원. 이것은 잠든 의인들의 영혼이 중간 상태 동안 머무는 곳입니다. 사람들은 영혼들의 하늘의 낙원을 믿었습니다. 이 생각에 따르면 에녹과 엘리야뿐 아니라 죽장들도 그곳으로 옮겨졌습니다.
- 땅 위의 마지막 때의 낙원. 그 중심은 메시아 아래의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 될 것이며, 부활과 최후 심판 뒤에 복된 자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땅 위의 낙원을 닫으시고 땅에서 거두어 가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제 낙원이 하늘에 있으며, 동시에 낙원 같은 평화의 왕국으로 다시 나타날 것이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땅 위의 낙원은 내세의 낙원과 장래의 낙원의 본이 됩니다.

유대교에서 알려진, 복된 자들이 머무는 하늘의 장소를 가리키는 다른 이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산 자들의 땅” - 시편 116:9에서 따온 말입니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 “생명 싸개”(삼상 25:29) - 여호와와 함께 싸여 있는 생명 싸개는 흔히 복된 자들이 있는 곳으로 이해되었습니다.

57. Strack & Billerbeck, *Kommentar zum Neuen Testament aus Talmud und Midrasch*, München (C.H. Beck).

- “보물 창고”⁵⁸ - “그대의 영혼이 영원한 생명의 보물 창고에 보존되기를.”
- “하나님의 보좌 아래” - 의인들의 영혼은 영광의 보좌 아래에 보존됩니다.⁵⁹
- “하늘” - 영혼들은 부활 때에 다시 몸과 결합될 때까지 하늘에 머뭅니다.

이런 증거들은, 예수님 당시에 구약의 계시를 분명히 넘어서는 내세에 대한 이해 또는 생각이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 줍니다. 이런 이해가 어디에서 왔는지는 밝히기 어렵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예수님께서 이와 관련하여 “낙원”(눅 23:43), “지옥”⁶⁰, “하데스”(예를 들어 눅 16:23)라는 개념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이 개념들은 당시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의 내세관을 묘사하는 말이었습니다. 바울은 바리새인이었고, 그도 죽은 뒤에 영혼이 계속 살아 있다는 것과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념들은 유대인들에게 새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로써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느 정도의 진리를 담고 있던 이 믿음의 핵심 내용을 인정하십니다.⁶¹ 이런 배경은 우리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무엇이 하나님의 진리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언제나 오직 성경, 곧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2.3.3 신약의 낙원

주 예수님께서 당시의 생각, 곧 낙원은 떠나간 의인들의 영혼이 있는 곳이라는 생각에 연결하여 말씀하신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것은 그 상황에서 필연적으로 드러납니다. 그들은 십자가에서 죽는 그날에 낙원에 들어갈 것이었습니다. 구주께서는 그 뜻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왕권을 가지고 나타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 아니, 너는 오늘 벌써 나를 따라 낙원에 들어올 수 있다.” 구주께서는 그날 죽으셨고, 그분의 영을 아버지 손에 맡기셨습니다. 행악자는 그분보다 조금 뒤에 죽었습니다. 주님께서 죽으셨을 때 그분은 낙원에 가셨고, 행악자는 은혜를 입은 죄인으로서 그분을 따라 그곳에 갔습니다.

58. 같은 책.

59. 요한계시록 6:9 참조.

60. 헬라어 “게헨나”(예를 들어 마태복음 5:22).

61. 이에 대해서는 F.W. Grant, *Old Testament Shadows*, Charlotte, North Carolina (Books for Christians), 1972, 246쪽 이하의 “Facts and Theories as to a future State” 참조.

“낙원”이라는 말은 신약에서 누가복음 23:43 외에 두 번만 더 나옵니다. 바울은 낙원과, 그곳으로 이끌려 간 특별한 체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십사 년 전에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고 몸 밖에 있었는지도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셋째 하늘까지 이끌려 간 사람이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고후 12:2-4).

바울은 낙원을 셋째 하늘이라고 부릅니다. 이 표현은 이 문맥에서만 나오며, 그것이 하늘의 낙원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 줍니다. 낙원과 같은 뜻으로 쓰인 “셋째 하늘”이라는 개념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하늘은 우리가 사는 대기이고, 둘째 하늘은 별들이 있는 우주이며, 셋째 하늘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낙원입니다.

도움이 되는 평행 구절은 히브리서 9:23입니다(8:5 참조). 거기서는 구약의 성막과 그와 관련된 예배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라고 말합니다. “셋째 하늘”은 순서와 단계를 나타내며, 이것은 성막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뜰(1)을 지나 성소(2)를 거쳐 지성소(3)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보좌인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거하셨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집, 곧 땅 위에 있는 하나님의 처소였습니다.⁶²

그러므로 “셋째 하늘”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처소를 생각하게 합니다. 이것이 낙원의 본질적인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그곳에는, 일찍이 성막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이 영광은 이제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보입니다(고후 4:4-6). 그분이 그곳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입니다(벧전 3:22).

바울은 이 압도적인 영광을 사람의 말로 이야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말에서 알 수 있듯이, 그가 그곳에서 보고 들은 것은 사람의 상상력을 넘어섰습니다.

62. 신자들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사역을 근거로, 영적으로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곧 그분의 바로 곁에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히브리서 4:16; 10:19 이하; 에베소서 2:18).

우리는 이미 주 예수님께서 행악자에게 말씀하실 때, 낙원을 죽은 뒤 영혼들이 머무는 곳으로 보는 유대인의 생각에 연결하셨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후서 12:2에서는 이런 뜻을 찾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 번째 구절에서도 보게 되겠지만, “낙원”이라는 개념을 잠자는 신자들이 머무는 곳으로만 제한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낙원은 이 목적을 위해, 그리고 제한된 기간을 위해 “마련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낙원에 있는 잠자는 신자들의 상태를 알려 주려고 하신 것은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분은 영화롭게 되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⁶³ 하늘의 영광을 그에게 보여 주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계속되는 섬김을 위한 격려이자 준비였습니다.

그런데도 고린도후서 12장에서는 중간 상태를 결정짓는 근본적인 사실 하나가 드러납니다. 바울은 자기가 몸 안에서 낙원으로 이끌려 갔는지 몸 밖에서 이끌려 갔는지 몰랐다고 두 번 말합니다(2, 3절). 그러니까 그가 몸 밖에서 낙원에 있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신자가 죽을 때에도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의 몸은 썩어 흩어지지만, 영-혼은 낙원으로 갑니다. 이것은 몸 밖에서, 곧 몸 없이 의식을 가지고 존재하는 것이 있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요한계시록 2:7에서 낙원이 세 번째로 언급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여기서도 하늘의 낙원이 언급됩니다. 이 묘사는 에덴동산의 묘사와 연결됩니다. 여기서도 생명나무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생명나무는 그때 동산 가운데에 있었습니다(창 2:9).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뒤로 영화롭게 되신 사람으로서 하늘 낙원의 중심이신 것과 같습니다. 생명나무에서 그리스도는 참된 생명의 근원으로 보입니다(요 14:6; 행 3:15).

이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것이라는 약속이 주어집니다. 원칙적으로 모든 신자에게 해당하는 이 약속은 죽은 뒤부터

63. 에베소서 1:3; 2:6; 골로새서 3:1-4; 빌립보서 3:20.

부활 때까지의 기간에 국한되지 않고, 영원토록 신자들이 누릴 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창조 안에서도 생명나무를 발견합니다(계 22:2, 14, 19).

여기서도 “낙원”이라는 개념은, 떠나간 영혼들이 일정 기간 머무는 중간 상태와 장소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그것은 평화의 왕국과 새 창조의 낙원이며, 그때 그곳에서 민족들과 부활한 성도들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누릴 것입니다.

이 고찰에서 우리는, 하늘의 낙원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라는 (그리고 언제나 그런 곳이었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주님께서서는 십자가에서 그분의 영을 아버지 손에 맡기셨을 때 아버지께로 가셨습니다. 하나님께 가장 가까운 이곳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며, 그 영광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보입니다. 모든 시대의 성도들이 잠들면 그곳으로 갑니다. 그들은 집으로 돌아갑니다. 하늘이 그들의 본향이기 때문입니다(고후 5:8; 빌 3:20). 그들(곧 그들의 영-혼)은 부활의 날까지 그곳에 머뭅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그들의 구속자 앞에서(빌 1:23) 수고를 그치고 쉼을 누립니다(계 14:13).

2.3.4 누가복음 23:43을 달리 해석할 수 있는가?

죽음 이후의 삶이 없다고 전제한다면, 낙원은 물론 떠나간 영혼들이 있는 곳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기서 말하는 낙원이 장래의 왕국이라고 논증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유대 전통(앞의 내용 참조)이 이 생각을 반박합니다. 특히 십자가 위에서 하신 주님의 말씀이 이것을 분명히 보여 줍니다. “오늘 [미래가 아니라]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께서 “오늘”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분이 죽으시는 날에 낙원에 가셨기 때문입니다.

왕국과 낙원이 같다는 견해에 이 “오늘”은 문제가 됩니다. 권능 가운데 임하는 왕국은 지금까지 아직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쉼표나 쌍점을 “오늘” 앞이 아니라 “오늘” 뒤에 찍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오늘”은 더 이상 낙원에 들어가는 시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시점을 가리키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신약의 기록자들은 구두점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말해 두어야 합니다. 문장 부호와 띄어쓰기는 나중에, 대략 기원후 4세기에 덧붙여졌습니다.

그런데 구두점으로 “오늘”을 말하는 시점과 연결하고⁶⁴ 낙원에 들어가는 것과는 연결하지 않는 사본은 단 하나(!)뿐입니다.⁶⁵ 그렇게 읽는 것은 누가복음 2:11; 4:21; 19:5, 9; 22:34가 보여 주는 누가의 어법과도 완전히 어긋날 것입니다.

야고보서 4:13과 히브리서 3:7에도 같은 것이 해당됩니다. 이 구절들에서 우리는 비슷한 문장 구조를 봅니다. 여기서도 “오늘”은 말하는 시점을 나타내려고 쓰인 것이 아니라 일이 일어나는 시점을 강조하려고 쓰였습니다. “오늘”이라는 말의 뜻은 분명합니다. 게다가 누가복음에서는 “내가 네게 이르노니”라는 말이 이미 현재형이므로, 쓸데없는 중복이 생길 것입니다. 행악자가 주님의 말씀을 언제 들었는지 몰랐겠습니까? 아닙니다.

주 예수님께서서는 그분의 대답에서 행악자의 실제 필요에 응하십니다. 그 필요는 그가 죽는 날, 곧 십자가의 “오늘”에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죽음의 저편에서 어디로 갈 것입니까? 행악자 자신이 묻지 않았는데도, 주 예수님께서서는 이 본질적이고 그 순간에 결정적인 질문에 응하십니다. 이렇게 죽음의 시간에 행악자의 기대와 소망은 넘치도록 이루어집니다. 그의 기대를 훨씬 뛰어넘는 것이 주어집니다. 그는 죽은 직후에 그리스도를 따라 하늘의 낙원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곧 행악자에게 주어진 것이 우리에게도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태는 바로 그 행악자의 상태였습니다. 우리는 소망이 없었고, 죄의 책임 때문에 사형 선고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가 그 선고를 없애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분이 오시기 전에 죽는다면 낙원에 갈 수 있습니다. 행악자가 죽음을 면하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도 어찌면 죽음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은 우리를 우리 주님께로 데려갑니다.

사람이 불순종으로 스스로 낙원에 들어갈 길을 잃어버린 뒤에, 그분의 은혜로 우리에게 낙원으로 가는 길을 여시는 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도 새 창조

64. 시리아어 사본, 큐어턴 시리아어 사본(Cureton Syrer), 5세기.

65. 이 구절은 필사 과정에서 바뀌거나 보충되기도 했습니다. 몇몇 사본에서는 “그러니 이제 용기를 내라”, “낙원” 대신 “에덴동산”, “너는 정말 믿느냐” 같은 문구가 나중에 덧붙여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Bruce Metzger, *A Textual Commentary on the Greek New Testament*, London (United Bible Societies), 1975, 181, 182쪽 참조.

때에야 비로소 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을 때 이미 여십니다.

더 깊이 생각해 볼 질문

- “낙원”은 무엇을 뜻합니까?
- 구약에서
- 누가복음 23장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 고린도후서 12장의 바울의 말에서
- 그곳에는 누가 있습니까?
- 낙원은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2.4 영원한 영광 – 죽음 앞에서의 소망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둘째 편지의 이 본문은, 신약의 서신에서 우리 주제에 관해 찾을 수 있는 가장 자세하고 가장 많은 것을 알려 주는 단락일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때문에 끊임없이 죽음과 마주했던 사도 바울은 죽음과 부활, 그리고 그 사이의 기간에 대해 쓰게 됩니다. 이 구절들에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살전 4:13),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나큰 위로(고후 1:3; 살후 2:16)가 담겨 있습니다.

사실 고린도 사람들은 이 주제에 대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미 자세히 가르침을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는 부활을 부인하는 이단에 맞서는 것이 문제였습니다(12절). 그 때문에 바울은 부활에 대해 근본적인 내용을 썼습니다. 여기서는 이 소망이 날마다의 삶의 곤경 속에서 어떻게 힘을 발휘하는지, 이 소망이 어떤 격려와 위로와 확신을 줄 수 있는지가 문제입니다. 문맥 때문에 고린도후서 4:16부터 5:10까지 인용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 잠시 지나가는 우리의 가벼운 환난이 모든 해아림을 넘어서는 영원한 영광의 무게를 우리에게 이루어 준다. 우리가 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땅에 있는 집, 곧 장막[또는 장막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집이 하늘에 있다.

참으로 우리는 이 장막에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바란다. 물론 그것은 우리가 옷을 입고 있더라도 벗은 자로 발견되지 않는다면 그렇다. 이 장막에 있는 우리는 짐을 진 것처럼 탄식한다. 벗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덧입고자 하는 것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켜지게 하려는 것이다. 바로 이것을 위해 우리를 준비시키신 분은 하나님이며, 그분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담대하며, 몸 안에 거하는 동안에는 주님에게서 떠나 있다는 것을 안다(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 우리가 담대하여 차라리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 거하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몸 안에 거하든지 떠나든지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를 힘쓴다.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각 사람이 선이든 악이든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 받게 하려는 것이다”(고린도후서 4:16-5:10, 독일어 Elberfelder 성경에서 번역).

이 성경 말씀에서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과, 영원하고 하늘에 속한 것들이 서로 대조됩니다. 믿음의 저울에서 환난은 영원한 영광의 무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지금 이미,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벧전 5:10; 살전 2:12), 아니 지금 이미 믿음으로 소유하고 있는 장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성령께서는 영광의 소망이 우리 마음속에 살아 있도록 끊임없이 힘쓰십니다(골 1:27; 딤후 2:13; 벧전 4:14). 이것은 꼭 필요합니다. 우리는 삶을 보이는 것들에 맞추고 그것들에 좌우되기 쉽기 때문입니다(4:18).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한 지칠 줄 모르는 섬김 때문에 겪은 고난을 생각하면서 영원한 영광에 대해 씁니다. 그는 얼마나 자주 죽음을 눈앞에 두었습니까(고후 4:7-15; 11:23-28)! 그가 그리스도를 위해 죽음을 당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자기가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더 이상 배제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본문은 죽음, 죽은 뒤부터 부활 때까지의 상태, 그리고 죽을 몸의 부활과 변화를 다룹니다. 이것을 생생하게 설명하기 위해 바울은 날마다의 삶에서 가져온 세 가지 그림을 씁니다. 이 그림들은 장래의 일들을 우리에게 더 가깝게 가져다줍니다. 신약의 기록자 가운데 누구도 이 중간 상태나 영광 가운데 있는

부활의 몸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묘사할 수 없었습니다.⁶⁶ 아닙니다. 그것이 언젠가 얼마나 영광스러울지는 우리에게 크고 기대에 찬 긴장으로 남아 있습니다.

바울은 5장의 처음 10절에서 다음과 같은 그림들을 씁니다.

- 땅에 있는 장막 집
- 덧입음
- 나그네 길과 본향

첫 번째 그림을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이 그림들을 이해하는 열쇠를 찾을 수 있는 고린도후서 4:16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

여기서는 죽음 이후 사람의 존재와 관련하여 중요한 두 가지 본질적인 개념, 곧 겉사람과 속사람이 언급됩니다.

2.4.1 겉사람

겉사람은 덧없고 죽을 사람이며, 그 쇠퇴의 과정은 우리 눈앞에서 진행됩니다. 겉사람은 4장과 5장에서 다음과 같은 표현으로도 묘사됩니다.

- 질그릇(4:7)
- 몸(4:10)
- 죽을 육체(4:11)
- 땅에 있는 장막 집(5:1)
- 죽을 것(5:4)

“겉사람”은 한 사람에게서 세상을 향해 바깥으로 보이는 부분입니다. 겉사람은 이 땅에서 존재하는 동안 그에게 밀려오고 그를 공격하는 모든 것 때문에 소진되고 닳아 없어집니다. 바울의 경우에는 특히 그리스도 때문에 받은 박해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지칠 줄 모르는 헌신을 통해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고후 4:7-12; 11:23-28).

66. 바울은 낙원으로 이끌려 갔지만, 그곳에서 듣고 보고 경험한 것을 전할 수 없었습니다.

겉사람은 말하자면 속사람을 감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을 껍데기”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영혼과 몸, 물질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을 나누는 것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겉사람은 죽을 몸 안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존재하는 것을 이루는 모든 것과 관련됩니다. 정신적이고 지적인 기능과 감정은 겉사람과 너무나 연결되어 있어서, 실망과 낙담과 무기력이 거기서 생겨납니다.

겉사람은 덧없음과 시간의 제약 아래 있습니다. 마지막에 죽음은 쉽게 깨지는 그릇을 부술 것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신 하나님께서는, 말하자면 조각조각 흩어진 몸이라는 깨진 그릇도 부활 때에 다시 맞추어 완전하게 하실 것입니다(고후 4:14).

2.4.2 속사람

그러나 사람은 겉사람으로만이 아니라 속사람으로도 이루어져 있습니다. 속사람은 사람의 안을 향한, 물질이 아닌, 보이지 않는 면을 가리킵니다. 고린도후서 4:16-5:10은 신자들을 다룹니다.⁶⁷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은 오직 그들만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속사람에게는 나이의 한계가 없습니다. 속사람은 성령을 통해 끊임없이 새로워집니다. 속사람은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붙잡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속사람에게 새 힘을 주시므로, 속사람에게는 숨겨진 힘의 원천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마음에 숨은 사람”(벧전 3:4)에 대해 말합니다. 마음에서 썩지 아니할 (시간을 넘어서는!, 곧 언제나, 죽음 너머까지도 존속하는)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이 나옵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막 7:21-23; 마 7:15; 눅 11:39-40 참조).

속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생명으로, 하나님을 위해 삽니다.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롬 7:22). 신자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그리스도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마음에 계실 수 있게 됩니다(엡 3:16-17).

67. 불신자에게도 속사람이 있지만 다른 의미에서, 곧 영-혼이라는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에서, 바울이 18절에서 하는 말이 속사람에게도 해당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이다.” 속사람은 영원히 살 것입니다.⁶⁸ 속사람은 육체적 죽음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저는 왜 “겉사람”과 “속사람”을 열쇠가 되는 개념이라고 부르는 것입니까?

뒤에 나오는 그림들에서 우리는 일치하는 점을 발견합니다. 장막 집과 덧입는 옷은 겉사람에 해당합니다. 이 몸 안에 속사람이 머물며, 그 안에 거합니다. 속사람은 장막 집 안에 거하고, 옷을 입으며, 몸을 떠나 있을 수도 있습니다.

2.4.3 땅에 있는 장막 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땅에 있는 집, 곧 장막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집이 하늘에 있다”(고후 5:1).

여기서 첫 번째 그림이 소개됩니다. 사람의 몸 안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존재하는 것, 곧 몸의 시간적이고 땅에 속한 형태가, 영원하고 하늘에 속한 형태인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과 대조되어 장막 집에 비유됩니다. 장막을 만드는 사람이었던 바울(행 18:3)은 삶에서 우러나온 말을 합니다. 장막 집이 땅에 속한 것은, 사람이 흙으로 지어졌고(창 2:7) 땅의 영역에 머물기 때문입니다(고전 15:48). 장막 집은 삶의 불안정함과 나그네 길, 그리고 한곳에 잠깐 머무는 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사람은 언젠가 땅을 떠나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장막은 거처와 처소를 말해 줍니다. 우리가 우리 몸 안에 거하듯이, 사람은 그 안에 거합니다.⁶⁹

이 땅에 있는 장막 집, 곧 몸 안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존재하는 것이 죽음으로 무너지면, 우리에게는 그 직후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이 있습니다. 이것은 큰 위로입니다. 그렇다면 죽음은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하늘의 존재 형태로 곧바로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죽을 몸 안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존재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집은 먼저 죽음 이후 우리의 상태를 묘사합니다. 사도는 8절에서 이것을 “주님과 함께 거하는[집에 있는]”이라는 표현으로 묘사합니다.

68. 속사람은 새 창조, 곧 새 사람을 가리키는 다른 이름입니다. 신자가 받는 영생도 이것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69. 이사야 38:12; 마가복음 14:58; 요한복음 2:19-22.

사람은 죽음으로 이 장막 집을 “벗을” 수도 있습니다(4절). 바울이 쓰는 세 그림은 서로 겹쳐서, 2절에서는 처소가 동시에 옷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이 장막 집에서 “이사하여” 그곳을 떠나 있을 수도 있습니다(8절). 여기서 사람은 몸(장막 집) 안에 있을(거할) 수도 있지만, 다른 곳에 머물기 위해 몸을 떠날(거기서 이사할) 수도 있다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같은 생각을 사도 베드로에게서도 발견합니다(벧후 1:13-14). 그는 곧 순교자로 죽어 땅과 작별하고(15절), 집에, 곧 그의 주님 곁에 있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죽음을 가리켜 “떠남”(헬라어 *exodus*)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것은 땅에 있는 장막 집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존재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는 죽음 너머의 다른 곳, 곧 그의 주님께로 갔습니다. 그는 깨지기 쉬운 장막 집을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집과 바꾸었습니다.

이 존재 형태에 대해 우리가 아는 것은 그것이 영원하고 하늘에 속한 것이라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특징에서 우리는, 우리의 행복과 기쁨이 부활 전에 이미 크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중간 상태이지 최종 상태가 아닙니다. 몸은 흠어졌고 아직 죽음의 권세 아래 있습니다. 죽음이 마지막 말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완전한 영광에 이르실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최종 목표에 이르실 것입니다. 그분은 죽음을 이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증명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신자들의 부활 때에 영과 혼과 몸으로 이루어진 사람의 하나 됨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에는 우리의 영원한 몫인 부활의 몸도 포함됩니다.

뒤따르는 2절과 4절에서 이 집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깨지기 쉬운 장막과 달리 영원한 집을 신자에게 주십니다(지으십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지금 가지고 계신 영광의 몸입니다(빌 3:21; 요일 3:2). 이 집은 하늘에 속한 몸이므로(고전 15:48-49) 하늘에 속하며, 그곳에 그 목적지와 본향이 있습니다. 이 몸은 죽음이 더 이상 손대거나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원한 집이기 때문입니다.

2.4.4 덧입음

“참으로 우리는 이 장막에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바란다”(고후 5:2).

우리의 땅에 속한 몸은 죄의 결과로 고통을 받습니다. 우리는 죄를 통해 세상에 들어온 병과 곤경과 장애 때문에 날마다 탄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그 결과와 더 이상 아무 상관이 없는 새 몸을 받을 순간을 간절히 바랍니다. 이 처소는 우리를 위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일이 일어나면 우리는 “덧입게” 됩니다. (여기서 처소라는 첫 번째 그림이 옷이라는 두 번째 그림으로 넘어갑니다.) 그 순간에 옷을 바꾸어 입는 일이 일어납니다. 낡은 옷, 곧 죽을 것(4절)은 생명의 새 옷에 자리를 내주어야 하므로 영원히 벗겨집니다. 고린도전서 15:51-54에서는 이 순간을 “변화”라고 부릅니다.

살아 있는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늘의 본향, 곧 아버지 집으로 데려가시려고 다시 오실 때 변화될 것입니다(요 14:3). 이 구절은 그 순간에 살아 있는 신자들만 다룹니다. 잠자는 신자들은 “덧입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몸을 받을 때 “입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고전 15:53).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부활하고, 살아 있는 자들은 변화될 것입니다. 그때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과 같아지고 하늘에 속한 부활의 몸을 가지게 되어, 영원히 하늘에 있는 아버지 집에서 살 것입니다.⁷⁰

고린도후서 5:3에서 바울은 벗은 것에 대해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 물론 그것은 우리가 옷을 입고 있더라도 벗은 자로 발견되지 않는다면 그렇다.”

이 삽입문에서 바울은 옷을 입고 있는데도 벗은 상태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겉으로 보기에 모순입니다. 옷을 입은 사람이 동시에 벗었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벗은 자로 발견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 표현에는

70. 요한복음 14:1-3; 17:24; 고린도전서 15:51-55; 빌립보서 3:20-21; 데살로니가전서 4:13-18; 유다서 21.

법적인 뜻이 있습니다. 법정 앞에 나타나서, 유죄든 무죄든 자기 상태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벗은 자로 발견된다”는 판결은 마음의 영적 상태를 가리킵니다.

이에 알맞은 예를 아담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가 죄를 지은 뒤에 하나님께서는 숨어 있던 그를 불러내셨습니다. 그는 자기가 벗은 것을 알았기 때문에 숨었습니다(창 3:7, 10, 11). 그는 자기의 벗은 몸을 가리려고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옷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잎사귀는 그의 벗은 몸을 가릴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는 옷을 입었는데도 벗은 상태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친히 짐승의 가죽으로 사람에게 옷을 지어 주셨습니다(창 3:21). 이 짐승들은 죽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흘리신 피를 상징적으로 말해 줍니다. 그것을 통해 죄인은 “구원의 옷”을 입고 구원을 받습니다.⁷¹

신자는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고 그 안에 싸여 있습니다. 반면에 불신자들은 영적으로 벗은 상태이며, 언젠가 이 상태로 아담처럼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계 20:11-15). 그곳에서 그들은 “의의 겹옷”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죄 가운데 벗겨지고 드러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잃어버린 자가 되어 영원한 고통에 들어갑니다.

이 짧은 삽입문은 겉으로만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의 겉모습만 받아들인 모든 사람에게 주는 엄중한 경고입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유일하게 효력이 있는 구원의 옷을 입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드러날 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는 날이 옵니다. 그때에는 더 이상 겉모습도, 덮어 감추는 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눈앞에 벌거벗은 채 드러납니다(히 4:13).

본문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 장막에 있는 우리는 짐을 진 것처럼 탄식한다. 벗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덧입고자 하는 것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켜지게 하려는

71. 이사야 61:10; 누가복음 15:22; 갈라디아서 3:27; 요한계시록 3:17-18.

것이다”(고후 5:4).

“벗음”은 땅에 있는 장막 집이 죽음으로 무너지는 것(1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죽음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낙원으로 데려가는 우리의 종이 되었지만(고전 3:22-23), 바울은 벗기를(죽기를) 원하지 않고, 죽을 몸을 영원하고 하늘에 속한 몸과 바꾸기 위해 덧입기를(변화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임종의 자리에서도, 죽는 그 시간까지도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렸습니다. 신자들은 죽음을 기다리지 않습니다.⁷² 그들의 소망은 하늘로부터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살전 1:10), 그때 변화되는 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죽기 전에 그리스도의 오심을 경험하기를 더 원합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 우리를 준비시키신 분은 하나님이며, 그분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다”(고후 5:5).

미래를 바라보는 것과 그와 연결된 기대는 우리에게 불확실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합함 가운데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의심으로 흔들릴 수 있는 우리에게 보장과 보증을 주십니다. 그분은 그분의 약속을 이루시겠다고 스스로 의무를 지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증(또는 계약금)으로 주셨습니다(고후 1:22; 살전 4:8).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으시거나 살리지 않으신다면, 그분은 보증, 곧 성령을 잃으실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 말씀이 말하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며(요 14:16), 죽은 뒤에도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롬 8:2, 11). 이 진리는 분명히 죽음 이후의 삶을 뒷받침합니다.

신자들의 몸은 하나님의 영의 성전이며(고전 6:19; 요일 4:13), 영원히 그러할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그분이 거하셨던 성도들의 몸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롬 8:11). 그분은 죽을 몸의 부활과 변화라는 하나님의 일에 친히 참여하실 것입니다.

72. 한편 이어지는 구절들은,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소망과 더불어 죽은 뒤에 주님 곁에 있으리라는 확신도 있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소망과 더불어 똑같이 큰 위로입니다.

2.4.5 나그네 길과 본향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담대하며, 몸 안에 거하는 동안에는 주님에게서 떠나 있다는 것을 안다”(고후 5:6).

보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 보증은 우리 안의 죽을 모든 것이 곧 생명에 삼켜질 것이라는 보장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세 번째 그림이 소개됩니다. 타향에 머무는 것과 고향에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몸 안에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본래 속한 곳, 곧 주님 곁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므로 타향에 머무는 것은 제한된 기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거한다”(집에 있다)는 말은 몸 안에 산다는 것, 곧 몸 안에 우리의 집이 있다는 뜻입니다. 반면에 주님에게서 “떠나 있다”는 것은 우리가 타향에, 곧 우리가 거류민과 나그네로 사는 세상에 있다는 뜻입니다(벧전 2:11).

이 진술은 죽음 이후의 상태를 이해하는 데 많은 것을 알려 줍니다. 이 대조는 이 두 가지 상태 또는 머무는 곳만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는 이 두 상태 사이에 어떤 중간 단계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단계가 의식적으로 경험되지 않으므로 주관적으로(곧 자기 경험 속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구절들에서는, 의식이 없는 중간 상태가 그것이 어떤 모습이든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런 상태를 간절히 바랄 수 있겠습니까?

신자는 몸 안에 있거나 주님 곁에 있을 수 있을 뿐, **다른 가능성은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고후 5:7)

보이지 않는, 그래서 영원한 것들이 문제이므로, 이 진리(6절)는 믿음으로만 알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히 11:1). 하늘의 본향은 믿음으로만 붙잡을 수 있습니다(히 11:13-15). 그래서 이 구절은, 본향으로 가는 길 위에 있는 나그네인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매우 중요한 원칙을 보여 줍니다. 우리의 소망은 믿음의 일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매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롬 8:24).

신자에게는 근사 체험에 대한 보고나 환자들이 죽어 가면서 겪은 일에 대한 보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신자들은 오직 믿을 만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합니다. 그들은 이런 보고들 때문에 혼란스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차라리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 거하기를 원한다”(고후 5:8).

이 구절에서는 6절의 진술이 뒤집힙니다. 바울은 차라리 몸을 떠나 있기를 훨씬 더 원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곧바로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 곧 주님 곁의 집에 있게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은 죽음 이후의 상태를 이해하는 데 열쇠가 되는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어서 더 이상 몸 안에 있지 않으면, 그는 주님 곁의 집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몸과 영-혼은 분리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몸 밖에 있으면서 동시에 주님 곁의 집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몸을 떠나 있는 것”은 동시에 나그네 됨이기도 합니다. 영-혼, 곧 속사람이 몸에서 분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원래 의도되지 않은 불완전한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영-혼과 몸으로 이루어진 인격으로, 하나 된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이 하나 됨이 죽음으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해도, 부활 때에 회복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몸을 떠나 있다”는 말은 부활한 신자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부활의 몸을 가지고 있으므로 몸을 떠나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묘사된 상태는 잠자는 신자들에게만 해당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 타향과 본향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것, 곧 가장 빠른 길로 그리스도께 가는 것이 문제라면,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 위해 차라리 죽기를 원했습니다(빌 1:23). 바울이 어떤 방식으로 영원한 집을 입을지 선택할 수 있었다면, 그는 물론 벗기를(죽기를) 원하지 않고 덧입기를(변화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4절).

“그러므로 우리는 몸 안에 거하든지 떠나든지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를 힘쓴다.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각 사람이 선이든 악이든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 받게 하려는 것이다”(5:9-10).

본향을 아무리 그리워하고 곧 그곳에 가기를 아무리 기대한다 해도, 중요한 사실 하나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영원 속에서는 우리가 몸 안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행한 것만이 중요할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드러납니다. 그분께 가치가 없었던 다른 모든 것은 그곳에서 남지 못하고 상을 받지 못합니다(고전 3:12-15). 그 순간에 우리 자신도 우리의 삶 전체를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게 되고, 우리의 행위에 대한 그분의 판단과 완전히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구속의 문제를 더 이상 다룰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이미 오래전에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는 오직 우리의 행위에 대한 평가만 문제가 됩니다.

바울은, 우리가 몸 안에 거하든지(6절) 주님에게서 떠나 있든지(8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온 힘을 다해 애써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둘은 모두 이 땅에서의 우리 삶에만 해당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을 행하도록 애써야 합니다. 지금 이 땅에서처럼 몸 안에서 하는 이 한 번뿐이고 유일한 방식으로는 그것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고 나중에 만회할 수도 없는 때가 옵니다.

2.4.6 다른 해석들

이 본문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이 있으며, 그 가운데에는 이 책에서 반박한 견해를 뒷받침하려는 해석도 있다는 것을 독자에게 숨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 부활의 몸만을 가리키는가?

널리 퍼진 한 해석은, 이 집이 죽음 이후와 부활 이전의 상태가 아니라 오직 부활의 몸만을 가리킨다고 말합니다. 이때 땅에 있는 장막 집은 오직 몸으로만 이해됩니다. 이 몸이 죽음으로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친히 지으신, 다시는 무너지지 않을 새 몸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또한 이 몸은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하늘에서 살 것이므로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저는 이 견해에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에서, 저는 우리가 죽는 바로 그 순간을 위해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것도 봅니다. 장막 집이 무너진 직후에 새 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부활의 몸이 아닙니다. 그때에는 부활이 아직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죽은 뒤부터 부활 때까지의 상태이며,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의 일부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이 중간 상태를 포함하는 것도 자연스럽습니다. 바울이 8절에서 같은 문맥 안에서 이 중간 상태를 직접 언급하기 때문입니다. 몸 밖에서 신자는 주님 곁에만 있을 수 있으며, 다른 장소나 상태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것은 두 가지 몸이 아니라 두 가지 삶, 두 가지 존재, 곧 땅에 속한 존재와 하늘에 속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 중간 상태를 위한 영적인 몸인가?

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은 중간 상태를 위해 마련된 몸입니까? 적어도 두 가지 이유가 이것을 반대합니다. 첫째, 이 집은 영원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중간 상태는 영원하지 않으며, 부활과 함께 분명히 끝납니다. 둘째, 이 상태를 다루는 성경의 어느 곳에서도 이 기간을 위한 특별한 몸을 묘사하지 않습니다. 중간 상태에는 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기간에 영-혼은 이 땅에서 몸을 가진 사람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계 6:9-11). 중간 상태 동안의 모습에 대해 성경은 그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 하늘, 곧 아버지 집인가?

어떤 해석자들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을 아버지 집(요 14:2), 곧 우리의 하늘 본향(빌 3:20)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과 “하늘”은 분명히 구별됩니다. 여기서 하늘은 우리가 머물게 될 곳이며, 그런 점에서 하늘을 아버지 집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집”이라는 말은 - 바로 이 개념이 아버지 집과 연결해 줍니다 - 죽음과 부활 사이에서든 부활의 몸에서든 신자 각 사람의 개인적인 하늘의 존재 형태를 묘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집을 가지고 우리는 하늘에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집을 가지고 우리는 아버지 집에 있습니다.

“벗은 자로 발견된다” - 몸 없는 영혼들인가?

벗은 상태는, 육체적 죽음의 상태를 부활의 날까지 영혼이 의식 없이 머물러 있는 것으로 묘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1절에 따르면 신자들은 죽은 뒤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을 가지며, 8절에 따르면 주님 곁의 집에 있습니다. 이 삽입문을 설명하는 여러 가능성이 있지만, 몸 없는 중간 상태라는 선택지는 배제됩니다. 빌립보서 1:23이나 고린도후서 5:8의 뜻에서 중간 상태를 차갑고 끔찍한 벗은 상태로 느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벗었는가, 입었는가?

이 질문은 번역의 문제와 관련됩니다. 많은 번역자가 “입었다”(독일어 *bekleidet*)를 택합니다. 정말로 “벗었다”(독일어 *entkleidet*)라고 해도, 앞에서 설명한 해석은 원칙적으로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자는 죽을 때 벗게 되어 몸 없이 있지만, 그런데도 벗은 자로 발견되지 않을 것입니다. “벗은 자로 발견된다”는 것은 몸이나 장막 집이나 옷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그것은 재판관이 심사한 결과이며, 오직 사람의 영적 상태를 겨냥합니다.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가 몸 안에 있든 몸 밖에 있든 상관없이 없습니다. 그가 그리스도 없이 있다면, 몸 안에 있든 죽음 가운데 있든 그는 영원히 벗은 상태입니다.

더 깊이 생각해 볼 질문

- “겉사람”과 “속사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5장에서 어떤 세 가지 그림을 씁니까?
- 이 단락에서 어떤 엄중한 경고를 얻을 수 있습니까?
- 본향을 향한 우리의 그리움은 무엇 때문에 나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까?

2.5 죽는 것도 유익하다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이 말은 죽음이 사람에게 뜻하는 모든 것을 뒤집어 놓습니다. 사람은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많은 부고에서 특히 병으로 죽은 경우 죽음을 해방으로 묘사하기도 하지만, 죽음은 차가운 원수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분이 없다면, 죽음은 결코 유익이 아닙니다. 그분의 승리는 죽음까지도 유익으로 바꿉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뒤집어 복으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습니다(롬 5:20)! 삼손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아름다운 예표를 발견합니다. 그가 사자를 죽였을 때, 그 주검에 벌 때가

깃들어 꿀을 만들었습니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삿 14:14). 죽음은 찢고 삼키는 맹수와 같지만, 죽임을 당한 맹수에게서 사람에게 생기를 주고 새 힘을 주는 꿀이 나옵니다. 바울은 죽음을 이기신 분을 알았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육신으로 사는 것이 내 몫이라면 그것도 내게는 수고할 만한 일이니, 무엇을 택해야 할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니 그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러나 내가 육신으로 머무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필요하리라”(빌 1:21-24).

이 구절들은 죽음 이후의 상태에 대한 성경의 가장 분명한 진술에 속합니다.

바울이 이 말을 썼을 때 그는 감옥에 있었습니다(빌 1:13). 그가 이 감옥을 살아서 다시 나갈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그에게 사형을 선고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는 죽음 앞에서 그가 느낀 것, 그가 기대한 것, 그의 마음을 움직인 것에 대해 몇 가지 생각을 썼습니다.

그 순간까지 그리스도는 그의 삶의 유일한 목표이자 내용이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그분을 만난 순간부터(행 9장), 그에게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일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 만남 이후로 바울은 자기 생명을 그 자체로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주 예수님께 받은 사명을 마치기를 원했습니다(행 20:24). 그는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시는 데에 도움이 된다면, 순교자로 죽을 준비까지 되어 있었습니다(20절).

이때 바울은 순교자의 죽음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것일 뿐 아니라, 그에게 개인적인 유익이기도 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죽는 것이 개인적으로 그에게 무엇을 가져다줄지 보여 줍니다. 육신으로 사는 그의 삶은 이미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은 거기에 더하여 또 하나의 유익을 뜻했습니다. 이 유익은 그의 삶의 좌우명인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보다 더 큰 것이었습니다. 그에게 죽음은 그리스도로 가득 찬 삶의 끝일 뿐 아니라, 훨씬 더 좋은 것으로 넘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채우실 때에만 죽음은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그리스도 없는 사람에게 죽음은 쓰라리고 피할 수 없는 끝이며, 자기가 스스로 결정해 온 자기 삶의 종말입니다. 한마디로 손실입니다. 그 삶은 그리스도 없이는 남지 못하므로 잃어버린 것입니다. 신자의 삶 속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영광이라는 유익을 보장하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없는 사람은 영원히 잃어버린 자입니다. 결코 끝나지 않는 손실입니다.

바울은 자기 감옥 생활의 결말을 스스로 정할 수 있다면 무엇을 택할지 곰곰이 생각합니다. 죽음(이것이 유익입니다)이나, 자유(육신으로 사는 삶)나 하는 것입니다. 그는 여기 남는 것을 결코 슬퍼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계속 주님을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사람들과 복음을 향한 그들의 열심을 생각할 때, 그는 기쁨과 감사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그들의 믿음을 북돋우기 위해 무엇이든 하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두 가지 가능성 모두에 끌렸습니다. 한편으로는 큰 개인적 유익을, 다른 한편으로는 주님을 위한 섬김과 신자들의 유익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렇게 쉽게 결정할 수 없다고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유익이라는 말로 정확히 무엇을 뜻했습니까? 그에게 유익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었습니다. 죽음이 그에게 가져다줄 것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훨씬 더 좋은 일이었고, 그가 그때까지 경험한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죽을 때 곧바로 그의 구속자 바로 곁에 이를 것이었습니다. 이 유익의 크기 전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라는 몇 마디 말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는 그의 구속자를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보기를 몹시 갈망했습니다. 그를 끌어당긴 것은 수고로운 섬김 뒤의 안식이 아니라(물론 그것도 있었지만⁷³), 이 땅에서 이미 그의 삶을 채우고 있던 한 인격이었습니다. 이곳에서 그는 이 인격을 이미 알게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삶의 형편, 그리고 특히 옛 본성, 곧 죄 있는 육신이 그리스도와의 이사함과 친밀함을 방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는 그것도 더 이상 없을 것이며, 아무것도 그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을 방해할 수 없을

73. 요한계시록 14:13

것이었습니다. 그가 여기서 이미 누린 그리스도와 의 깊은 사귀를 그곳에서는 완전하게 누릴 것이었습니다.

그분을 아는 지식(빌 3:8)이 그로 하여금 죽기를 갈망하게 했습니다. 죽음이 종으로서(고전 3:22 참조) 그를 그리스도께로 데려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만이 신자들 안에 같은 갈망을 일깨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다시 교회를 향한 염려에 사로잡히고, 그들의 유익을 위해 자기가 남게 될 것이라는 개인적인 확신에 이릅니다(25절).

2.5.1 다른 설명들

안타깝게도 이 구절들에 대해서는 잘못된 견해들도 있습니다. 신자가 죽은 뒤에 곧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는 것이 부인됩니다.

2.5.1.1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하는가?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말하는 것이 사람의 죽음과 죽어 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와 연결된 부활 때에야 비로소 그리스도께로 이끌려 가서 그분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절반의 진리일 뿐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오실 때 부활 가운데 완전한 상태에 이를 것이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주님의 재림도 아니고, 완전한 최종 상태에 이르는 것도 아닙니다. 바울은 죽는 것에 대해 말합니다!

여기서 정말 주님의 오심을 말하는 것이라면, 주님께서 바울 한 사람을 위해 오실 것인지 매우 의심스러울 것입니다. 그 결과 빌립보 사람들은 뒤에 남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가고, 그들은 여기 남을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의 오심을 말하는 것이라면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 어떤 신자도 뒤에 남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굳이 강조할 필요도 없습니다.

2.5.1.2 떠남

여기서 말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재림과 부활이 아니라는 또 하나의 이유는 “떠나다”라는 말입니다. “떠나다”에 해당하는 명사는 바울의 글에서 디모데후서

4:6에 한 번만 더 나옵니다. 거기서 그는 그 말을 의심할 여지 없이 자기의 순교를 가리키는 데 씁니다.

당시의 일상 언어에서 “떠나다”⁷⁴라는 말은, 항구에 정박해 있다가 바다로 나가려는 배가 밧줄을 풀고 닻을 올리는 것을 묘사하는 데 쓰였습니다. 그 밖에도 떠날 때 천막 진영을 걷는 것(고후 5:1, 4; 벧후 1:14 참조)을 묘사하는 데에도 쓰였습니다. 이 개념에는 함께 속한 것들이 분리된다는 뜻도 들어 있었습니다. 죽음과 관련해서는 영-혼이 몸에서 분리되는 것입니다. “떠나다”라는 말의 이 마지막 용법도 여기서 말하는 것이 죽음이라는 생각을 뒷받침합니다.

2.5.1.3 영혼 수면?

어떤 사람들은 죽음이 영혼 수면의 시작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바울이 죽은 뒤에 정말 영혼 수면에 빠져, 아무 의식도 없이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땅에 있게 된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렇다면 그가 세상을 떠나기를 원했다는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바울이 자기 처지에서 벗어나고 자기 사명에서 도망치려 했습니까? 그는 아무것도 없는 일시적인 상태로 떠나기보다 빌립보 사람들과 모든 신자의 유익을 위해 남기를 원했습니다. 이 견해에 따라 그에게는 죽음 이후의 시간이 (주관적으로)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그래서 죽음부터 부활까지 그에게는 아무 시간도 흐르지 않는다고 해도, 적어도 빌립보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바울의 도움과 섬김을 필요로 하는 시간이 흘렀을 것입니다. 바울이 영혼 수면을 가르쳤다면, 그는 아마 쓸모없는 영혼 수면 속에서 단 한 시간도 잃지 않으려고 남기를 원한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는 신자들에게 세월을 아끼고 잠으로 허비하지 말라고 권면했습니다(엡 5:16; 골 4:5 참조)!

2.5.1.4 바울에게만 주어진 권리인가?

어떤 사람들은 모든 신자가 사도 바울과 똑같은 것을 자기에게 적용할 수는 없다고 반박합니다. 물론 바울에게만 해당되고 사도인 그에게만 주어진 것들도

74. 여기서 “떠나다”는 문자적으로 “풀어 놓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죽을 때 장막 집과 몸이라는 옷이 말하자면 풀어집니다(고린도후서 5:1, 4).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의 상태는 모든 신자에게 똑같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사역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을 위해 죽음에 대한 승리를 쟁취하셨습니다. 이 복들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특정한 지위나 직분, 또는 특별한 체험에 달려 있지 않고, 모든 신자에게 똑같이, 그리고 온전한 분량으로 주어졌습니다.

2.5.2 그분을 만나다!

바울에게서 배우고자 하는 관점으로 이 장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든 신자가 죽을 때 그리스도께 간다는 것이 확실하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께 부름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신자가 이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래야 자기가 이 삶과 그 모든 것에 매달려 있는지, 아니면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언제든지 모든 것을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죽음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우리 삶의 많은 것을 드러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 가족을 돌보실 것이라고 그분을 신뢰하겠습니까? 우리는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해도, 언제든지, 어느 나이에든지 죽음을 통해 그분의 하늘 나라로 부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결코 배제하지 맙시다!

우리는 지금 이미 우리의 구주를 알아서, 저편에서 낯선 분이 아니라 아는 분을 만나게 됩니까? 우리가 그분을 이미 몸으로 보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을 보지 못했어도 사랑합니다(벧전 1:8). 우리가 지금 이미 그분과 누릴 수 있는 사귄은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를 만들고, 우리는 그 관계를 그곳에서 이어 갑니다. 우리가 여기서 얻은 지식과 우리가 여기서 믿음의 눈으로 본 것을 우리는 그곳으로 가지고 갑니다.

우리는 그분께 압도될 것입니다. 그때에는 그분을 더 이상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고, 그분의 온전한 아름다움 가운데 몸으로 직접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⁷⁵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는 것은 그분을 그분의 계신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⁷⁶

더 깊이 생각해 볼 질문

75. 시편 45:2; 열왕기상 10:7; 이사야 33:17의 비유적인 뜻에서.

76. 요한일서 3:2.

- 바울에게 왜 죽는 것이 유익이었는지 설명해 보십시오!
-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이 말에 동의할 수 있습니까?
- 그 전제 조건은 무엇입니까?
- 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우리의 지식은 영원 속에서의 우리의 지식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 영혼 수면을 말하는 것이 왜 잘못입니까?

2.6 잠자는 자들

“잠자는 자들”이라는 표현은 죽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다른 이름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신약은 이 표현을 그리스도와 연결된 사람들에게만 씁니다.⁷⁷

“잠든다”는 것 자체는 죽음을 부드럽게 돌려 말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바로 신자들에게 들어맞습니다. 그들에게 죽음은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신 승리로 말미암아 패배한 원수이기 때문입니다(히 2:14). 이 표현이 그토록 아름다운 또 하나의 이유는, 잠이 언제나 일정한 시간 동안만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깨어나는 순간, 곧 (다시) 일어나는 순간이 올 것이며, 더 이상 저녁이 없는 영원한 날이 밝아 올 것입니다.

죽음을 잠이라고 부르는 것⁷⁸은, 잠자는 사람과 죽은 사람이 겉으로 보기에 비슷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잠은 죽음의 현실을 약화시키려는 죽음의 그림일 뿐 아니라, 죽은 자들의 실제 상태를 묘사합니다. 그래서 이 잠은 이미 죽음이 사람의 끝이 아니라 일시적인 상태일 뿐이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우리가 아는 잠은 언제나 정해진 시간 동안만 계속됩니다. 잠든 사람들도 마찬가지로입니다. 그들이 잠에서 깨어날, 곧 부활할 때가 옵니다.

“잠들다”로 쓰인 말은 “눕다”, “쉬려고 눕다”, “잠에 빠져들다”라는 기본 의미에서 나왔습니다. 그 반대는 부활인데, 부활은 잠에서 “일어나는 것”을

77. 신약에서 “잠자는 자들”이라는 말은 다음 구절들에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5:20; 데살로니가전서 4:13, 14, 15. “잠들다”라는 말은 다음 구절들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27:52; 고린도전서 7:39; 11:30; 15:6, 18, 51; 베드로후서 3:4. 구약에서는 이 개념이 신자들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51:39, 57; 다니엘 12:2.

78. 예레미야 51:39; 다니엘 12:2; 마태복음 9:24; 마가복음 5:39; 누가복음 8:52; 요한복음 11:11-14.

가리킵니다(고전 15:20, 51, 52). 그러므로 이 잠은 부활을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부활은 중간 상태를 끝내고 최종 상태를 엽니다.

그러나 “잠든다”는 것은 사실 죽음이 시작되면서 죽음의 잠이 시작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말에 그런 뜻이 들어 있을 수도 있지만 말입니다. 오히려 이 표현은 죽어 가는 과정과 떠나는 과정을 묘사합니다. 신약에서 이 말이 쓰일 때, 그것은 죽은 자들이 지금 잠자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그들이 죽어서 다른 상태로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잠자는 자들은 죽어서 그때부터 다른 삶의 상태에 있는 신자들입니다.

2.6.1 잠자는 자들은 영혼 수면 상태에 있는가?

죽음 속의 상태와 관련된 질문은, 잠과 부활이 무엇을 가리키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잠은 몸만 포함합니까, 아니면 속사람, 곧 그의 영·혼도 가리킵니까? 영혼 수면이라고 부르는 것은 신자든 불신자든 사람 전체가 의식이 없거나 의식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잠이 죽음의 밤에 인격이 완전히 꺼지는 것과 같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다음 구절들이 보여 주듯이, 그것으로는 세상을 떠난 신자들의 잠과 죽은 자들의 상태가 결코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 전에 먼저 말해 둘 것은, 잠자고 있어서 몸이 쉬고 있는 사람도 동시에 예를 들어 꿈속에서 무언가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몸은 활동하지 않아도 잠재의식은 활동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만, 잠이라는 그림이 잠자는 사람에게 의식이 없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을 암시하려는 것입니다. 잠자는 사람은 꿈속에서 인격으로서 자기 자신과 주변을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잠이 깨어 있는 것과는 다른 삶의 상태일 뿐인 것처럼, 죽음도 같은 사람이 이 땅에서 존재하는 것과는 다른 삶의 상태입니다. 몸의 잠이 잠자는 사람에게 생명이 없다는 뜻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죽음은 죽는 사람의 존재가 지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2.6.2 잠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이와 관련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일어난 한 사건이 흥미롭습니다. “...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잠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마 27:51b-53).

이 구절에서는 우리가 살펴본 세 가지 개념, 곧 **부활**, **잠자는 자들**, **몸**이 동시에 언급됩니다. 이 세 개념은 함께 속하며, 잠자고 다시 살아나는 것이 몸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 줍니다. 잠자던 성도들의 몸이 일어났다고 말하며, 그 결과는 물론 사람 전체, 곧 영-혼도 포함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오직 **몸**의 부활뿐입니다(고전 15:35-44). 다른 곳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한다고 말하고 물론 그것이 인격 전체를 뜻한다면, 그것은 부활 때에 부활의 몸이 영-혼과 결합됨으로써 사람 전체가 다시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⁷⁹

이 성도들이 잠든 것은 죽음이었고, 그 죽음은 죽을 몸에만 닥칠 뿐 그들의 영-혼에는 닥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살아난 것도 그들의 몸뿐이었습니다. 여기서도 잠드는 것과 다시 살아나는 것이 몸만을 가리킨다는 것 외에 다른 결론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에는, 죽음 속의 잠의 상태가 성도들의 몸과 관련된다는 분명한 암시가 있습니다. 신약 어디에서도 죽음의 잠을 영혼이나 영에 대해 쓰지 않습니다. 그것은 영-혼의 본질과도 모순될 것입니다. 영-혼은 몸에 매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잠은 그저 몸의 상태일 뿐입니다.

2.6.3 스테반의 죽음이라는 예

스테반의 죽음이라는 예(행 7장)도 이것을 분명히 보여 줍니다. 그는 얼마 전의 그의 주님처럼 자기 동족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생애의 마지막 몇 분 동안 그는 열린 하늘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큰 곤경 가운데 있는 그를 위해 신실한 대제사장으로서는 나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죽이는 자들의 돌이 그에게 쏟아질 때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 예수여, 내 영을 받으시옵소서!”(행

79. 신약은 몸의 부활과,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영적인 부활을 분명히 구별합니다. 예를 들어 에베소서 2:5.

7:59; 눅 23:46 참조). 이 죽음은 평화롭게 잠드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데도, 그가 잠들었다고 말합니다. 그의 영은 주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그분께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이런 묘사를 보고 누가 스테반이 의식 없는 영혼 수면에 빠졌다고 주장하겠습니까? 그가 결국 의식 없는 영혼 수면에 빠졌다면, 왜 죽기 직전에 그에게 하늘을, 죽음을 이기신 분을 보는 눈이 열렸겠습니까? 그렇다면 주 예수님께서 그의 영을 받아 주시기를 구한 그 기도는 무슨 의미가 있었습니까?

스테반은(곧 그의 영-혼은) 죽은 뒤에 그의 주님처럼 낙원으로 갔습니다. 주 예수님의 성도들과 사랑받는 자들은 그분 안에서, 곧 “그리스도 안에서” 잠듭니다(고전 15:18). 그러므로 그들은 스테반처럼 그분께서 친히 맞아들이시고 받아 주셔서, 처음에는 잠자는 자로서, 그리고 언젠가는 부활한 자로서 영원히 그분과 함께 있게 됩니다.

2.6.4 휴거 때의 잠자는 자들

하늘로 휴거되는 것은 신자들의 소망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그분의 백성을 하늘로 이끌어 들이십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이 소망을 인내로 굳게 붙들었습니다(살전 1:3). 그러나 그들은 마땅히, 살아 있는 자들이 휴거될 때 잠든 믿음의 형제자매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물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을 격려하며, 소망 없는 다른 이들처럼 슬퍼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로 말미암아 자는 자들도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살전 4:14).

그들이 돌이켜 섬기게 된 살아 계신 하나님 자신이 잠자는 자들을 맡아 돌보셨습니다. 그분은 그분의 아들이 휴거를 위해 하늘로부터 오실 때 그들을 아들에게 맡기실 것입니다. 그들은 그분 안에서, 곧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안에서 잠들었고, 그래서 이번에는 그분과 함께 올 것입니다. 그때 16절이 말하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을 하늘에서 함께 데리고 오시고, 그다음에 잠자는 자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할 것입니다.⁸⁰ 여기서 우리는 잠자는 자들의 영-혼이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 곁에 있다가 그분과 함께 와서 부활 때에 몸과 결합되는 것을 봅니다.⁸¹ 이렇게 이 말씀도 부활이 영-혼과 몸의 결합이라는 것을 확증합니다.

2.6.5 휴거 이전의 잠자는 자들

이제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잠든 형제자매들도 살아 있는 자기들처럼 휴거라는 위대한 사건에 함께할 것이라는 데에 안심하게 되자, 바울은 이제 잠자는 자들이 휴거 때까지 어디에 있는지도 그들에게 알려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살전 5:9-10).

그리스도인의 모든 풍성함을 짧게 요약한 위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영원 전부터 구원을 받도록 택함을 받았고,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그것이 실제로 우리 몫이 될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를 이제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살도록 이끌었습니다.

이 구절에서 “깨어 있다”는 것은 이 땅에서 산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잔다”는 것은 신자로서⁸² 죽었다는 것, 곧 잠들었다는 뜻입니다.⁸³ 바울은 두 상태

80. 다른 해석은 이 구절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곧 잠자는 자들이 부활 때에 하늘로 휴거된 뒤에, 그리스도께서 권능과 영광 가운데 오실 때 그들을 하늘에서 “함께 데리고 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81. 사람이 생겨나는 것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잉태는 몸, 곧 걸사람을 생겨나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 영을 보내시거나 지으십니다(스가랴 12:1; 시편 33:15; 104:30).

82. 여기서 자는 자들은 5:4-7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결코 그리스도와 함께 살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밤의 아들들이며 어둠 속에 있으므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합니다. 그분은 그들에게 도둑같이 오실 것이며, 그래서 그분의 오심은 그들에게 심판을 뜻할 것입니다.

83. 아마 이것이 “잔다”는 말이 세상을 떠난 신자들의 상태를 가리키는 유일한 경우일 것입니다.

모두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몸이 잠자는 동안 영-혼은 그리스도 곁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잠자는 자들에 대해 더 이상 아무 질문도 남겨 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그와 함께” 살기도 합니다. 물론 앞의 것은 뒤의 것의 전제입니다. 여기서 그것은 의식적으로 함께 사는 것을 뜻합니다. 살아 있는 자들은 이 연합과 사귀를 오늘 이미 믿음으로 경험하며, 잠자는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곧 이 두 무리 모두가 부활한 자로서 그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이 구절은 장래의 영원한 측면, 곧 살아 있는 자들과 잠자는 자들이 똑같이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이라는 것, 곧 그분과 함께 살다가 얼마 뒤에 그분과 함께 공개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묘사합니다(살후 1:10; 골 3:4).

2.6.6 결론

그러므로 신자들이 잠들고 자는 것은 결코 영혼 수면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직 죽는 과정과, 다시 살아나는 때까지 사람의 죽을 몸이 있는 상태만을 묘사합니다.

더 깊이 생각해 볼 질문

- 왜 “잠든다”는 개념은 몸만을 가리킵니까?
-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세상을 떠난 이들에 대해 무엇을 염려했으며, 바울은 그들을 어떻게 격려했습니까?

2.7 그리스도 – 산 자와 죽은 자의 주

그리스도께서 산 자와 죽은 자를 다스리신다는 사실은 로마서 14장의 열쇠가 되는 말씀입니다. 거기서는, 주님의 명시적인 계명이 없어서 하나님의 자녀 각 사람이 개인적으로 자기 주님께 책임을 지는 일들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와 관습을 가진 신자들을 다룹니다. 신자가 하는 모든 일은 그가 속한 그의 주님을 향합니다. 바울은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라고 말하고, 이를 강조하며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7절)라고

덧붙입니다. 우리가 그 때를 정하지 않는 죽음에서도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 그 목표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 진리를 한 번 더 되풀이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8절).

우리는 우리의 삶을 그분을 위해 살고, 우리의 죽음에서 그분을 위해 죽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에 근거합니다. 우리는 날마다의 삶에서도, 죽음에서도 그분께 속해 있습니다. 죽음에서도 우리는 그분께 잃어버린 바 되지 않습니다. 죽음에서도 우리는 그분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는 그분의 아들을 중심으로 하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포괄하는 계획 안에 함께 묶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롬 14:9).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것을 그분의 아들에게 복종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엡 1:9-10, 21-22). 만물을 창조하신 분으로서 하나님이란 아들에게는 필연적으로 언제나 모든 것이 복종해 있었습니다(골 1:16; 히 1:2-3). 그런데도 사람으로서의 그분께도 모든 것이 복종하게 되어야 했습니다.⁸⁴ 주 예수님께서 구속 사역을 이루시고 모든 것을 위해 죽음을 겪으셨으며(히 2:9) 그 가운데 하나님을 완전히 영화롭게 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사람으로서 모든 것 위에 높임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지금 하나님의 보좌에,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⁸⁵ 그곳에서 그분은 모든 원수가 그분의 발아래 놓일 때를 기다리십니다. 그분은 아직 세상에서 그분의 통치를 공개적으로 시작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히 1:3; 10:12-13). 그분은 아직 버림받은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직 은혜의 때를 주시며, 그와 함께 이 기간에 하나님의 아들에게 복종하고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며 그분을 섬길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지금 이미 예수님의 통치를 인정합니다. 그들은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따릅니다(고후 5:15; 행 17:7). 그러나 다른 모든 사람에게도

84. 예를 들어 시편 8편; 히브리서 2:5-9; 고린도전서 15:25-28 참조.

85. 히브리서 8:1; 12:2; 요한계시록 3:21.

예수님의 통치를 인정해야 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억지로 그렇게 하게 될 것입니다. 자원하여 그렇게 할 때가 지나갔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에는 그럴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아닌지 더 이상 묻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아들이 모든 사람에게서 공경을 받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빌 2:9-11; 요 5:23).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실 권리와 권세는 사람에게 보이는 영역과 이 땅에서의 삶을 넘어섭니다. 죽은 자들도 그분의 통치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데스(죽은 자들의 세계)도 마찬가지로 그분께 복종합니다. 영화롭게 되신 그리스도께서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나타나십니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 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 있어 사망과 하데스의 열쇠를 가졌노니”(계 1:17-18).

여기서 주 예수님께서는 죽음과 하데스가 복종하는 분으로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열쇠를 가진 자가 권세를 가지기 때문입니다(사 22:22; 마 16:19). 그리스도께서 산 자와 죽은 자를 다스리신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며, 그들은 어떤 방식으로 그분께 복종하고, 그분은 언제부터 그들을 다스리십니까?

“다스리다”라는 표현은 누가복음 22:25와 같은 말입니다. 거기서는 이방인의 왕들이 그들을 “주관하며” 권세를 부린다고 말합니다. 통치에는 다스리는 자의 권세 아래 있으며 그 권위에 굴복해야 하는 백성이 전제됩니다. 로마서 14:9에서 이 백성은 산 자들과 죽은 자들입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언제 그분의 통치를 시작하셨습니까? 모든 것을 포괄하는 통치는 장래에야 비로소 시작될 것이라는 점은 이미 암시했습니다. 우리는 아직 만물이 그분께 복종하는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히 2:8). 산 자들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통치는 신자들에게 국한됩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에게 복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4장의 문맥에서, 신자 각 사람이 (보통의 경우) 자기 삶을 주님께 맡기며 오직 그분께만 책임을 진다는 것이 분명해집니다(7, 8, 12절). 신자들은 평생 동안, 그리고 죽음에서도 그들의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에 관한 한, 그리스도의 통치는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신자들이 있게 된 때부터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잠정적이고 숨겨진 형태 안에서, 지금은 아직 버림받은 왕께서 신자들 위에 그분의 “망명” 통치를 행하고 계십니다(17절; 골 1:13).

그런데 9절에서는 산 자들보다 죽은 자들이 먼저 언급되며, 그들에게도 같은 것이 해당됩니다. 그분은 그들이 그분의 권세 아래 있음으로써 그들도 다스리십니다. 죽은 사람은 누구나 죽은 직후에 그리스도께서 주님이시라는 사실과 마주합니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곧 하데스에 있는 죽은 자들도 무릎을 꿇고 그리스도께서 주님이시라고 고백해야 한다고 말합니다(빌 2:10-11). 불신자에게 이것은 심판을 뜻합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채 영원으로 들어갑니다(히 9:27). 그들은 돌이킬 수 없이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죽은 뒤에 세상을 떠난 사람은 더 이상 자기 마음대로 자기 삶을 살 수 없고, 그때에는 최종적으로 그리스도의 권위 앞에 굴복해야 합니다.

신자든 불신자든 죽은 자들에 대한 통치는, 물론 그들이 그것을 느낄 때에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세상을 떠난 이들과 잠자는 자들의 온전한 의식을 전제합니다. 그들에게 의식이 없거나 그들이 의식 없는 영혼 수면 상태에 있다면, 죽은 자들에 대한 그리스도의 통치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통치에 맞설 수 있는 것은 이 삶에서뿐입니다. 죽은 뒤에는 더 이상 저항이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누구나 살아 계시고 참되신 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잃어버린 자들에게 재판장이신 이 주님께서, 신자들에게는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위해 죽으신 분으로 그들을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바울처럼, 그들이 죽음을 통해 사랑하는 주님께 가서 낙원에서 그분과 함께 있게 될 순간을 담대하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빌 1:23).

그들의 소망은 죽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살전 1:10; 4:13-18). 그러나 죽음은 그들을 그보다 먼저 그들의 주님께 데려갑니다. 잠자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통치는 기쁨과 평화와 말할 수 없는 복을 뜻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살아 있는 신자들뿐 아니라 잠자는 자들도 부활 때까지 그분의 손안에 붙드셔서 그들을 잃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그분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입니다(요 6:39; 10:29). 죽음도 신자를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롬 8:38-39)!

세상을 떠난 불신자들에 대한 그리스도의 통치가 무엇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성경은 많이 말하지 않습니다.⁸⁶ 베드로는 세상을 떠난 불신자들이 머무는 곳을 “옥”이라고 부르면서 하나의 암시를 줍니다(벧전 3:19-20). 옥에는 사람들을 가둘 권세를 가진 사람들과 권위가 전제됩니다. 이 옥, 곧 하데스는 영화롭게 되신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 놓였습니다(계 1:18). 세상을 떠난 불신자들은 그분께 그곳에 붙잡혀, 크고 흰 보좌 앞의(계 20:11-15) 심판 날까지(벧후 2:9) 지켜집니다.

어떤 이들은 부활 때까지 그들의 주님 앞에서 보호받고(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처럼), 다른 이들은 크고 흰 보좌 앞에서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갇혀 있습니다(하데스에 있는 부자처럼).

주님의 통치는, 그분이 죽은 자들을 그들의 무덤에서 불러내실 부활 때에 그분의 권능을 한 번 행사하고 펼치시는 것에 국한되지 않습니다(요 5:28-29).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좌에 오르셨을 때 시작된,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복종을 뜻합니다.

요약하면, 죽은 자들에 대한 그리스도의 통치는 죽은 뒤에 영-혼의 인격이 의식을 가지고 계속 살아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더 깊이 생각해 볼 질문

- 그리스도의 통치를 어떻게 설명하고 구별할 수 있습니까?

86. 그리스도께서 통치를 맡으시기 전에 스올(죽은 자들의 세계)은 어떠한지 묻는 것은 정당합니다. 무엇이 달랐습니까? 그 전에는 하데스도 낙원이 없었습니까?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눅 16장)에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전에 이미 하데스와 낙원이 있었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뒤에야 비로소 신자들이 그분과 함께 있다고 말합니다. 낙원은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불리며, 영화롭게 되신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임재로 특징지어지지 않습니다(그리고 그럴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곳은 복의 장소이며 복된 상태입니다. 이 신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죽음 전과 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는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모든 시대의 세상을 떠난 신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로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분이 죽으셨을 때 낙원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때부터 “낙원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는 뜻입니다(빌립보서 1:23). 이 질문에 대해 우리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습니다. 성경이 그 이상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불신자들은 (흰 보좌 앞의 심판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그분과 함께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 죄 가운데 죽은 모든 죽은 자에게,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죽은 자들을 다스린다는 것이 -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 느낄 수 있게 분명히 알려질 것입니다.

- 한편으로는 신자들에게서, 다른 한편으로는 불신자들에게서
- 죽기 전과 죽은 뒤에
-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서 의식적으로 사는 삶은 어떤 모습입니까?

2.8 제단 아래의 영혼들

요한계시록은 창조 세계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길이 어떻게 완성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며, 죽음 이후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도 알려 줍니다. 이 점에서 이 책은 신약의 다른 부분들에서 이미 살펴본 내용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죽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이 제단 아래에 있었다. 그들이 큰 소리로 외쳐 말하였다.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재여, 땅에 사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그리고 그들 각 사람에게 흰 두루마기가 주어졌고, 그들처럼 죽임을 당할 그들의 동료 종들과 형제들의 수가 다 차기까지 아직 잠시 동안 쉬라는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졌다”(계 6:9-11).

이 본문을 살펴볼 때 우리는 다음 질문들로 범위를 좁히겠습니다.

- 제단 아래의 영혼들은 누구입니까?
- 그 영혼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 이 일은 어느 때에 일어납니까?

2.8.1 순교자들의 영혼

요한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죽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을 봅니다. 그는 왜 여기서 그냥 순교자들이라고 하지 않고 순교자들의 영혼이라고 말합니까? 그 차이는 무엇입니까?

영혼은 순교자에게서 죽은 뒤에도 계속 살아 있는 부분입니다.⁸⁷ 살인자들은 몸을 죽일 권세만 있을 뿐, 영혼은 죽이지 못합니다. 주 예수님께서서는 그분의 이름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바로 이 사실을 위로로 주십니다.

87. 3.2 단락 참조.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마 10:28).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죽임을 당했지만, 그들의 영혼은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주 예수님께서서는 여기서 영혼과 몸을 분명히 구별하십니다. 죽일 수 있는 몸과 달리 영혼은 죽지 않으며 죽임을 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영혼들”이라는 말에는, 땅에 있는 몸 안에서의 삶은 죽음으로 끝났지만 중단 없이 - 몸 밖에서 - 다른 세계에서 계속된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요한은 영혼들을 보지만, 살과 피로 된 땅의 몸들은 보지 않습니다. 그 몸들은 땅에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⁸⁸

6:9와 20:4에서 영혼들은 분명히 순교자들이라는 인격체를 가리킵니다. 이것은 그들이 말을 하고 또 누군가 그들에게 말을 건다는 데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여기서는 상징이 아닌 실제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대화에는 온전한 의식과 활발한 정신의 능력이 전제되는데, 이 영혼들에게는 분명히 그것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순교자들의 인격은 죽은 뒤에도 사람의 인격에 본질적인 모든 특징과 함께 온전히 유지되었습니다.

요한은 영혼들을 보았습니다. 영혼들에게 더 이상 몸이 없는데, 요한은 도대체 무엇을 보았습니까? 요한이 사람의 모습을 보았고 그들을 순교자들로 알아보았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흰) 두루마기를 받아 입고 걸칠 수 있는 것은 사람의 모습을 가진 존재뿐입니다.⁸⁹

그러므로 영혼들에게는 땅의 몸과도, 부활 때의 몸과도(부활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구별되는 “몸”이 있습니다. 이것은 중간 상태의 기간을 위해 특별히 지어진 어떤 영적인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의 고유함이 유지된다는 뜻이며, 여기에는 죽은 뒤와 부활 이전에도 그 사람을 다시 알아볼

88. 요한계시록에서 “영혼”이라는 말의 뜻은 여러 가지입니다. 헬라어 *psyche*가 일곱 번 쓰입니다. 6:9(순교자들이라는 인격체); 8:9; 12:11(생명, 곧 땅에서의 존재); 16:3(바다의 모든 생물); 18:13, 14(사람의 영혼, 영혼); 20:4(6:9와 같은 뜻). 성경 해석의 중요한 원칙 하나는 본문의 문맥이 어떤 개념의 뜻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첫 단계로는 물론, 다른 기자들의 용법을 살펴보기 전에 기자들 자신이 그 개념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89. 요한계시록은 상징으로 가득하지만, 모든 것을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죽임을 당했고 실제 장소에 있는 실제 인격체들입니다.

수 있다는 것이 포함됩니다. 영혼은 그 사람 자신이며, 이 중간 상태에서 영혼은 내세에서 보이는 몸으로 자신을 나타내는 방식으로 그 사람입니다. 내세에서 영혼의 “모습”은 땅에서의 몸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늘에서 서로를 다시 알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우리로서는 이것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여기서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온전한 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인격체로 인식되기까지 한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다시 알아볼 수 있다는 것은 변화산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일에서도 분명히 드러납니다(마 17:1-8). 거기서 이 두 사람은 사람의 모습으로 직접 나타납니다(그렇지 않았다면 베드로가 그들을 위해 초막을 짓겠다는 생각을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때 모세와 엘리야에게는 부활의 몸이 없었다는 점을 생각해야 합니다. 부활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모습은 죽은 뒤부터 부활 때까지의 상태에 해당합니다.⁹⁰

여기서 한 번 더 말해 두자면, 이 본문의 “영혼”이라는 말은 몸의 “생명”으로 옮기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요한이 제단 아래에서 무엇을 보았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문맥에서 영혼이라는 말이 쓰일 때는 그 사람을 알아볼 수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요한계시록 6:9와 20:4에서 바로 “영혼”이라는 말이 쓰이는 것은, 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을 알아볼 수 있는가 하는 것, 곧 몸과도 관련된 알아봄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죽은 뒤에도 사람의 인격과 그 모습, 곧 그 사람에게 고유하고 그 사람을 특징짓는 모습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여기서 영혼들은 죽은 사람들이며, 몸 밖에서 온전한 의식을 가지고(곧 영혼 수면 상태가 아니라)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이 영혼들이 머무는 곳이라는 것은 다음 단락에서 보여 드리겠습니다.

2.8.2 제단 아래

영혼들은 “제단 아래”에서 보입니다. 이 표현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자기 생명을 제물로 드렸다는 사실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제단 “아래”에 있다는 사실은 구약의 비슷한 내용을 떠올리게 합니다. 구약에서는

90. 저는 이 나타남이 예외이며, 그러므로 이로부터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을 이끌어 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다만 이 예외가 성경의 다른 모든 진술에 비추어 일관되게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뿐입니다.

몇몇 제물 짐승의 피를 솥으로 된 번제단 밑에 쏟았습니다(출 29:12; 레 4:7-34). 영혼은 피에 있습니다(레 17:10-14). 그러므로 사람의 죽음을 영혼을 쏟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시 141:8; 사 53:12). 신약에서 제물은 하나님을 위해 생명을 내어 드리는 것을 나타내는 잘 알려진 그림입니다(빌 2:17; 딤후 4:6; 롬 12:1).

요한계시록에는 제단이 여덟 번 나옵니다. 6:9; 8:3, 3, 5; 9:13; 11:1; 14:18; 16:7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구약에서처럼 두 제단(솥으로 된 번제단과 분향단)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물론 몇몇 곳에서는 솥으로 된 번제단을(6:9; 16:7), 다른 곳에서는 금으로 된 분향단을(8:3; 9:13)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단의 위치는 아주 정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 제단은 하늘에 있는 성전 안에 있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14:17-18).
- 제단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습니다.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8:2-3).
- 제단은 하나님 바로 가까이에 있습니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 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9:13).

이로써 순교자들의 영혼이 어디에 있는지가 분명해집니다. 그들은 하나님 바로 가까이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곳은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뒤 그분의 영을 아버지의 손에 맡기셨을 때 가신 낙원에 해당합니다(눅 23:43, 46). 주님께서는 하나님 바로 가까이, 그분의 아버지께로 가셨습니다. 바울도 같은 “하늘의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습니다(고후 12:2-4).

제단 아래의 영혼들은 무엇을 합니까? 그들에게는 잠시 동안 쉬라는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이것은 영혼 수면의 쉽도 아니고 의식 없는 존재도 아닙니다. 쉬를 유익한 복으로 누리는, 의식이 있는 상태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러하다, 성령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계 14:13).

이들에게는 수고와 노동의 때가 지나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쉴 수 있음을 누립니다. 영혼들이 제단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그곳이 경배의 장소라는 결론도 가능하게 합니다(계 8:3).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놀라움 가운데 경배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겠습니다. 영혼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 그분 바로 가까이에 있으며, 자기 일을 쉬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그분께 경배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잠자는 성도들이 머무는 곳에 관해 신약의 다른 말씀들과 놀랍게 일치하는 것을 봅니다. 성경이 하나라는 점을 생각하면 달리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잠자는 성도들을 모두 예외 없이 주 예수님께서 낙원이라고 부르시는 곳에서 발견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며 그곳이 그들의 본향입니다. 곧 주님과 함께 집에 있는 것입니다.

2.8.3 이 일은 어느 때에 일어나는가?

영혼들이 아직 죽음의 상태에 있는,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라는 점으로 한 번 더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들은 죽임을 당했고(9절), 그들의 피가 흘려졌으며(10절), 그들이 죽임을 당했다고(11절) 말합니다. 그들은 제단 아래에 있습니다. 그들은 - 아직 살아 있는 동료 종들처럼 - “형제들”이라고 불리지 않고(11절 하반절), “영혼들”이라고 불립니다. 그들이 아직 부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인이 떼어지는 시점(6:9)에는 이 순교자들의 부활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왜 부활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고 믿습니까? 그들은 자기들에게 행해진 불의를 갚아 달라고 외칩니다. 이 요구는 곧바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아직 땅에 있는 그들의 형제들도 순교로 자기 생명을 마칠 때까지 잠시 기다리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분의 종들의 피에 대한 보복(19:2)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 있게 나타나실 때 친히 행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야 비로소 부활이 일어날 것입니다(20:4). 따라서 부활은

그때까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형제들이 아직 땅에 있으며 박해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다섯째 인에서 언급되는 몇 안 되는 단서로부터, 형제들의 부활과 그리스도의 오심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6:9-11의 장면은 죽은 뒤 영혼의 상태를 묘사합니다.

2.8.4 갇아 달라는 호소

이제 영혼들이 갇아 달라고 호소하는 일로 한 번 더 돌아가 보겠습니다. 죽음 이후의 의식 있는 삶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이 말을 인격체가 직접 한 말로 이해하지 않고 순전히 상징으로 설명합니다(창 4:10; 약 5:4; 눅 19:40 참조). 게다가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에서도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신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려 하므로 결코 복수를 외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므로 그 피는 아벨의 피와 마찬가지로 상징적으로만 갇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혼들이 갇아 달라고 요구하고, 그래서 실제로 그리스도인의 마음가짐에 맞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주목할 만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리스도인일 때에만 그들은 그리스도인의 마음가짐을 저버리는 것이 됩니다. 이 질문의 답은 요한계시록을 역사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역사적으로 볼 때 요한계시록의 처음에 서 있는지, 그 한가운데에 서 있는지, 아니면 이미 그 끝에 서 있는지 하는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서 자세히 다룰 수는 없지만, 제가 이해하는 역사적 또는 예언적 틀을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9의 구분에 따르면, 일곱 교회에 보낸 편지는 그리스도의 교회의 역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예언적으로 개관합니다. 이에 따르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4장부터는 더 이상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습니다. 그곳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구약 시대의 신자들과 함께 영화롭게 된 신자들로써 스물네 장로로 표현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늘에 있게 된 뒤에, 이스라엘에서(계 7:3-8)와 여러 민족에서(계 7:9-12) 사람들이 믿음에 이를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단 아래의 영혼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며 하나님의 교회에 속하지도 않는다는 뜻입니다. 제단 아래의 영혼들은 교회가 휴거된 뒤에 전파될 천국 복음의 선포를 믿었습니다(마 24:14). 그들은 그들의 믿음 때문에 죽임을 당합니다. 값아 달라는 그들의 외침은 전형적으로 구약적이며 그리스도인의 것이 아닙니다(신 32:43; 왕하 9:7; 시 79:10). 그러므로 값아 달라는 호소를 반드시 상징적으로 이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환난 때 신자들의 이해와 처지에 맞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 깊이 생각해 볼 질문

- “제단 아래의 영혼들”에 관한 기록은 어떤 점에서 우리에게 위로가 될 수 있습니까?
- 여기서 말하는 것이 왜 세상을 떠난 성도들입니까?
- 그들은 어떤 몸을 가지고 있습니까?

2.9 영생

죽음 이후나 부활 때나 영원 속에서 사람의 상태를 다루다 보면, 거의 필연적으로 성경이 “영생”⁹¹이라고 부르는 것과 마주치게 됩니다. 특히 영생은 그리스도인의 메시지에서만 볼 수 있는 고유한 요소로서 죽음과 덧없음에 맞서 있습니다. 이 생명을 얻을 수 있다면 사람은 무엇을 지불하겠습니까?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 무엇인들 내놓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우리는 이 생명을 실제로, 그것도 값을 치르지 않고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생과 관련해서는 신자들에 대해서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만이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그분께 복종하기 때문입니다.⁹² 그들은 영생을 하나님의 은사로 소유합니다(롬 6:23).

영생은 신자의 죽음과 관련하여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신자가 죽을 때 영생을 내놓거나 잃어버렸다가 부활 때 새로 선물로 받는 것일 수 있습니까?

91. 신약에서 영생을 말하는 모든 구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19:16, 29; 25:46; 마가복음 10:17, 30; 누가복음 10:25; 18:30; 요한복음 3:15, 16, 36; 4:14, 36; 5:24, 39; 6:27, 40, 47, 54, 68; 10:28; 12:25, 50; 17:2, 3; 사도행전 13:46, 48; 로마서 2:7; 5:21; 6:22, 23; 갈라디아서 6:8; 디모데전서 1:16; 6:12; 디도서 1:2; 3:7; 요한일서 1:2; 2:25; 3:15; 5:11, 13, 20; 유다서 21.
92. 요한복음 3:16, 36; 6:40, 47, 54; 10:28; 11:25; 요한일서 5:13.

이 질문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는 먼저 영생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밝혀야 합니다.

2.9.1 영생이란 무엇인가?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아무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시작도 끝도 없으신 영원하신 분입니다(창 21:33; 사 40:28; 롬 16:26). 그러므로 영생은 영원하신 하나님 자신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참 하나님이지요 영생이시라”(요일 5:20). 그분은 자신에 대해 이렇게 증언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요 14:6; 11:25 참조). 영생은 아들 안에서 인격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분은 자기 안에 생명을 가지고 계시며(요 1:4), 그래서 그 생명을 나타내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셨습니다. “영생은 의식하고, 생각하고, 뜻하고, 느끼고, 알고, 사랑하는 하나님 자신의 생명이다.”⁹³

하나님의 또 다른 특징 하나가 이 생명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십니다(시 115:3; 마 6:9 등). 그러므로 영생은 하늘의 생명입니다. 그 생명은 하늘이 본향입니다. 이 생명은 이 창조 세계의 자연적인 생명의 영역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감각이 미치는 범위 밖에 있는 다른 세계에 속합니다(고후 4:18).

예수님께서는 이런 뜻으로 니고데모에게 영생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그것을 “하늘의 일”이라고 부르십니다(요 3:12). 영생은 아버지 집에서의 생명이며(요 14:3), 아버지와 아들의 사귄(요일 1:2-3)과 사랑(요 17:24)이 그 특징입니다.

영생은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들에게 선물로 주어진 하늘의 충만한 복(엡 1:3)과 영적인 부요함의 정수입니다. 여기에는 신자들이 아버지와 아들의 사귄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이 포함됩니다(요일 1:1-4; 요 14:23; 고전 1:9). 그들은 영생을 이미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장래에 그것을 받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요 3:36; 5:24).

93. W.J. Ouweneel, *Das ewige Leben*, Neustadt (Ernst-Paulus Verlag), 1980; 9쪽.

2.9.2 영생과 불멸

사람들은 흔히 이 개념들을 혼동하여, 영생과 불멸이 하나요 같은 것인 듯이 여깁니다. 이것은 큰 잘못입니다. 위에서 말한 것을 보면, 영생은 일차적으로 시간의 길이나 생명의 길이(양)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질”을 묘사한다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영생의 질은 그것이 하늘에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데 있습니다. 이 생명은 아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을 함께 가져옵니다. 그것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거하신 아버지 집에서 누리는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을 불멸이나 영원한 존재와 같은 것으로 여기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⁹⁴ 물론 영생에는 불멸도 포함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영원한” 생명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영생의 의미는 시간적인 측면을 훨씬 넘어섭니다.

“영생”과 “불멸”을 같은 뜻으로 쓰면, 영생을 가지지 않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한 존재를 가지지 않는다는 잘못된 결론을 쉽게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존재는 영생을 소유하느냐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겠습니다. 영생은 결코 끝나지 않는 생명일 뿐 아니라, 완전히 다른 생명입니다. 불신자는 이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요한은 “[영원한] 생명”을 보지 못할 사람들에게 대해 말할 때 이것을 분명히 합니다. 그들 위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습니다(요 3:36).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는 사람이 소멸되어 영원한 죽음에 이르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책임 있는 피조물을 향하며, 그러므로 언제까지나, 곧 영원히 존재하는 사람들 위에만 영원히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은 영생과 영원한 존재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 줍니다.

2.9.3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이 되지 않으셨다면, 사람은 영생, 곧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

94. 독자는 영생 대신 불멸을 넣어서 읽어 보는 시도를 직접 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개념들을 서로 바꿔 쓸 수 있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것을 곧 알게 될 것입니다.

자신이신 생명의 말씀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생명이 나타나셨고, 우리가 보았으며,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영원한 생명을 증언하고 너희에게 전한다”(요일 1:2).

그리스도는 생명의 말씀(logos)입니다. 곧 생명의 완전한 표현이며 계시이십니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요 1:4; 14:6). 그분은 사람으로서 자기 안에 생명을 가지고 계시며, 그래서 그 생명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실 수 있습니다(요 5:26). 사람들이 죽음 가운데 있었으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생명을 가져오셨습니다(요 5:24; 엡 2:1). 영적 죽음은 죄의 결과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 죄를 속하는 속죄 제물이 되셔야 했습니다(요일 4:9-10).

자기 죄 가운데서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들이 받는 것은 “영적” 생명입니다(골 2:13).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을 때 그 생명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습니다(요일 5:13). 여기에는 거듭남을 통한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이 출생을 스스로 일으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요 1:13). 거듭남과 함께 그런 사람들의 영적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며, 그것은 결코 다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생명은 그들의 소유가 되어, 그들은 그것을 자기 안에 가지게 됩니다(요 6:53; 요일 3:15). 동시에 성경은 그들이 그 생명을 아들 안에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요일 5:11). 그들은 생명의 근원이신 그분께 의지할 때에만 그 생명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분 밖에서는 그 생명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벧후 1:4). 마치 잎사귀가 가지에 붙어 있을 때에만 싱싱하고 푸를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2.9.4 신자들은 어떻게 영생을 소유하는가?

신자들이 거듭남을 통해 받았고(요 3장; 벧전 1:23-25)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는 생명은 “영생”입니다. 이것은 이 생명이 (어떤 이유에서든) 다시 신자들에게서 떨어져 나갈 수 있는 신자들의 한 구성 요소일 뿐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경우에 따라 다시 잃어버릴 수도 있는 귀한 선물 같은 것이 아닙니다. 영생은 신자들의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있는 그들의 상태이며 그들의 새로운 존재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로서의 이 새로운 존재를 바울은 새로운 피조물⁹⁵이라고, 하나님의 작품⁹⁶이라고 묘사합니다. 새 생명을 받음으로써 죄인은 새 사람이 됩니다.

위에서 말한 것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연적인 생명(헬라어 *bios*)을, 잃어버려도 아무 일 없는 꾸러미처럼 들고 다니지 않습니다. 그것을 잃는 사람은 죽습니다. 자연적인 생명은 곧 육체적 죽음으로 끝나는 우리의 땅에서의 존재 전체를 뜻합니다. 우리가 영생을 소유하는 방식도 이와 비교할 수 있습니다. 영생을 잃어버릴 수 있다면, 새로운 피조물이 그로 말미암아 파괴될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더 이상 파괴될 수 없습니다.

땅에서의 삶에는 사람을 인격체로 만드는 의식 있는 존재가 포함됩니다. 그것은 자신을 표현하는 능력, 생각하고 느끼고 알고 사랑하는 힘입니다. 땅에서의 삶의 이런 특징들을 우리는 영생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연적인 생명이 사람을 인격체로 만드는 것처럼, 바울은 새로운 인격, 새로운 “나”에 대해 말합니다. “...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갈 2:20). 신자는 자신을 새로운 인격체로 만드는 방식으로 새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생명과 그분의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생명의 능력은 성령이시며, 성령께서도 영생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셨습니다.

이 상태와 이 존재에 죽음은 더 이상 아무 영향도 미치지 못합니다. 영생은 당연히 죽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영생의 성격과 의미와 그 범위를 정리했으니,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2.9.5 영생과 죽음

신자가 죽을 때 영생은 어떻게 됩니까? 영생은 잠자는 자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것이 죽음 이후 신자들의 상태와 관련된 핵심 질문입니다.

95. 물론 영생은 피조물이 아닙니다. 그러나 신자들이 이제 영생을 소유하고 있고, 영생이 그들의 새로운 상태를 특징짓는다는 사실은 새로운 피조물의 일부로 볼 수 있습니다.

96. 고린도후서 5:17; 갈라디아서 6:15; 에베소서 2:5, 10; 4:23, 24; 골로새서 3:9-11.

주 예수님께서서는 이 질문에 분명한 답을 주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요 11:25-26).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인격 안에서 부활이요 생명이시라는 사실은 신자들에게 - 살아 있는 신자들에게도, 세상을 떠난 신자들에게도 - 폭넓고 복된 결과를 가져옵니다.

2.9.6 세상을 떠난 신자들

죽은 신자들에게 주님의 이 말씀, 곧 그분이

- 부활이시라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 생명이시라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그들은 언젠가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살 것입니다. 이것이 육체적 부활을 뜻한다는 것을 우리는 앞에서 이미 보았습니다. 그분이 부활이시기 때문에, 부활은 그들의 육체적 죽음의 끝이며 다시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이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속죄 사역과 그분의 부활에 근거한 부활의 소망입니다. 영생은 몸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에 대한 보증입니다. 그때에는 몸도 온전히 영생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죽어도 살 것입니다. 여기서는 죽은 직후 신자의 상태를 말합니다. 신자가 죽을 때, 영생의 모든 특징을 지닌 그 생명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2.9.4 단락 참조). 영생은 죽음으로 손상되지 않으며, 아무 해도 입지 않고 “죽음의 문”을 통과합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새 생명, 곧 신자의 새로운 “나”, 새 사람의 인격적 자기의식이 죽은 뒤에도 그대로 남아 있다는 뜻입니다. 영생은 신자와 떼려야 뗄 수 없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영생이 결코 다시 신자에게서 떨어질 수 없다는 것이 다시 한번 분명해집니다. 신자는 죽어도 이 생명의 능력과 의식 가운데 계속 살아 있습니다. 영생을 통해 비로소 가능해진 아버지와의 사귄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2.9.7 살아 있는 신자들

요한복음 11:26에서 주님께서는 그분이 부활이요 생명이시라는 것이 살아 있는 자들에게 무엇을 뜻하는지 말씀하십니다. 살아 있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진리를 다른 곳에서도 두 번 더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요 6:58). 그리고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요 8:51).

주목할 만한 것은, 주님께서 요한복음 11:26 말씀의 첫 부분에서는 죽은 신자들에 대해 말씀하시면서도, 둘째 부분에서는 신자들이 결코 다시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신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신자도 불신자와 똑같이 여전히 죽습니다. 이것은 모순입니까? 이 말씀의 둘째 부분에서 죽음은 다른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자의 죽음과 불신자의 죽음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죽는 신자는, 불신자가 육체적 죽음 뒤에 맞이하게 되는 영원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입니다. 육체적 죽음은 죄인을 영원한 심판으로 이끄는데, 그것이 영원한 죽음입니다(계 20:14).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히 9:27)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죄인에게는 죽음과 심판 외에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더 이상 소망도 도움도 없습니다. 이것이 불신자의 죽음입니다!

신자는 죄인의 이런 죽음을 죽지 않을 것입니다. 죄가 사람에게 미치는 결과(죽음)는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신자들에게서 완전히 폐해졌습니다. 그들은 이미 지금 더 이상 죽을 수 없는 새로운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 비록 아직 육체적 죽음을 거쳐야 한다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그것은 신적인 생명의 능력으로 죽음을 이기신 분의 생명입니다. 그분이 부활이시기 때문에, 그것은 죽음이 더 이상 아무 권세도 가지지 못하는 생명입니다.

신자는 살아 있든 죽었든 **언제나** 영생의 능력과 의식 가운데 삽니다. 몸만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일정 기간 동안 거기서 제외될 뿐입니다.

요약하겠습니다. 영생은 신자가 거치는 세 가지 서로 다른 시기에 그의 소유입니다. 영생은 그가 거듭날 때, 그의 땅에서의 삶 동안에 시작됩니다.

그다음에 영생은 죽은 뒤에도 그의 소유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생은 부활 때에 영원한 완성에 이릅니다.

2.9.8 영생의 장래 모습

사도 바울(롬 5:21과 6:22)과 공관복음서 기자들(마 18:8; 25:46; 막 10:30; 눅 18:30)은 영생을, 요한의 경우처럼 현재의 소유로서가 아니라 장래의 모습으로 말합니다.

바울은 영생을 온전히 소유하고 누리는 것을 부활 때의 썩지 아니함과 연결합니다. 그는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부활 때 몸의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질 값음이 영생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롬 2:7). 바울에게 영생은 그 온전한 의미에서 영광 가운데 계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생이 본향으로 삼는 분위기입니다.

땅에 살아 있는 우리는 아직 죽을 몸 안에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활 때 우리는 “영원한 집”을 입게 될 것입니다(고후 5:1). 그것은 영생에, 곧 완성의 상태에 온전히 걸맞은 몸입니다. 요한도 영생의 이런 측면을 알고 있습니다.⁹⁷

영생의 소망과 기대(딤후 1:2; 3:7; 롬 6:22)는, 하늘의, 아버지 집의 일들을 머지않아 그 생명에 고유한 환경과 분위기 속에서 경험하고 누릴 수 있게 되는데 있습니다.

2.9.9 성령

성령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셨습니다.⁹⁸ 여기서 더 자세히 다루지는 않겠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라는 점을 짚어 두겠습니다.

“...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97. 요한복음 4:36; 12:25; 요한일서 3:1, 2 참조.

98. 요한복음 7:39; 14:16; 15:26; 사도행전 1:8; 19:2; 로마서 8:9, 11, 14-16; 고린도전서 2:12; 3:16; 6:19; 고린도후서 1:22; 에베소서 4:30; 데살로니가전서 4:8; 디모데후서 1:14; 야고보서 4:5.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요 14:16-17).

따라서 하나님의 영께서는 죽음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때에도 그분은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그분은 영생과 마찬가지로, 이 중간 기간에 우리가 온전한 의식과 온전한 능력과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있으리라는 것의 보증이십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 곧 그 순간을 위한 담보로,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어지셨습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 우리를 준비시키신 분은 하나님이며, 그분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다”(고후 5:5).

우리가 살아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은 죽음 가운데서도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2.9.10 결론

마지막으로 “죽음 이후 신자들의 상태는 어떠한가?”라는 더 큰 질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영생과 성령은 둘 다, 신자가 죽은 뒤에 그리스도와 의식 있는 사귀 가운데 계속 살아 있다는 것에 대한 보증입니다.

신자 안에 있는 생명은 죽을 수 없습니다(겔사람이 죽을 때조차 그렇습니다). 신자는 그 생명을 영원토록 살아 계신 아들 안에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자는 그 생명을 더 이상 잃어버릴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는 하나님에게서 난 자로서 가지고 있는 자기 존재 전체를 잃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새로운 존재는 하나님의 작품이며, 파괴될 수도 없고 결코 끝나지도 않을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성령의 모든 특징이 죽음 가운데서도 우리의 존재를 규정할 것입니다.

더 깊이 생각해 볼 질문

- “영생”과 “불멸”을 구별해 보십시오!
- 신자의 죽음은 불신자의 죽음과 어떻게 다릅니까? 이와 관련하여 요한복음 11:26의 말씀에 유의해 보십시오!

- 성령은 중간 상태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2.10 옥에 있는 영들

“옥에 있는 영들”은 우리의 주제와 직접 관련된 개념입니다. 이 개념은 성경에 단 한 번, 그것도 베드로전서에만 나옵니다. 바로 거기에 이 개념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의 둘째 편지에서 바울의 편지 가운데 몇몇은 알기 어렵다고 씁니다(벧후 3:16). 그런데 여기서는 그 말이 베드로 자신의 편지에도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영들이 언급되는 본문(벧전 3:19-20)은 신약에서 가장 어려운 본문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 속에서 서로 매우 다른 많은 해석이 있었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있습니다.⁹⁹

성경 해석의 가장 중요한 원칙을 말하는 사람은 바로 베드로 자신입니다. 곧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벧후 1:20)라는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본문도, 우리가 2.1-2.9 단락에서 이미 다루었고 의인과 불의한 자 모두의 죽음과 부활 사이의 상태에 대해 폭넓은 그림을 보여 준 신약의 모든 성경 구절에 비추어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는 **흠어진 나그네**들에게 이렇게 씁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 들어가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여덟 영혼이라”(벧전 3:18-20).

99. 이에 대해서는 William Kelly, *Christ Preaching to the Spirits in Prison*, The Bible Treasury, Vol. 9, 1872; 그리고 Jürgen Kuberski, *Eine Höllenfahrt Jesu?*, Bibel und Gemeinde, 2/1988; 그리고 H.L. Heijkoop, *Der erste Brief des Petrus*, Neustadt (Schriftenverlag Ernst Paulus) 1978 참조. 이에 대해서는 부록도 참조하십시오.

2.10.1 베드로의 의도

베드로가 다루는 것은 죽음 이후의 상태가 어떠한가 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아무도 그에게 그것을 묻지 않았고, 반박해야 할 거짓 가르침을 들어온 사람도 없었습니다.¹⁰⁰ 베드로가 편지를 쓴 신자들은 예수님 때문에 심한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¹⁰¹ 그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그들을 격려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의 처지를 홍수 이전 시대 노아의 처지와 비교했습니다. 노아는 그의 가족과 함께 겨우 여덟 영혼으로 이루어진 소수였습니다. 그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아들과 함께 마른 땅 위에서 배를 지었습니다. 다른 아무도 그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것처럼 신자들도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습니다(1:8). 그것은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노아의 본보기와,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영을 통해 일하시고 함께 계신다는 사실은, 그들의 메시지가 거부되고 사람들이 그들을 부당하게 괴롭힐 때에도 그들이 견디도록 힘을 북돋아 주어야 했습니다.

2.10.2 본문에 대한 저의 설명

고난 받으신 그리스도는, 그분처럼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아야 했던 신자들의 본보기이십니다. 이 구절에서 말하는 것은 죄 때문에 받으신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그분은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들을 위해 죽으셨으며, 그 목적은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신자들이 견딜 필요가 없었던, 그리스도의 속죄의 고난입니다. 그리스도의 속죄는 그분에게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그분은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영의 능력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롬 1:4; 8:11).

이 영으로 - 땅 위의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 그분은 가서 전에 순종하지 않던 욕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성령, 달리 말하면 그리스도의 영께서 (벧전 1:11) 의를 전파하는 자인 노아 안에서 일하셨습니다(벧후 2:5). 노아와 같은 시대 사람들에게 한 선포는 방주를 짓는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들

100. 예를 들어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거기서 그는 부활을 부인하는 것에 맞서 싸웁니다.

101. 베드로전서 1:6; 2:12, 19-21; 3:14, 17; 4:1, 4, 12, 16; 5:8, 9.

가운데 아무도 돌이키지 않았고, 그들은 모두 그들의 불순종 때문에 홍수로 죽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영께서는 같은 목적으로, 베드로가 편지를 쓴 신자들 안에서 일하시어(벧전 4:14; 1:11 참조),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증언을 펴뜨리셨습니다.

베드로는 노아 시대에 죽은 사람들을 “옥에 있는 영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좋은 소식을 믿지 않았고(벧전 4:6), 방주가 지어지는 여러 해 동안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흘려보냈습니다. 그러므로 죽음과 함께 그들의 심판이 시작되며(히 9:27), 그들은 고통 받는 곳인 하데스(눅 16:23)에 있게 됩니다. 여기서는 그곳을 옥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에도 신자들을 위한 격려가 있습니다. 그들이 설명해야 했던(벧전 3:15) 그들의 메시지와 소망은 전적으로 옳았습니다. 그들의 메시지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같은 곳으로 가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도 죽은 뒤에는 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곧이어 쓰는 것처럼, 그곳이 부활의 날까지, 그리고 큰 심판의 날까지 그들이 있을 곳이었습니다.

“... 그들이 산 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벧전 4:5).

노아는 방주 안에서 홍수를 뚫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에 상응하는 실체인 세례는 이제 신자들도 구원합니다. 그들도 노아처럼 땅 위에서 새로운 위치에 놓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그들과 같은 시대 사람들에게서 구별되어(행 2:40-41), 그들은 이제 모든 권세를 받으신, 부활하시고 영화롭게 되신 그리스도를 섬겼습니다.

다음 제목들 아래에서 저는 제가 성경적이라고 여기지 않는 몇 가지 개념과 설명을 좀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2.10.3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고 -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다

위에서 이미 두 표현을 설명했지만, 여기서 몇 가지 측면을 더 말해 두겠습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견해가 없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음을 가리킨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분의 죽음은 그 뒤에 온 것, 곧 그분의 부활과 대조됩니다. 부활은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라고 표현됩니다. “살리다”는 로마서 4:17; 8:11; 고린도전서 15:22, 36, 45에서와 같은 표현입니다. 그러나 부활은 주님의 영을 “살리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몸의 부활을 뜻합니다(요 2:19-22).

부활 때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성령이십니다. 성령에 대해 “살리는 것은 영이니”(요 6:63)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주님의 부활과 신자들의 부활과 관련하여 성령에 대해 말합니다.

“...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롬 1:4).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롬 8:11).

주 예수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십니다(골 1:19-20; 2:9). 곧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거하십니다. 신성의 세 위격 모두가 구속 사역에, 따라서 그분의 부활에도 참여하셨습니다.

이 영으로 그분은 가서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이 일을 직접, 곧 살과 피를 가진 사람으로서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영¹⁰²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께서는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시기 전에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 안에서 일하셨고(벧전 1:11), 지금도 복음 선포 가운데 일하시며, 거기서는 “성령”이라고 불리십니다(벧전 1:12).

노아의 날에 하나님의 영께서는 노아를 통해 일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노아를 “의를 전파하는 자”라고 부릅니다(벧후 2:5). 모세도 홍수를 통한 심판과 관련하여 노아 시대에 하나님의 영께서 일하신 것에 대해 말합니다(창 6:3). 신약에서도 그리스도께서 평안을 전하심으로써 선포하셨다는 비슷한 말씀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엡 2:17). 그러나 그때에도 그분은 그 일을 직접 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종들을 통해 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늘로 올라가셨고 더 이상 직접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습니

102. “그리스도의 영” 또는 “예수의 영”이라는 표현은 사도행전 16:7; 로마서 8:9; 빌립보서 1:19; 베드로전서 1:11에, “주의 영”이라는 표현은 사도행전 5:9; 8:39; 고린도후서 3:17에 나옵니다. 모든 구절에서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이십니다.

2.10.4 옥에 있는 영들에게 하신 선포

매우 다양한 해석들 사이에서도,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죽음과 부활 사이의 짧은 기간에 하데스에 있는 영들에게 직접 선포하셨다는 데에는 대체로 의견이 일치합니다. 여기에는 중대한 질문들이 따릅니다.

2.10.5 선포의 내용

해석이 다양하다는 것으로 보아 선포의 내용, 곧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알려져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저로서는 선포를 사람들을 돌이키게 하여 구원받게 하려는 목적 외에는 달리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선포”가 뜻하는 바입니다.¹⁰³ 이 선포는 베드로 자신이 정의합니다. 그는 죽은 자들에게 좋은 소식이 전파되었다고 말합니다(4:6). 그러므로 하데스에서의 그런 선포는 세상을 떠난 사람들에게 돌이킬 두 번째 기회가 주어졌다는 뜻이 될 것입니다.

선포의 내용에 대한 설명은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언하는 것에서부터 좋은 소식을 선포하는 것까지 다양합니다. 세상을 떠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승리가 선포된다는 생각은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 생각은 별로 의미가 없기도 합니다. 어차피 언젠가는 -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까지 죽은 사람들만이 아니라 -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게 될 때가 오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땅에 있는 자들(곧 산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곧 죽은 자들)이 거기에 포함된다고 말합니다.

“...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빌 2:10-11).¹⁰⁴

103. 예를 들어 마태복음 26:13; 고린도전서 1:23; 갈라디아서 2:2; 빌립보서 1:15.

104. 빌립보서 2:11에서는 이 일이 언제 일어날지, 그리고 언급된 모든 자들에게 같은 시점일지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성경 말씀과 일치하게 - 특히 심판의 자리들로부터 - 이것이 큰 보좌 앞에서 있을 산 자와 죽은 자의 심판이며, 그때 모든 자에게 동시에 임하리라는 것을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이런 뜻에서 주 예수님께서도 “심판의 날”에 대해 말씀하십니다(마 10:15; 11:22, 24; 눅 10:14).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사이에 옥에 있는 영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선포가 있었다는 견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 이 견해를 뒷받침하는 다른 근거가 성경에 없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이 누가복음 23:43에서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하데스가 아니라 신자들이 있는 낙원으로 가셨습니다.
- 베드로는 그분이 죽으신 뒤에 살리심을 받으셨다고 말합니다. 그는 죽음과 부활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 살아 있는 동안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경험하고도 그것을 거부했다고 분명히 언급된 바로 그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선포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성경의 증언은 죽은 뒤에는 더 이상 돌이킬 기회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 그것은 그분이 오로지 홍수 때 죽은 사람들에게만 선포하셨다는 뜻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분명히 이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이나 이후에 죽은 사람들, 모두 합하면 분명히 이들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다면 죽은 사람이 모두 선포를 들을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 역시 의미가 없으며, 죽은 뒤에 회개할 가능성을 열어 놓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이며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6장에서 하데스에 대해 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은, 죽은 뒤에는 더 이상 아무 변화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 줍니다. 넘을 수 없는 큰 구렁텅이가 복된 곳과 고통 받는 곳을 갈라놓고 있습니다.

2.10.6 영혼들과 영들

방주에서 구원받은 여덟 사람은 “영혼들”이라고 불립니다. 베드로는 첫째 편지에서 “영혼”이라는 말을 여섯 번 사용합니다.¹⁰⁵ 다섯 번은 “영혼”을 신자의 본질적인 구성 요소로 이해하고, 단 한 번 - 우리 본문에서 - 그것으로 사람 전체를 가리킵니다. 그가 여기서 “영혼” 대신 “사람”이라고 말했더라도 뜻은 같았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영혼”이라는 개념은 자주 그렇게 쓰이기

105. 1:9, 22; 2:11, 25; 3:20; 4:19.

때문입니다.¹⁰⁶ “영혼”의 이런 뜻은 오늘날 우리의 언어 습관에도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혼”이 노아 시대에 땅 위에 살던 사람을 가리킨다면, 옥에 있는 “영들”은 무엇을 뜻합니까? “영들”이라는 개념은 세상을 떠난 사람들을 가리킵니까?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영혼”과는 확연히 달리, “영”이라는 말이 땅 위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는 어디에서도 쓰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영”이라는 말은 사람과 관련하여 아주 자주 쓰이지만, 그때에는 영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오로지 사람의 본질적인 구성 요소로서 쓰입니다. 이와 달리 “영”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들에게도, 귀신들, 곧 타락한 천사들에게도 쓰입니다(예를 들어 마 10:1; 계 12:8).

2.10.7 이 영들은 타락한 천사들인가?

그러나 이것으로 여기서 말하는 것이 지금 가장 깊은 무저갱에 갇혀 있는 천사들이라는 견해가 근거를 얻는 것은 아닙니다.¹⁰⁷ 이 견해는 다음 성경 구절들을 근거로 삼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가장 깊은 무저갱[헬라어 Tartarus, 타르타로스]에 던져 어둠의 사슬에 넘겨주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벧후 2:4; 유 6 참조),

그리고 이와 함께 창세기 6:2-4를 듭니다.

“…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택한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다투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육신이기 때문이라, 그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셨다. 그 당시에 땅에는 거인들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가 그들이 그들에게 자식을 낳았을 때에도 그러하였다.”

106. 예를 들어 창세기 12:5; 출애굽기 1:5; 민수기 31:35; 사도행전 2:41; 7:14.

107. Kenneth S. Wuest, *First Peter in Greek New Testament*, Michigan (Eerdmans Publishing), 1942 참조.

사람들은 유다가 말하는 사슬에서, 베드로가 말하는 옥과 비슷한 점을 봅니다. 천사들이 여자들과 결합하는 창세기 6장의 사건은 의심할 여지 없이 노아 시대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는 이 타락하여 지금은 결박된 채 심판 때까지 갇혀 있는 천사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셨다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은혜와 구원의 메시지일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2:16에 따르면 주님께서는 천사들을 해방하려고 그들을 붙들어 주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천사들에게 골고다에서의 그분의 승리를 선포하셨다는 단서는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것은 의미도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이미 정해진 심판의 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심판자가 되실 것입니다(고전 6:3 참조). 그러므로 그때에는 어차피 그분의 권세와 위대하심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능력을 선포할 필요가 없습니다. 타락한 천사들, 곧 귀신들이나 더러운 영들은 골고다 이전에도 그리스도의 능력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심판과 관련하여 알고 있었고, 그분의 능력을 두려워했습니다(눅 8:27-33; 마 8:29). 귀신들은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선포하시는 메시지가 없어도 믿고 떨니다(약 2:19).

창세기 6장에서 천사들이 노아 시대 이전에 여자들과 결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일이 반드시 노아의 날에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비록 겉보기에는 연결점이 있는 것 같아도, 이 본문에서 “영들”을 천사들로 이해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여기서도 본문의 문맥과 성경 전체의 증언에 유의해야 합니다.

2.10.8 영들 – 세상을 떠난 사람들

여기서 노아와 같은 시대 사람들이 “영들”이라고 불리는 것은, 그들이 지금, 곧 이 편지가 쓰일 때에 옥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옥”이라는 말은 그들의 불순종의 결과를 암시합니다. 그들의 심판에는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죽은 뒤 그들의 존재는 살과 피로 된 몸 안에 있지 않습니다.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그들은 “몸을 떠나” 있습니다(고후 5:8). 그래서 그들을 영들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영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다른 표현을 베드로는 몇 절 뒤에 사용합니다. 그 구절들은 위에서 인용한 구절들에 이어지는 것으로, 사실상 그 생각의 흐름을 마무리합니다.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좋은 소식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벧전 4:6).

그들은 지금 -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 옥에 있는 영들입니다. 그들의 몸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은 지금 죽은 자들입니다. 두 묘사는 같은 상태를 설명하지만 두 측면에서 설명합니다. 한쪽은 몸의 측면(“죽은 자들”)이고, 다른 쪽은 영-혼의 측면입니다. 좋은 소식이 전파된 대상은 그 당시에 이미 죽은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죽어 있는 사람들, 곧 그 당시 살아 있는 사람으로서 그 메시지를 들은 뒤에 홍수로 죽은 사람들입니다.¹⁰⁸

이것이 “영들”이라는 말의 뜻이며, 이 뜻은 - 원어를 알지 못해도 - 본문의 문맥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영들에 대해, 곧 죽은 뒤의 사람들에게 대해 말하는 구절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 산과 살아 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전체 모임과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히 12:22-23).

이 영광스러운 열거의 끝에, 이 맥락에서 우리의 관심을 끄는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입니다.¹⁰⁹ 그러므로 여기서 영들은 그들의

108. 몇몇 해석자들은 이 죽음을 영적으로 해석합니다(에베소서 2:1, 5; 골로새서 2:13; 누가복음 15:24, 32 참조). 그러나 제 생각에 영적 죽음은 구약에서 결코 언급되지 않으며, 구약 시대의 사람들과 관련하여 쓰이지도 않습니다.

109. 베드로전서와 히브리서 12장에 나오는 개념들의 차이는, 베드로에게서는 “영들”이 사람 전체를 가리키고 히브리서 12장에서는 영들이 신자들의 본질적인 구성 요소로 여겨진다는 데 있습니다. 이로써 영 외에 몸이 있다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근본적으로 이 개념들은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라는 개념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이 증인들은 믿음의 경주자를 경기장에서처럼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 증인들은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영웅들로서, 지금 하늘의 낙원에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경기의 관중처럼 지켜본다고 암시했습니다. 제 생각에 그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은밀한 일들까지 포함하여 우리의 삶 전체를 보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 이에 대해 침묵하므로 우리는 이에 대해 확실하게 말할 수 없습니다.

몸과 분리되어 있으며, 장자들의 모임의 일부를 이룹니다. 이 개념은 오직 이들만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피로 의롭게 된 것은 오직 죄인들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천사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열거에서 천사들은 따로 언급되므로, 여기서 말하는 영들은 천사들일 수 없습니다.

2.10.9 옥

옥은 정말 하데스입니까? 이 질문에 답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영들과 관련된 “옥”이라는 개념은 성경에 단 한 번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옥”이라는 말은 우리가 신약의 다른 곳에서 알고 있는 것과 다른 뜻으로 쓰이지 않습니다.¹¹⁰ 범죄자는 구금되며,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이곳¹¹¹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옥”이라는 개념은, 불의한 자들이 죽은 뒤 심판 날까지 붙잡혀 있다는 것으로 잘 설명됩니다. 베드로는 그의 둘째 편지에서도 이것을 언급합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벧후 2:9).

이 진리는, 재판이 열릴 때까지 미결 구금이 있다는 오늘날 우리의 이해와도 맞습니다. 이 설명은 우리가 이 주제와 관련하여 이미 살펴본 다른 모든 본문과 결코 모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죽은 뒤 불의한 자들이 받을 몫에 대한 그림을 완성해 줍니다.¹¹²

어떤 천사들도 “옥”에 구금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심판의 날까지 붙잡혀 있습니다. 그들은 판결이 내려지는 날까지 감옥에 있습니다.

“옥”이라는 말은 “죄의 옥”이라는 뜻으로도 이해됩니다. 이사야(42:7; 49:9; 61:1)와 누가(4:18-19)는 이 표현을 그런 뜻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 여기서는 이런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이 영들은 지금 살아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전에 살아 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영들과 관련하여 죄의 옥을

110. 예를 들어 마태복음 14:10; 누가복음 3:20; 사도행전 5:19; 고린도후서 6:5.

111. 어쩌면 사도행전 1:25에도 이곳에 대한 암시가 있는지 모릅니다.

112. 옥에 있는 자들이 온전한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굳이 말할 필요도 없어 보입니다. 잠자는 자들을 옥에 가두어 둘 필요는 없기 때문입니다.

말한다면, 그것은 오직 그들이 용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그들의 죄에 매여 있다는 뜻에서일 것입니다.

2.10.10 구약 신자들이 스올에서 해방되었는가?

마찬가지로 꽤 널리 퍼져 있는 견해는, 스올에 있던 구약의 신자들이 고통 받는 곳에 있었거나, 아니면 복되다고 할 수 없는 일종의 대기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뒤 그곳을 찾아가셨을 때, 그분이 신자들을 해방하여 낙원으로 인도하셨다거나, 그분이 계심으로써 그곳을 낙원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 견해의 근거 가운데 하나는 구약에서 “스올”이라는 개념이 가진 뜻입니다. 스올은 죽은 자들이 이르는 부정적이고 어두운 곳이기도 합니다. 이와 달리 낙원은 구약에서 세상을 떠난 신자들이 있는 곳으로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낙원이 계시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낙원이 없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뒤에 두려움과 공포에 빠졌겠습니까? 그는 이미 터가 있는 성, 곧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지으신 성과, 이 세상에 있지 않은 하늘의 본향을 바랐습니다(히 11:10, 14, 16).

마찬가지로 이런 질문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아직 오지 않으셨는데, 그는 도대체 죄 사함을 알았거나 받았습니까?¹¹³

저는 스올에서의 해방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반문만으로 답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에는 없습니다. 제 생각에 이런 생각은 의미도 없으며, 그리스도께서 그런 일을 하셨다는 것을 암시라도 하는 비슷한 말씀이 성경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조상들에게로 모였습니다.¹¹⁴ 우리는 그가 내세에서 그들을 다시 만났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가 전능자로 알았던 그의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눅 20:38). 이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벗이라 불린

113. 로마서 3:25-26에 근거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희생 제물을 내다보시고, 말하자면 앞당겨서 구약의 신자들에게 죄를 돌리지 않으셨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죽은 뒤에 어떤 고통이나 정화를 겪어야 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114. 창세기 25:8; 민수기 27:13의 모세 참조(1.5.3 단락 참조).

아브라함(약 2:23)이 지금 복된 삶을 누리고 있으며, 그 삶은 부활 때까지 해방이나 개선이 필요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복된 곳을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분은 유대인들이 이미 알고 있었거나 잘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그것은 의인들이 죽은 뒤에 가는 복된 곳이었습니다. 이로부터,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뒤 - 아브라함에게도 - 낙원의 문을 여실 때까지 죽음 가운데 있는 구약의 신자들에게 아브라함이 중심이었다는 결론을 이끌어 낼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표현해도 된다면, 낙원은 모든 시대의 신자들에게 열려 있었습니다. 낙원은 언제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늘 보좌 앞에 계신 하나님의 임재이기 때문입니다.

2.10.11 예수님의 지옥 강하?

주 예수님께서 지옥에 내려가셨느냐는 질문은 사실 더 다룰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여러 측면에서 답했기 때문입니다. 그 자체로도 거듭 변화를 겪은 몇몇 신앙고백은 예수님을 지옥 또는 죽음의 나라에 내려가신 분으로 고백합니다. 루터(Luther)와 그를 따르는 다른 이들은 “하데스”를 “지옥”(독일어 Hölle)으로 번역했고,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지옥 강하”라는 생각이 생겨났습니다.

“지옥 강하”의 근거로 예를 들어 에베소서 4:8-10을 듭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는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높아지심과 그분이 낮아지신 깊이입니다. 그분이 낮아지신 가장 낮은 지점은 죽음이었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으로서 땅 위에 계셨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낮아지심이었습니다(빌 2:5-11 참조). 그러나 그분은 우리를 위해 죽음에까지 들어가셨고 장사되셨습니다. 다음 구절도 말하는 것처럼, 이것이 “땅의 낮은 곳”이 뜻하는 바입니다.

마태복음 12:40에서 말하는 것은 육체적 죽음이지, 죽은 자들의 세계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의 중심에** 있으리라.”

시편 16:10을 인용한 사도행전 2:27에서, 주 예수님께서 하데스에 계셨다는 결론을 내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이는 내 영혼을 하데스에 버려두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임이로다.”

그러나 이 구절은 주님께서 실제로 하데스에 계셨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이에 대해서는 2.1.8 단락의 설명을 참조하십시오(부록도 참조하십시오).

2.10.12 결론

저는 주 예수님께서 죽으신 뒤 하데스로 가지 않으셨고, 지옥에는 더더욱 가지 않으셨다는 것을 지치지 않고 강조합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달린 강도에게 친히 말씀하셨던 것처럼 낙원으로 가셨습니다.

거기서 선포하려는 목적으로 하데스에 내려가셨다는 것은 성경에서 다른 근거를 찾을 수 없습니다. 게다가 그곳에서의 선포는, 그 내용이 무엇이었던 의미가 없습니다. 타락한 천사들을 포함한 모든 죽은 자는 돌이킬 기회 없이 그들의 심판 때까지 갇혀 있으며, 그때 그리스도의 심판하시는 권세와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인의 운명은 신자들에게, 어려움이 있어도 침묵하지 말고 노아처럼 의를 전파하는 자가 되라는 격려입니다.

더 깊이 생각해 볼 질문

- 베드로전서 3장의 “영들”은 누구입니까?
- 누가 그들에게 선포했으며, 그 일은 언제 일어났습니까?
- 주 예수님께서 그분의 죽음과 부활 사이에 어디에 계셨고 - 어디에 계시지 않았습니까?
- 왜 그렇습니까?

- 베드로는 그 당시의 신자들을(그리고 오늘날의 우리를) 격려하기 위해 이 구절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2.11 임종 체험과 근사 체험

성경의 증언으로 우리는 내세에 대한 분명한 그림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그림은 잘못된 신학적 또는 교리적 견해들뿐 아니라, 죽음에 가까이 갔던 체험들, 곧 임종 체험과 근사 체험과도 마주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임상적으로는” 죽었다가 소생했지만 “생물학적으로는” 죽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죽음과 삶 사이의 영역 “어딘가”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이 고찰에서 언제나 전제해 온 의미, 곧 되돌릴 수 없고 최종적인 것이라는 의미로 죽었던 것이 아닙니다.

임상적 죽음이 무엇을 뜻하는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한 의사의 말을 인용하겠습니다. “임상적 죽음은 우선 호흡 정지, 곧 주변 공기에서 산소를 받아들이고 주변으로 이산화탄소를 내보내는 일이 완전히 멈추는 것을 뜻한다. 또한 그것은 심장 정지, 곧 혈액 순환이 완전히 마비되는 것을 뜻한다. 임상적 죽음이 일어나면 심전도 화면에는 이른바 평탄선, 곧 더 이상 아무런 심장 곡선도 나타나지 않는다. 임상적 죽음은 매우 제한된 시간 안에서는 예를 들어 아주 강한 전기 충격을 통해 되돌릴 수 있다. 소생에 실패하면 몇 분 뒤에 ‘생물학적 죽음’이 일어난다. 생물학적 죽음은 개별 기관 체계, 무엇보다 뇌가 그 기능을 멈추는 것을 뜻한다 … 생물학적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면 대개 되돌아올 수 없다.”¹¹⁵

삶과 “최종적인” 죽음 사이의 이 영역에서 여러 현상이 나타났는데, 이제 그것들을 다루려고 합니다.¹¹⁶ 여기서 말하는 것은 부활을 통해 생명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아니라, 아주 짧은 시간 동안만 **임상적으로** 죽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시간 동안 그들의 영혼 - 그들의 의식 - 이 몸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예를 들어 의사들이 수술실에서 그들의 생명을 살리려고 애쓰는 모습을

115. Dr. med. Hartmut Maier-Gerber, *Sterben - Der Höhepunkt des Lebens*, Wuppertal, 1994, 20쪽 이하; R. Moeckel, *Ist Sterben doch ganz anders*, Sehnde에서 인용.

116. 저 자신은 임종 체험을 한 적이 없고, 그런 체험을 한 사람을 개인적으로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 현상들에 대한 평가는 오로지 제가 구할 수 있고 누구나 접할 수 있는 문서 자료에 근거합니다.

보았습니다. 그들은 쾌적한 환경에서 친절한 빛의 존재들과 옛 지인들을 만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자기 몸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체험은 그리스도인들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들도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죽음은 그런 체험 뒤에 더 이상 두려운 것이 아니며, 그들은 이 경험을 좋은 소식처럼 전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현상들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힐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보고들이 우리 사회에서 죽음을 새롭고, 심지어 매력적인 빛 아래 두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지막 원수가 정복된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경험들에 따르면 죽음은 사랑이 가득한 완전한 세계로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모두, 모두 천국에 간다”는 노래를 정당하게 부를 수 있습니다. 아니면 결국 “다 잘될 거야”라는 말로 끝납니다.

레이먼드 무디(Raymond Moody) 박사, 로버트 A. 먼로(Robert A. Monroe), E. 퀴블러로스(E. Kübler-Ross) 등의 책이 출간된 뒤로 죽음에 대한 이런 생각이 널리 퍼졌습니다. 퀴블러로스 여사는 죽음 연구자들의 메시지를 이렇게 요약합니다. “하나님은 벌하고 징죄하는 존재가 아니다. 다시 돌아온 사람들에게서 우리가 듣는 것은, 모든 사람이 저편으로 넘어간 뒤에 평화와 균형과 온전함의 충만을 느끼게 될 것이라는 확신이다.”¹¹⁷

이것은 놀라운 발견이 아닙니까? 사실 죽음과 내세의 비밀을 밝히는 것은 사람이 달이나 화성에 착륙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마침내 저편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된 것처럼 보이며, 이것은 우리에게서 죽음의 두려움을 없애 줍니다. 그곳에는 자기 삶에 대해 책임을 물으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에 과학의 겉칠이 입혀져서, 이 발견들은 진지하고 믿을 만한 것처럼 보입니다.

2.11.1 이런 보고들은 믿을 만한가?

이런 보고들은 매우 조심스럽게 보아야 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저자들의 서술은 한 마디 한 마디 그대로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 서술들은 흔히 이교적 세계관과 강신술과 뉴에이지 운동의 영향을 받았고, 그 현상들도 이

117. Elisabeth Kübler-Ross, *Über den Tod und das Leben danach*, Berlin, 1994, 44쪽.

세계관에 따라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이런 특별한 현상들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 진실성을 의심하지 않을 이유는 충분합니다. 그리스도인이든 그리스도인이 아니든 이런 일을 겪은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 보고들을 유령 이야기나 공상으로 물리치는 것은 너무 단순한, 아니 잘못된 결론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실제로 어떻게 생각해야 하며, 이런 보고들을 성경적으로 어떻게 자리매김하고 판단할 수 있습니까?

2.11.2 성경에 나오는 임종 체험?

첫 번째 질문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런 종류의 현상을 찾아볼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죽은 사람을 살리신 일에 대한 기록이 있으므로, 해당되는 사람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잘 알려진 기록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일입니다(요 11장). 이 기록은 나сар가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되었고 그의 몸이 썩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물학적 죽음을 전제해야 합니다. 삶과 죽음의 주님께서 나사로를 생명으로 다시 불러내셨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에게 증거가 되는 기적이요 표적이었습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나사로가 죽어 있던 동안 무엇을 경험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성경은 나사로에 대해 어차피 거의 아무것도 기록하지 않지만, 여기서는 분명히 무언가 기록할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내세에 대한 그의 진술은 오늘날 우리가 듣게 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신 다른 두 사건도 그에 못지않게 놀랍습니다. 아이로의 딸(막 5:22; 눅 8:41)과 나인 성의 청년(눅 7:11)이 그들입니다. 그들도 생물학적으로 죽어 있었고, 생명의 주이신 주 예수님께서(행 3:15) 그들을 살리셨습니다. 그들에 대해서도 내세에서 경험한 것은 아무것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덧붙여 말하면, 구약이나 신약에 기록된 죽은 사람을 살리신 다른 모든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그분 자신의 말씀에 따르면 죽어 계시는 동안 낙원에 계셨는데, 그곳에 머무신 일에 대해 아무것도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낙원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그리고 그곳에서 모든 시대의 신자들을 만나셨을 때 거기에 어떤 기쁨이 있었는지를 이야기하실 수 없었겠습니까?

눈에 띄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에서 체험의 보고를 근거로 낙원의 존재를 우리에게 확인해 주는 체험을 단 하나만 말씀하신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셋째 하늘, 곧 낙원으로 이끌려 간 바울의 체험이었습니다(고후 12:1-4).

다른 한편으로, 성경에 그런 체험이 (한 가지 예외를 빼고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이 그런 체험이 없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사실은 근본적인 것 하나를 분명히 해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증거를 주지 않으십니다. 그분에게는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그분의 말씀에서 낙원과 하데스,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충분하고도 오해의 여지 없이 분명히 하십니다.

이것은 누가복음 16장의 가난한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에서 아주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부자는 하데스에서 고통 가운데 있었고, 그의 형제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언젠가 그를 따라 이 끔찍한 곳에 오게 되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그가 살았던 것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들이 돌이킬 유일한 가능성이, 누군가 그들의 집에 보내져 그들에게 간곡히 경고하는 데 있다고 보았습니다. “부자가 말하였다.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 주십시오. 내 형제가 다섯 있으니, 그가 그들에게 간곡히 경고하여 그들도 이 고통 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 주십시오.’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하였다.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그가 말하였다. ‘아닙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며. **죽은 자 가운데서 누가 그들에게 가면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하였다. ‘그들이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누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 해도 설득되지 않을 것이다’”(눅 16:27-31, 독일어 Elberfelder 성경에서 번역).

하나님께서서는 사람과 그의 불신앙을 아시며, 누군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 해도 죄인이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에게 회개와 믿음의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죄인에게는 창조 세계의 증언과 양심이 있습니다.

그 밖에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분의 말씀과 복음의 선포를 주셨습니다. 성경의 증언은 근본적으로 충분합니다. 사람들은 증거와 표적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온갖 종류의 많은 기적을 통한 예수님의 사역은, 그분의 신성에 대한 압도적인 증거조차 사람의 돌이킴이 아니라 더 큰 미움만을 불러일으켰다는 것을 보여 주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이 낙원으로 가신다고 말씀하셨고, 부활 때에 그곳에서 돌아오셨습니다. 낙원에서 보내신 시간에 대해 그분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알려 주지 않으셨습니다. 제 결론은, 그것에 대해 무언가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관심은 내세가 아니라 이 세상, 곧 땅 위의 하나님 나라에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관심사는 주님께서 언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것인가였습니다. 부활 후 40일 동안 주 예수님께서 여러 시간에 걸쳐 그들과 그것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행 1:3). 여기서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성경 전체가 그 중심을 내세운 중간 상태에 두지 않고, 언제나 부활 때의 완성과 온 창조 세계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길의 완성에 둔다는 것입니다.

2.11.3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

위에서 확인한 것들이 임종 체험에 관한 어려운 질문들에 최종적인 답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현상들과 마주할 때 적용해야 할 원칙 하나를 밝혀냈습니다.

우리는 바울과 요한에게서, 그리고 다른 신자들에게서도 그들이 하늘과 낙원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봅니다. 요한은 생애 말년에 밧모 섬에 갇혀 있었습니다(계 1장). 거기서 그는 환상들을 받았고, 그것을 요한계시록에 기록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늘에서 겪은 일에 대한 체험 보고입니다. 요한은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께서 그에게 임하셨고, 그가 다른 세계로 들어가 거기서 부활하신 분을 만났다는 뜻입니다. 심지어 그가 하늘로 불려 올라갔다고도 말합니다. 그것은 꿈이 아니라 현실이었고, 그 현실이 그를 사로잡았기에 그는 본 모든 것을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그것은 임종 체험도 근사 체험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체험을 주셔서, 그들이 하늘과 천사들과 주 예수님 자신과 접하게 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 줍니다. 이사야(예를 들어 6장), 다니엘, 에스겔 등의 선지자들도 같은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의 경우에는 구약과 신약의 성경을 기록한 선지자로서 그들의 특별한 사역을 이루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일반적인” 임종 체험이 아닙니다.

바울의 경우도 그랬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이 참으로 내게 유익하지 않으나,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겠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는데, 그는 십사 년 전에(몸 안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고, 몸 밖에 있었는지도 나는 모르나, 하나님은 아신다) 셋째 하늘까지 이끌려 간 사람이다. 내가 이런 사람을 아는데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나, 하나님은 아신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할 수 없는 말, 곧 사람이 말해서는 안 되는 말을 들었다”(고후 12:1-4).

바울의 경우에는 임종 체험과 부활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고린도후서를 쓴 때와, 사도행전 14:19에 기록된 대로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은 때 사이에는 14년이 있습니다. 돌로 치는 일은 돌에 맞은 사람이 정말 죽었다는 것이 확실해지기 전에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바울이 죽었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를 성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냥 일어나서 - 여기서 제자들이 그를 소생시키려 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 다시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기적입니다. 바울이 다시 살리심을 받았거나, 아니면 저절로 다시 의식을 되찾은 것입니다. 그는 이 사건 동안 낙원으로 이끌려 갔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증명할 수도 없지만 배제할 수도 없습니다. 이 사도의 예는, 내세에서의 특별한 체험이 - 이 경우에는 신자들의 체험이 - 원칙적으로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 줍니다.

순교자 스테반도 꿈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열린 하늘을 보았습니다(행 7:55-56). 그 직후에 돌에 맞아 죽었지만, 그것은 임종 체험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계시를 오늘날에도 원칙적으로 배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2.11.4 임종 체험 - 천국과 지옥

오늘날 임종 체험이 많은 것은 대부분 소생을 가능하게 하는 현대의 기술적 수단 덕분입니다. 우리 사회의 고도의 기술화는 성경이 직접 다루지 않는 질문들을 제기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의 도움으로 그분의 말씀 안에서만

찾을 수 있는 답이나 원칙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 우리 시대의 질문들에 적용하기가 쉽지 않지만, 오늘날에도 여전히 시의적절하며 구속력이 있습니다. 살아 있고 성령께서 일으키신 성경 이해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시대에 적용하고 시대를 그 영적인 차원에서 분별하고 판단하는 데서 드러납니다(대상 12:32).

임종 체험과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극도로 부정적인 체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다른 만큼, 임종 체험에서 겪는 경험도 다릅니다. 사람들은 지옥 체험, 고통, 귀신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런 끔찍한 체험들은 베스트셀러들에서 다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긍정적인 체험으로 그려진 죽음의 아름다운 그림을 일그러뜨리고, 결국 지옥과 죄에 대한 형벌이 있을 가능성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겪은 일을 곧 다시 억누르고 잊어버리며, 다른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찾습니다.

롤링스(Rawlings) 박사¹¹⁸가 자세히 소개하는 이 정보에 비추어 보면, 모든 사람에게 천국이 있고 지옥은 교회가 지어낸 것에 불과하다는 말은 정의상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위에서 인용한 쿨블러로스(Kübler-Ross) 여사의 말은 진실이 아닙니다!

우리는 임종 체험이 내세의 두 장소 또는 두 상태를 모두 반영한다는 점에서 성경의 그림과 일치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마치 하데스와 낙원이 삶과 죽음 사이의 이 영역에 그 그림자를 미리 드리우는 것과 같습니다.

2.11.5 어둠의 미혹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과 아무 상관도 하려 하지 않는 사람들이 긍정적인 임종 체험을 하고, 내세에서 분명히 아주 잘 지내고 있는 천사 같은 존재들과 지인들을 만난다는 것은 우리를 의아하게 만듭니다. 그들은 그들에게 책임을 묻는 심판자를 만나지 않으며, 심지어 그들이 행한 악에 대해서도 감싸 주고 변명해 주는 대우를 받습니다.

118. Dr. med. Maurice S. Rawlings, *Zur Hölle und zurück, Leben nach dem Tod - überraschende Beweise*, Hamburg (Verlag C.M. Fliß), 1996.

그들이 만나는 존재들은 사랑을 발산하는, 친절하고 환하게 빛나는 존재들입니다. 이 존재들에 대한 우리의 판단은 분명합니다. 그들은 거짓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최고 우두머리인 마귀(고후 12:7; 계 12:8)의 전술을 흉내 내는 귀신들입니다. 마귀는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하며(고후 11:14), 그렇게 해서 자신의 부패한 의도를 사람에게 선한 것처럼 속여 보입니다.

내세와 맞닿은 경계에서 영들은 자기들의 악한 영향력을 행사할 때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영들이 - 죽음의 문턱에서만이 아니라 - 사람들에게 얼마나 가까이 머물러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 줍니다. 이런 보고들로 말미암아 악한 영들의 존재는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그들은 공중에 있으며,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다. 또 그들은 어떤 사람들을 사로잡아 그들 안에 거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특히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분이 고치시고 해방하신 일들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사람들에게 이렇게 씁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을 따랐으니”(엡 2:2). 그리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엡 6:12).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귀신들의 활동과 영향력을 자주 과소평가하지 않을까 염려합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그들은 이미 부분적으로 원수의 간계에 희생되었습니다. 이것은 인류의 생각을 겨냥한 엄청난 사탄적 공격입니다. 죽음의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그러나 그것은 뻔뻔한 거짓말입니다. 죽음을 무해한 것으로, 끝없이 아름다운 세계로 들어가는 입구로 그려 보이는 데 마귀 말고 누가 관심을 가지겠습니까?

가난한 나사로는 죽는 순간에 하나님의 천사들에게 이끌려 아브라함의 품으로 갔습니다. 이 천사들에 대해 우리는 이렇게 읽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히 1:14). 그러므로 그들은 이 세상과 내세의 경계에 함께 있습니다.

2.11.6 죽은 자를 불러내는 자는 주께서 가증히 여기신다

하나님께서 산 자와 죽은 자 사이에 분명한 경계를 세우셨습니다. 그분은 죽은 자와 접촉하려는 모든 시도를 금하십니다. 죽은 자를 불러내는 자들은 이 분명한 경계를 넘습니다. 그래서 이런 남자들과 여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은 매우 엄격합니다. “남자나 여자 가운데 죽은 자를 불러내는 영이나 점치는 영이 있으면 반드시 죽일지니,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레 20:27).¹¹⁹

이 말씀은 또한, 죽은 자와 교통하는 능력, 더 정확히 말하면 그런 시도가, 불러내는 자들을 사로잡은 악한 영들에 의해 이끌린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 줍니다(삼상 28:7-8).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그토록 엄하게 징죄하시는 데에는 이것도 큰 이유가 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드러나는 것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그 근원이 악의 나라에 있는 초자연적인 힘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악한 권세들의 영향입니다.

그러므로 이 영들이 미혹한다는 것도 분명합니다. 그들은 죽은 자들의 영을 불러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반역에 가담한 타락한 천사들이 죽은 자들을 마음대로 부릴 수 있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들의 능력은 해당되는 사람을 진짜처럼 흉내 내는 데 있습니다. 그들은, 달리는 알 수 없는 일들을 알아내려고 죽은 자를 불러내는 자들을 통해 죽은 자들과 접촉하려는 모든 사람을 속입니다. 이런 식으로 마귀는 이 세상의 신으로서 그의 영향력을 넓혀 갑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그분의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께 물으라고 촉구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지껄이며 속삭거리는 죽은 자를 불러내는 자들과 점쟁이들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물을 것이 아니냐?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묻겠느냐?”(사 8:19).

이와 관련하여, 예를 들어 퀴블러로스 여사처럼 많은 죽음 연구자들이 영들의 세계와도 깊이 교류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녀는 자기가 자주 교류한 자기의 영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죽음의 권세를 잡은 마귀는 죽음에

119. 또한 레위기 19:31; 20:6; 신명기 18:11, 12; 사무엘상 28:3; 열왕기하 21:6; 역대상 10:13 참조.

대한 사람의 두려움을 알고 있으며, 그것을 이용하여 죽음이 심판이나 죄의 결과가 아니라고 사람을 속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에게는 구속이 필요 없다는 것이 됩니다. 죽음을 이기신 분께서 그 구속을 이루셨는데도 말입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는 처음부터 미혹하는 자의 거짓말이었으며(창 3:4), 그는 이 거짓말을 감추기 위해 언제나 새로운 논리를 찾아냅니다.

많은 죽음 연구자들은 강신술사이며 뉴에이지 운동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미혹된 자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2.11.7 사울과 사무엘

사무엘상 28장에 나오는 사울과 엔들의 신접한 여인 이야기는 주목할 만한 예외입니다. 사울이 여기서 큰 잘못을 저질렀고 죽은 자를 불러내는 자들은 죽은 자들을 불러올릴 수 없지만, 이 경우에는 사무엘이 실제로 나타났습니다. 두 가지가 이것을 분명히 보여 줍니다. 첫째, 사무엘을 불러낸 것은 그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은 그 여인의 작용 없이 나타났습니다. 여인이 소스라치게 놀랐다는 것은, 여기서 그 여인이 늘 겪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그 여인은 상황을 통제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점치는 영에 의해 불러 나오는 일은 결코 없었을 것입니다. 둘째, 사무엘은 분명히 진실을 말했고, 그 진실은 사울이 이미 알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무엘 행세를 하며 사울에게 거짓말을 한 어떤 영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은 나중에 모세와 엘리야가 변화산에 나타난 것처럼 여기서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은 죽은 자들이 불러내는 자들이나 귀신의 영들에 의해 불러 나올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해 줍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으며, 성경이 기록하는 한 그분은 오직 여기서만 그렇게 하셨습니다. 산 자들이 사는 이 세상과 죽은 자들이 있는 저 세상 사이에는 그야말로 아무런 교류도 없습니다. 산 자들과 세상을 떠난 사람들 사이에는 깨뜨릴 수 없는 분리가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귀신들의 세계가 아닙니다. 귀신들의 세계는 이 세상과 접촉하려고 분명히 애씁니다. 그러나 귀신들은 세상을 떠난 사람들과는 더 이상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2.11.8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적 미혹

급속하게 진행되는 기술 발전으로 생겨나는 도덕적, 윤리적 문제들은 마지막 때의 표징입니다. 대부분 기술 덕분에 비로소 가능해진 임종 체험은 귀신들과 그들의 가르침에도 문을 열어 줍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딤후 4:1).

요한계시록에 묘사된 마지막 때의 사건들은 오늘날 이미 그 그림자를 미리 드리우고 있습니다.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계 16:14). 적그리스도의 영은 지금 이미 활동하고 있으며, 교회가 휴거된 뒤에는 일찍이 없던 규모로 온전히 펼쳐질 것입니다. 그는 표적과 기사를 행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어느 정도의 여지를 주셔서 사람들이 하나님께만 돌릴 만한 기적을 행하게 하실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썼습니다.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날 것이다.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그분이 오셔서 나타나심으로 그를 멸하실 것이다. 그 불법한 자가 오는 것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거짓 표적과 기적으로 하는 것이며, 멸망하는 자들에게 모든 불의의 속임으로 하는 것이다.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다”(살후 2:8-10).

제가 이 구절들을 언급하는 것은, 이 구절들이 바로 오늘의 상황을 묘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맞지 않는 임종 체험도 사탄의 마지막 때 계획에 속합니다. 그는 어떤 기회도 놓치지 않으며, 이것은 겨우 시작일 뿐입니다.

2.11.9 결론¹²⁰

그렇다면 우리는 임종 체험을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이 질문에는 한 문장으로 답할 수 없습니다. 임종 체험의 어떤 측면들은 매우 복잡하며 심리학,

120. 임종 체험을 더 자세히 다루고 싶은 분들에게는 존 앵커버그(John Ankerberg)와 존 웰던(John Weldon)의 책들을 추천합니다(참고 문헌 참조).

초심리학, 신비주의의 문제들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분명한 판단에 이르도록 도와줄 몇 가지 근본적인 확인으로 이 장을 마치겠습니다.

임종 체험을 한 사람들, 곧 “돌아온” 사람들에게 죽음은 되돌릴 수 없는 죽음이었습니 다. 그러므로 그들의 체험은 내세에 대해 실제로 알려 주지 않습니다.

그들은 천국에도 지옥에도 있지 않았습니다. “죽어 가는 것”은 “죽어 있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뮌헨으로 가다가 같은 길로 되돌아왔다고 해서, 뮌헨에 도착했다거나 더욱이 거기서 산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들이 겪은 것이 천국이나 지옥에 해당했다면,¹²¹ 우리가 다루는 것은 성경이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 삶과 죽음 사이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그런 체험에 관한 많은 증언에 근거하여, 우리는 영혼이 짧은 시간 동안 몸을 떠나는 영역에서¹²² 영들이 영혼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일 수도 있지만, 귀신들, 곧 사탄의 사자들일 수도 있습니다(고후 12:7). 사탄의 미혹은, 이 사람들이 잃어버린 자들인데도 그들에게 천국을 거짓으로 보여 주는 데 있습니다. “내세”에서 가지고 온 정보는 거의 대부분 성경의 진리와 맞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는 그리스도인들 앞에서도 멈추지 않는 귀신의 미혹이 특징입니다. 보고되는 것 가운데 많은 것에는 저자들과 이른바 연구자들의 희망 섞인 생각이 스며 있고, 다른 것들은 그저 사기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른바 죽음 연구자들의 세계관은 뉴에이지 운동, 신비주의, 동양의 종교와 철학에 해당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이 사람들은 사탄의 미혹에 속수무책으로 내맡겨져 있습니다.

신앙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임종 체험을 한다면, 언제나 지켜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의 정경은 닫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미 알지 못하는 무언가를 계시해 줄 새로운 지식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 체험을 한 그리스도인들은 신학적인 결론을 이끌어 내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 체험을 통해

121. 임상적으로 죽었지만 아무것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122. 비슷한 경험은 약물로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반드시 죽음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죽음을 체험하지 않고도 자기 몸 밖에 있는 경험을 한 사람들에게 대한 보고는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들의 개인적인 영적 삶과 관련하여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는지 스스로 물어야 합니다.

우리가 영들을 분별하고(고전 12:10; 요일 4:1) 분명하고 성경적인 입장을 취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더 깊이 생각해 볼 질문

- 죽었다가 다시 돌아왔다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 다른 한편으로 “결국 아직 아무도 돌아온 적이 없지 않습니까!”라는 반론에는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 임종 체험은 왜 천국과 지옥에 대해 알려 주지 않습니까?
- 임종 체험을 한 그리스도인은 그 체험에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 임종 체험은 왜 새로운 지식을 드러낼 수 없습니까?

3 성경의 인간관

“영-혼”이라는 개념을 사용한 이상, 성경의 인간관을 살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애초에 사람과 사람을 이루는 것을 살펴보지 않으면 “죽음”과 “영혼 불멸”이라는 주제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는 제한된 범위에서, 우리의 주제와 관련하여 그것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한 곳에서 사람에게 대해 포괄적으로 말하는 인간학¹²³ 교과서가 아닙니다. 게다가 성경은 사람에게 대해 신학자나 심리학자의 언어로 말하지 않고 일상의 언어로 말합니다. 성경의 언어는 다채로우며, 같은 표현을 여러 뜻으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주제가 어렵고 방대한 것은 그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체를 조망하려면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주제가 어렵고 이에 대해 여러 견해가 있다 하더라도, 신자는 이 주제를 다루는 일을 그만두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바로 그 자신에 관한 문제, 곧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지으셨고 어떻게 원하셨는가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지혜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 주제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드는 사람은 사람의 본질적 요소들을 묘사하는 여러 개념을 발견할 것입니다. “마음, 영, 혼, 쿡팔, 뼈, 육체, 몸, 생각, 양심, 마음가짐, 뜻” 같은 말들입니다. 이 개념들은 그 본문의 문맥 안에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 개념들이 다양한 뜻과 번역으로 쓰인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연구의 끝에, 티 없이 깨끗하고 명확한 정의를 갖춘 해답이 놓여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핵심 개념들은 더 분명해질 것이고, 우리는 많은 개념을 더 잘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123. 사람에게 관한 가르침.

인간관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일반적인 구조나 질서를 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¹²⁴

제 연구는 그 자체로, 모든 맥락에서 떨어져 이루어지는 방대한 연구도 아닙니다. 이 연구는 특히 사람이 죽은 뒤에는 어떤 방식으로든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잘못된 견해를 염두에 두고 이루어집니다. 그 견해는 사람에게 몸과 구별되는 요소로서의 혼과 영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사람은 오로지 그 전체성과 통일성으로만 여겨지며, 그 통일성은 죽음으로 파괴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죽음은 부활 때의 새 창조까지 비존재를 뜻합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인격이 자리하는 곳이요 그 중심인 영과 혼은 일시적인 것이며, 몸처럼 덧없다는 것이 됩니다.

저는 이미 죽은 뒤에도 의식이 있다는 것을 자세히 밝혔으므로, 이런 잘못된 견해들이 성경의 인간관과 맞지 않는 인간관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은 놀랍지 않습니다.

3.1 사람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이미 암시한 것처럼, 구약과 신약에는 사람의 본질적 구성 요소들을 가리키는 여러 개념이 있습니다. 그리고 첫째 자리에 있는 것은 “영”과 “혼”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다른 어떤 개념보다 사람의 본질을 잘 묘사하는 “마음”입니다. “마음”은 성경에 천 번 넘게, 그것도 여러 뜻으로 나옵니다. 사람의 마음은 - 피를 뿜어내는 속이 빈 근육인 심장이 아니라 - 비유적인 의미에서 사람의 중심이며, 그의 가장 깊은, 그래서 숨겨진 본질입니다.

사람은 창조의 면류관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매우 복합적인 존재입니다. 사람을 두세 가지 요소로 나누는 것은 너무 단순할 것입니다. 사람은 분해할 수 있는 “실체들”로 이루어져 있지 않고, 여러 측면을 지닌 하나의 통일체를

124. 이 연구에서는 근본적으로, 사람이 그 구성 전체에서, 곧 그의 모든 본질적 요소에서 죄의 영향 아래 놓이게 되었으며, 그러므로 그 가운데 어느 것도 중립적이거나 죄의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을 전제해야 합니다. 여기서 일반적인 인간관들이 성경의 인간관과 극명하게 대립한다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창조주를 알지 못하고 그래서 그분의 계시를 거부하는 심리학자들과 철학자들에게서는, 인간의 타락이나 창조주 앞에서의 책임을 고려하는 답을 거의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롭니다. 하나의 측면¹²⁵은 어떤 관점이나 시각에서 사람을 묘사합니다. 우리는 시간을 넘어서는 측면에서 사람을 살펴봅니다. 우리의 질문은 죽을 때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입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이 질문이 흔히 “영”과 “혼”이라고 불리는 본질적 요소 또는 본질적 측면들과 맞닿아 있다는 점입니다.¹²⁶ 다른 어떤 개념보다도 성경의 대표적인 인간학적 개념인 마음은 이 맥락에서 거의 또는 전혀 언급되지 않습니다.

제 연구의 출발점으로 두 성경 구절을 들겠습니다. 하나는 사람의 창조로 거슬러 올라가고, 다른 하나는 미래를 가리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창 2:7), 그리고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전되기를 원하노라”(살전 5:23).

이 구절들에서 우리는 사람의 기원, 곧 창조와 관련하여, 그리고 그의 미래와 관련하여 “영”, “혼”, “몸”이라는 개념을 발견합니다. 바울은 주님의 강림에 대해 말하며, 그에게 이 성경 구절에서 사람 전체는 영과 혼과 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라는 표현은 이 진리를 분명히 강조합니다. 본질적 요소들의 이런 “질서”는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단 한번, 바로 여기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 구절에서 사람을 오로지

125. 이에 대해서는 W.J. Ouweneel, *Psychologie, Ein Bibelorientiert-Wissenschaftlicher Entwurf*, Dillenburg (CVD), 1993, 61-67쪽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126. 예를 들어 창세기 8:21; 신명기 6:5; 26:16; 잠언 4:23; 마태복음 22:37; 마가복음 7:21; 로마서 1:21; 2:15; 10:9.

셋으로 나누는 견해를 이끌어 냅니다.¹²⁷ 그렇다면 사람의 마음은 어디에 있으며, 위에서 말한 다른 모든 개념은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바울은 사람을 일반적으로 이 세 측면에 한정하지 않습니다. 그도 그의 편지들에서 다른 개념들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그는 미래를 내다보며, 사람 전체가 그 다양함 가운데, 그 모든 측면에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보전된다고 말합니다.

바울에게는 미래와 관련하여 사람에 대해 이런 시각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의 시각은 창세기 2:7에서 출발하여 사람의 구성에 대해 무언가를 말하는 구약의 모든 성경 구절을 이어받아 요약한 것에 다름 아닙니다. 달리 될 수도 없습니다.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진 성경은 하나님께서 함께 엮으신 하나의 통일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인간관은 이미 구약에 주어진 하나님의 계시와 온전히 일치합니다. 그것은 새로운 인간관이나 더욱이 그리스적인 인간관이 아니라, 굳이 말하자면 히브리적 또는 유대적 인간관입니다.

바울은 일정한 순서를 말하며, 거기서 사람의 영을 첫째 자리에 둡니다. 그렇다고 해서 몸이 마지막 자리에 있다는 이유로 그 가치가 낮아지는 것은 아닙니다.¹²⁸ 왜 이 순서가 선택되었는지는 사람의 창조에서 드러납니다. 거기서 영(생기)은 사람을 비로소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 되게 하는 본질적인 요소입니다.

127. 성경적인 의미에서 사람이 이분법적(두 부분)으로 존재하는지 삼분법적(세 부분)으로 존재하는지에 관한 오래된 논쟁을 저는 여기서 다루지 않습니다. 저는 혼과 영이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둘 사이에 이런 분명한 경계가 없다고 보는 접근을 선호합니다. 그러므로 다음의 확인이 도움이 됩니다. “그러므로 기능적으로 보면, 살아 있는 사람의 전체성을 고려할 때 예를 들어 데살로니가전서 5:23에서처럼 영과 혼과 몸을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실체적으로 보면 사람은 두 ‘부분’, 곧 영-혼이라는 초월적인 부분과 몸이라는 내재적인 부분으로만 이루어져 있다는 점은 변함이 없다. 그러므로 실체적 이분법과 기능적 삼분법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혼은 몸과 영에서 독립된 고유한 존재를 가지지 않는다. 그렇다고 혼이 영과 완전히 같은 것도 아니며, 언제나 - 사람이 죽은 뒤에도 - 구별될 수 있다”(Roland Antholzer, *Geist, Seele und Leib - der Mensch in seiner Beschaffenheit*).

128. 그렇지만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유의해야 할 순서입니다. 몸의 필요는 불필요한 짐이 되어 영적 성장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고전 9:27)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몸에 이끌리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으로 새롭게 되는 자기 영에 이끌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의 몸은 그의 영의 도구가 되어 그의 생각을 따라야 했고, 그 반대가 되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3.2 사람의 영

사람의 창조에 관한 구약의 핵심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창 1:26-27).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창 2:7).

여기서 우리는 처음에는 생명이 없이 땅의 흙으로 빚어진 첫 사람을 봅니다. 그다음에 창조 이야기에서 유일무이한, 생명을 불어넣는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십니다. 그 결과는 흙으로 지어진 물질적인 몸을 가진 살아 있는 사람이며, 그는 피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자기 안에 하나님의 생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생기는 그의 안으로 들어가 거기에 머무르며, 그로써 그의 구성¹²⁹에 속하게 됩니다. 생기는 그를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 되게 합니다.

3.2.1 생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서 주신 생기는,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도 말하는 사람의 영에 해당합니다.¹³⁰ “숨”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로 번역됩니다. 이 말은 뜻의 폭이 넓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 사람과 동물에 대해 쓰입니다. 그 뜻 가운데 하나는, 생명의 숨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 영은 동물과 달리 사람에게 그의 구성에서 가장 본질적인 요소로 불어넣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영을 통해¹³¹ 사람은 독립된 인격체, 곧 하나의 “나”가 되며, 그로써 하나님께 하나의 “너”가 됩니다. 우리에게 아주

129. 구성, 성질, 질서.

130. 이것은 구약에서 여러 번 입증됩니다. 욥기 27:3; 32:8; 33:4, 6; 34:14, 15; 이사야 42:5; 57:16; 열왕기상 17:17, 21을 시편 104:29, 30 및 에스겔 37:1-14와 함께 보십시오.

131. “하나님에게서 온 영”을 우리가 신성의 셋째 위격이라고 부르는 성령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온 영이지만, 인격으로서가 아니라 생명을 주는 힘으로서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서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익숙한 “인격”이라는 개념은 바로 여기에 그 기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한하시면서도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며, 사람을 지으시고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하나의 인격체이며, 그의 인격은 하나님의 인격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3.2.2 하나님에게서 온 영과 사람의 영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이 사람의 영을 빚음으로써 사람을 인격체로 만든다면, 우리는 이 영의 두 측면을 분명히 구별해야 합니다. 이 두 측면은 우리의 주제에 매우 중요합니다. 첫째,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영이며 언제까지나 그러합니다. 그렇다고 사람이 하나님과 같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이 영을 선물로, 주시는 분께 의존하여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나무의 잎사귀들이 나무와 연결되어 있을 때에만 힘과 생명을 가지는 것과 같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에서 그리스인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소생”이라고 말할 때(행 17:28-29), 그 말도 이런 뜻으로 이해해야 합니다(누가복음 3:38의 예수님의 족보를 참조하십시오. 거기서는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인류의 근원으로 계십니다. “아담이요, **하나님이시니라**”).

둘째 측면은 이 영이 사람 안에서 고유하게 존재한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온 영은 사람 안에서 그를 인격체로 만드는 **사람의 영**이 되었습니다(롬 1:9; 고전 16:18; 고후 2:13; 7:13; 빌 4:23; 딤후 4:22; 몬 25).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쇠약해지는 “그들의” - 곧 사람의 - 영(숨)에 대해서도 말합니다(사 57:16). 여기서 그것은 쇠약해질 수 없는 하나님에게서 온 영과 달리, 연약하고 덧없는 사람의 영입니다.

영은 사람의 가장 깊은 본질입니다(시 32:2; 마음이라고도 불립니다: 막 7:20-23; 사 57:15; 고전 7:34)¹³². 영은 주체의 중심이며, 인격체로서의 “나”입니다(사 26:9). 하나님에게서 온 이 영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하며 (“하나님은 영이시니”, 요 4:24),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사람다움을 이룹니다.

132. 고린도후서 4:16의 “속사람” 참조. 그러나 거기서는 신자의 새 생명을 묘사합니다.

영은 흔히 생각하듯이 사람의 지성이 아닙니다. 이런 견해는 그리스 철학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거기서 영은 “지성”이나 “인식”과 같은 뜻입니다. 이런 견해는 성경의 독특한 인간관을 흐리게 합니다. 영은 생각하기도 하고 느끼기도 하지만, 성경은 스스로 “영”과 “지성”의 차이를 분명히 드러냅니다. 우리가 지성에 속한 것으로 여기는 생각은 영의 기능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잠 20:27; 고전 2:11; 14:14; 사 29:24).

사람의 영은 또한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는 “자리”입니다. 영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일하시는 접점이고 안테나입니다(잠 20:27). 그래서 예를 들어 성령께서 우리의 영(곧 사람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언하십니다(롬 8:16).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건네시는 대상은 사람 전체입니다. 영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입구이지만, 사람이 하나님께 복종할 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자신을 드리는 것은 사람 전체입니다.

사람의 영은 신자에게나 불신자에게나 사람의 본질적인 부분입니다(창 41:8; 45:27; 스 1:1, 5; 단 6:3). 그러나 성령이 없으면 사람의 영은 육신에 속해 있어서(롬 8:4-8)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죄에 빠진 사람과 그의 영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는 것은 여러 종교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가운데 사람은 그의 창조주께 나아가지 않고, 그 뒤에 귀신들이 있는 우상들에게 나아갑니다.

우리의 고찰에서 핵심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이 불멸이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람의 영의 불멸이 명시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숨이 죽을 수 없다는 사실에서 나옵니다. 그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숨, 곧 그분의 영입니다(롬 16:26). 그러나 모든 사람이 처음부터 자기 안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숨은 신성의 한 위격이신 성령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만 성령께서 그들 안에 거하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숨은 하나님의 영이라는 위격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에 해당하며 그래서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힘인 하나님의 숨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이 숨은 그 본질과 “실체”에서 하나님에게서 온 것입니다. 사람이 이 영을 가지고 있다면, 그의 영도 - 언제나 영원하신 하나님께 의존하여 - 불멸하는, 곧 시간을 넘어서는 것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다시 말하겠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숨을 선물로 가지고 있으며, 그것은 그가 사람인 데 결정적입니다. 하나님의 숨은 그 고유한 존재 안에서 동시에 사람의 인격을 이룹니다. 그러므로 죽음과 관련하여 사람의 영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알아보는 것은 흥미롭습니다.¹³³ 자주 인용되는 전도서의 고전적인 구절은, 흠, 곧 사람의 몸은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말합니다(전 12:7). 여기서 영은 몸의 죽음과 썩음보다 오래 남는, 쇠하지 않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이 영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하나님에게서 온 영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사람의 영입니다. 그 안에 그의 인격과 그의 자의식이 있습니다. 영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그와 함께 사람의 영, 곧 그 인격이(몸의 생명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며, 하나님께서는 그를 받으십니다. 심판을 위해서든 복을 위해서든 그렇습니다.

사람의 영은 몸에 매여 있지 않으며, 죽을 때 몸처럼 없어지지 않습니다. 시편 기자가 영이 나가서 흠으로 돌아간다고 말할 때(시 146:4),¹³⁴ 이로부터 인격이 몸에 매여 있고 “나”를 이루는 것이 흠이 된다고 결론지을 수는 없습니다. 사람의 인격은 그의 영에 매여 있으며(고전 5:5), 몸이 죽어 썩어도 존재하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신약은 야이로의 딸의 영이 죽은 소녀에게 어떻게 돌아왔는지(눅 8:55; 약 2:26), 그리고 스테반이 어떻게 자기 영을 주 예수님의 손에 맡겼는지를(행 7:59; 눅 23:46; 시 31:5 참조) 보여 줍니다. 베드로도 이런 뜻으로 지금 옥에 있는 영들에 대해 말합니다(벧전 3:19). 한편으로 그들은 그 사람들 자신이며, 다른 한편으로 그들은 죽었기 때문에 영적인, 곧 비물질적인 상태에 있습니다(히 12:23).

3.2.3 요약

성경의 영 개념은 다른 인간관들의 영 개념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영은 사람의 영혼을 영-혼으로 높이며, 사람을 인격체로 만듭니다. 영은 사람의 정체성을 보증합니다. 영은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동물과 구별합니다.

133. 1.7.1 단락 참조.

134. 시편의 이 구절은 “영”이라는 개념이 여러 뜻을 가지고 있으며, 여기서는 예를 들어 그저 “숨”을 뜻한다는 증거입니다.

사람에게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실 수 있고, 사람도 하나님께 말할 수 있습니다. 영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영이기 때문에 영원히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더 높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향해 있는 영원한 존재입니다.

3.3 사람의 영혼

바울은 사람의 영과 몸 사이에 혼(영혼)을 언급합니다. 성경에서 영과 혼은 몇 번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각 개념이 홀로(벧전 2:11; 빌 1:27) 속사람(고후 4:16; 시 103:1), 곧 사람의 비물질적이고 보이지 않는 측면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두 개념은 서로 구별되기도 합니다(히 4:12; 살전 5:23).

영혼은 사람과 동물의 물질적 유기체에 생명을 주는 생명을 뜻할 뿐이라는 지적이(마 2:20; 16:25-26; 눅 12:22 참조) 자주 있었지만,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영혼이라는 말에 그런 뜻도 있지만, 이 말은 영이라는 말에 견줄 만큼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혼은 흔히 “생명”이라는 단순한 뜻과 구별됩니다. 영혼도 사람의 영과 마찬가지로 사람의 본질적인 구성 요소이기 때문입니다(욥 19:2; 잠 3:21-22; 마 10:28; 눅 12:20; 벧후 2:8).

그래서 예를 들어 영혼이 잘되는 것은 몸과 그 생명이 잘되는 것과 대비되며, 그래서 그것과 분명히 구별됩니다(요삼 2). 사람들은 몸은 죽일 수 있어도 영혼은 죽이지 못합니다(마 10:28). 이 구절에서 영혼이 생명이라면, 영혼은 몸의 생명과 함께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서는 이 구절에서 영혼을, 몸이 죽어도 죽지 않는 사람의 본질적 요소로 분명히 규정하십니다. 주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영혼은 사람의 한 요소로서 그의 영과 몸과 분명히 구별됩니다(눅 17:33; 벧전 2:25; 행 14:22 참조).

사람의 한 부분인 영혼은 영과 나란히 사람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의 수를 셀 때 “영혼”이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창 46:25, 26, 27; 행 2:41 참조).

영혼은 사람 안에서 영과 함께 인격을 이룹니다(눅 9:24; 히 6:19; 10:39). 영혼은 - 영처럼 - 사람의 “나”를 나타냅니다(고후 1:23; 사 53:11; 애 3:24).

영혼이 영과 몸 사이에서 일종의 중간 위치를 차지한다면, 영혼은 한편으로 영과 관련되어 있으며,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영-혼”이라고도 부릅니다. 다른 한편으로 영혼은 몸, 곧 겉사람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영혼과 몸의 관계는 육체의 생명(영혼)이 피에 있다는 말씀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레 17:11; 신 12:23). 사람과 동물의 영혼은 피와 연결되어 있습니다(창 9:4-5). 그래서 사람의 죽음을 영혼을 쏘는 것이라고도 표현합니다(시 141:8; 사 53:12). 영혼은 몸과 아무리 다르다 해도 몸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이것은 영에게는 이런 형태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창조에 대해 그가 생령, 곧 살아 있는 영혼이 되었다고 말하며, 동물도 살아 있는 영혼(생물)이라고 불립니다(창 1:20, 21, 24; 2:19; 9:10).

사람이 그 전체로 살아 있는 영혼이 되었다는 것은 바로 영혼과 몸의 밀접한 관계를 드러냅니다. 거기서 문제가 된 것은 흙, 곧 죽은 물질에 생명을 주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뜻에서, 그리고 오직 이런 뜻에서만 동물도 “살아 있는 영혼”이라고 불립니다. 동물의 영혼은 창조주께서 붙여넣으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경우에는 바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동물과 사람의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레 24:17-18).

구약에서는 시체도 (히브리어로) “영혼”이라고 불립니다(민 5:2; 6:6, 11; 19:11, 13). 여기서 영혼은 사람의 몸과 형체를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몸은 동시에 영혼의 겉모습이기도 하지만 영혼의 실체는 아닙니다. 곧 시체가 영혼인 것은 아닙니다. 시체가 영혼일 수 없는 것은, 사람이 죽을 때 영혼이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창 35:18). 죽은 사람의 몸과 관련하여 “영혼”이라는 개념은 순전히 몸으로 된, 물질적인 영혼의 형체, 그러나 영혼이 없는 형체를 뜻합니다.

몸과 영혼의 이런 밀접한 연결은, 영혼이 사람이 죽은 뒤에도 “자기” 몸의 형태와 형체에 매여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러므로 영혼은 (누가복음 3:22의 뜻에서) “몸의 형체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중간 상태의 이 “몸”은 더 이상 물질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혼은 죽은 뒤에도 사람의 형체로 나타나며, 그런 형체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영혼을 보는 것(계 6:9; 20:4)이 이해가 됩니다. 영혼이 생명일 뿐이라면, 그가 무엇을 보았겠습니까? 그는 분명히 사람의 형체들을 보았고, 그들을 사람으로 다시 알아보았습니다. 요한이 영혼들을 사람의 형체로 알아보았다는 것 이상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그들이 지닌 영적인 몸의 모습에 대해 결론지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하려는 것은, 죽은 뒤에 알아볼 수 있다는 것이, 땅에서 물질적인 몸을 통해 그러하듯이, 사람의 겉모습과 관련이 있다는 점입니다.

죽은 뒤에도 영혼이 계속 존재한다는 이런 고찰은 불멸의 문제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영혼이 몸의 죽음 뒤에도 살아남는다는 것은 분명히 밝혀졌습니다. 영혼이 불멸하는지, 곧 영원히 존재하는지는 오직 영과의 연결 속에서만 답할 수 있습니다. 불멸하는 영이 영혼 안에 거하며, 사람의 구성에서 영혼과 떼려야 뗄 수 없이 연결되어 있고, 두 개념이 흔히 하나요 같은 것을 표현하므로, 사람의 영혼도 영-혼으로서 불멸해야 합니다. 영혼은 그 자체로 불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자체로 불멸하시기 때문입니다. 영혼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그것이 죽지 않고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불멸합니다.

3.3.1 요약

“영혼”이라는 말의 다층적인 뜻(구약에서 755번) 때문에 정의를 내리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바로 이 풍부함에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사람의 영혼은 그의 본질적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영혼은 영-혼이며, 그로써 영-혼이 아닌 동물의 영혼과 구별됩니다. 영혼은 영과 몸을 잇는 고리입니다. 영혼은 인격과 개인의 “나”로서의 삶이 자리하는 곳입니다. 영혼은 그 안에 거하는 영으로 말미암아 불멸하며, 몸의 죽음을 넘어 사람을 인격체로 보존합니다. 여기서도 - 사람의 영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 사람이 영원한 존재라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3.4 사람의 몸

몸도 사람의 본질적 요소입니다. 사람의 보이는 부분은 보이지 않는 부분보다 우리가 훨씬 이해하기 쉬우며,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대로 몸을 주셨습니다(고전 15:38). 몸은 - 인간의 타락 이후에도 - 하나님의 지혜의 표현이며, 우리가 지음받은 놀라운 방식에 대해 우리를 거듭 놀라게 합니다(시 139편). 살과 피로 된 몸(히 2:14)은 보이는 세상에서 우리의 존재를 가능하게 하고 규정합니다. 우리는 몸으로 세상을 겪고 경험하고 느낍니다.

죄를 통해 이 세상에 들어온 죽음으로 말미암아, 몸, 곧 육체는 죽음과 덧없음에 굴복하게 됩니다(롬 6:23; 사 40:6-8; 벧전 1:24). 죽음 너머를 보지 못하는 자연인의 관점에서 보면, 사람은 - 전도자가 말하는 것처럼 - 짐승과 같은 운명을 맞습니다. 그는 다시 흠이 됩니다(전 3:19). 이 세상의 외형(고전 7:31; 사 51:6), 곧 보이는 것 전체(고후 4:18)가 사라지는 것처럼, 겉사람도 남아 없어집니다(고후 4:16).

몸은 죄의 도구도 되었습니다(롬 6장). 그래서 바울은 죄에 종노릇하는 사람의 무력함에 대해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롬 7:24).

그러나 그것이 몸은 죽음을 통해서야 비로소 풀려날 수 있는 감옥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 철학의 관점이며, 몸에 대한 성경의 관점과 완전히 반대됩니다(4장 참조). 하나님의 눈에 몸이 어떤 가치를 지니는지는 세계 역사에서 가장 큰 비밀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셨습니다(딤후 3:16).

요한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말합니다(요 1:14). 주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을 위해 한 몸이 예비되게 하셨으며(히 10:5), 그것은 그 몸을 십자가에서 제물로 죽음에 내어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히 10:10). 그분이 죽으셨을 때, 제물로 드리신 그분의 몸을 영원히 벗어 버리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완전한 사람이시며 영원히 그러하시기 때문에, 부활 때

영화롭게 된 몸을 받으셨습니다. 그 몸은 동시에 모든 신자의 본이 됩니다. 신자들은 변화와 부활 때 같은 영광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빌 3:21; 롬 8:23). 신자들의 몸은 구속을 통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 되었습니다(고전 6:19). 성령 하나님께서 그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몸은 죄 때문에 죽을 몸이기는 하지만, 지금 땅 위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도구입니다(롬 12:1-2; 고전 6:20). 사람 전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드러졌습니다.

신자들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혹시 다른 존재 형태를 더 좋아하셔서 몸을 버리시거나 남겨 두시는 것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손에서 완전하게 나왔지만 죄 때문에 일그러지고 부패한 것이, 언젠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근거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회복될 것입니다.

신자들이 아들 된 것은 몸이 구속될 때에야 비로소 온전히 이루어집니다(롬 8:23).

영과 혼과 몸, 곧 사람 전체는 창조 때부터 영원을 향해 지어졌습니다. 몸은 부활 때에야 비로소 불멸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음”의 반대말인 “불멸”이라는 개념도 **부활한** 몸에만 해당됩니다(롬 8:11). 몸은 죄 때문에 “죽을” 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영혼 불멸”을 말하지 않습니다. 몸의 경우에는 분명히 그렇지만, 영혼은 죽을 것이었던 적도 없고 죽을 것이 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3.5 결론

이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사람을 영과 혼과 몸의 **통일체**로 압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사귀 가운데 살도록 정해진 본분에서 떨어졌다 하더라도, 창조에서 드러나는 성경의 인간관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약 3:9).

이와 관련하여 저는, 이 세 측면이 떼려야 뗄 수 없는 통일체를 이루며 사람을 그 전체로 나타내고, 이 전체성은 죽을 때까지 유지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죽음은 몸과 영-혼을 일시적으로 분리합니다. 부활을 통해 사람의 이 통일성은 회복됩니다.

사람은 영원한 존재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한 부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원하시고 이루신 대로, 그 통일성과 동시에 여러

측면에서의 다양성을 지닌 사람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더 깊이 생각해 볼 질문

- 성경의 인간관은 왜 독특합니까?
- 성경이 그 인간관을 위해 사용하는 개념들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 중심이 되는 개념은 무엇이며, 왜 그렇습니까?
- 사람의 영은 왜 불멸합니까?
- 사람의 영의 주요 특징 몇 가지를 말해 보십시오!
- 영혼의 주요 특징 몇 가지를 말해 보십시오!
- 사람의 몸의 주요 특징 몇 가지를 말해 보십시오!

4 영혼 불멸

저는 “영혼 불멸”이라는 개념을 이미 여러 번 사용했으므로, 이제 이 개념에 한 장을 따로 할애하려고 합니다. 근거 없는 오해와, 안타깝게도 부당한 비난까지 걷어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개념은 많은 그리스도인을 양쪽으로 갈라놓습니다. 이 개념은 교회 역사 속에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방대하고 격렬한 논의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런데도 이 개념은 기독교계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것만으로 이 개념이 옳다는 것이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 영혼 불멸에 대한 이해가 어떻게 변해 왔는지 추적하는 것은 방대하고 흥미로운 주제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 의도가 아닙니다. 일찍부터 뚜렷해진 서로 다른 입장들이 오늘날까지 본질적으로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¹³⁵

주목할 만한 것은, 성경이 “영혼 불멸”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지도 않고 그 사실에 대해 직접 말하지도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이 개념이나 그것을 풀어 쓴 표현이 없다고 해서, 이 개념에 담긴 진리를 거부할 이유는 되지 않습니다. 성경이 언급하지 않는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삼위일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심, 옛 본성에 대해 말합니다. 그런데도 이 개념들은 진리를 옳을 뿐만 아니라 유익한 방식으로 표현합니다.

영혼 불멸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우리가 이교적인 개념, 이 경우에는 그리스인들의 개념을 다루고 있다고 옳게 지적합니다. 그리스인들의 사고에는 영혼 불멸이 있었습니다. 덧붙여 말하면 그들은 죽은 자들이 있는 곳과 죽은 자들의 세계를 다스리는 신을 가리켜 “하데스”라는 개념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영혼 불멸”이라는 개념의 기원만을 이유로 죽은 뒤와 영원 속에서의 의식 있는 삶을 거부하는 사람은 반대편 극단으로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적 사고의 영향에 맞선 싸움이 때로 너무 격렬해서, 그 때문에 하나님 자신의 불멸

135. 예를 들어 *Texte der Kirchenväter*, München (Kösel Verlag), 1966, 1, 4, 5권.

외에는 어떤 불멸도 곧바로 부인되고, 말하자면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 됩니다.

저는 여기서 이 개념을 고집하거나 그 용어를 변호하거나, 더욱이 그것을 기독교화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혼 불멸을 성경적인 의미에서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입니다.¹³⁶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이교 철학에 문을 조금이라도 열어서는 안 됩니다.

“영혼 불멸”은 영혼이 몸과 달리 죽지 않는다는 뜻입니다(마 10:28).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에 영원을 두셨다는 데에(전 3:11) 근거하여, 그리스인들도 어느 정도의 진리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믿음은 모든 고대 문화의 구성 요소였습니다. 사람들은 진리를 알지만,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불의로 진리를 막고 억누릅니다(롬 1:18-32).¹³⁷

4.1 영생과 영혼 불멸

영혼 불멸에 대한 한 가지 반론은 이런 질문으로 나타납니다. 사람이 자연적인 영혼 불멸을 가지고 있다면, 왜 그에게 영생이 또 필요합니까?

이 질문에서 분명해지는 것은, 영생과 영혼 불멸을 하나요 같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이해입니다. 두 가지는 근본적으로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2.9.2 단락 참조). 모든 사람은 죽지 않는 영혼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러나 그는 아담의 후손으로서 죄인이기 때문에 그의 존재 전체에 죄가 스며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새” 생명이 필요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제 대답은 이렇습니다. 사람에게에는 그의 죽지 않는 영혼, 곧 그의 영원한 존재에 “더하여” 영생이 필요합니다. 그는 본래 피조물로서 이미 영원한 존재를 가지고 있으므로, 끝없는 생명이 다시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영원한 존재보다 훨씬 더 큰 “영생”입니다. 그에게는 영생과 함께 받는 “새로운” 존재가

136. 그리스인들의 사상도 알지 못하고 원어에 대한 지식도 없는 성경 독자가, 우리가 2장에서 살펴본 성경 구절들을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그에게 “영혼 불멸”은 트로이의 목마도 아니고 이교 사상이 몰래 스며드는 것도 아닙니다. 그는 2장에서 밝힌 내용의 틀 안에서 이 개념을 얼마든지 성경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그런 뜻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신약에 비추어 보면 이 개념은 정당성을 가집니다. 이 개념이 반드시 이교적인 사상을 실어 나르는 것은 아닙니다.

137. 또한 Don Richardson, *Ewigkeit in ihren Herzen*, Lahr (Verlag der Liebenzeller Mission), 1999 참조.

필요합니다. 그는 새로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요 1:12-13; 3:1-21).

영생을 가지지 않은 사람도 영원한 존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없는 영원한 존재입니다. 그는 땅에서의 삶에서 하나님 없이 살고, 하나님 없이 죽으며, 다시 살아난 뒤에 하나님 없이 영원히 계속 살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사람이 영원히 존재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서 영원히 존재하느냐입니다. 모든 사람은 영원한 존재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을 통해 하나님과 사귄 가운데 있는 새롭고 영원한 존재를 가지고 있습니다. 불신자는 하나님 없는 영원한 존재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가 그를 하나님에게서 갈라놓기 때문입니다.

4.2 신약의 불멸

“불멸”(헬라어 *atanasia*)이라는 말은 신약에 세 번만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6:16은 하나님께 “오직 … 죽지 아니함이 있고”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인 의미에서 그 자체로 불멸을 가지고 계십니다. 불멸은 이런 형태로는 오직 하나님만 가지신 속성입니다.¹³⁸ 아무도 그것을 그분께 드린 것이 아니며, 아무도 그것을 그분에게서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분은 “영원히 계신 분”(출 3:13-14)이시며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롬 16:26)이시기 때문에, 불멸은 그분의 본질적인 소유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불멸은 그분에게서 비롯되며, 오직 그분만이 불멸을 주실 수 있습니다.

이로부터,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불멸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께서서는 천사들에 대해 그들이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눅 20:36). 달리 말하면 그들은 불멸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외에 누군가 불멸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불멸을 가지고 계신다는 말씀과 모순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천사들은 하나님과 같은 의미에서 불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 속성을 그 자체로 또는 하나님과

138. 하나님께서 불멸하신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은 주목할 만합니다. 불멸을 말하는 것은 죽음이 창조 세계에 들어온 뒤에야 비로소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죽을”의 반대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음과 아무 상관이 없으셨으므로, 하나님께서 불멸하신다고 말하는 것은 어쩌면 적절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분이 불멸을 “가지고 계신” 것은, 그것이 그분의 본질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그것을 죽을 존재들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상관없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살아 있는 모든 것이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도 붙들어 주십니다. 만물은 그분의 능력의 말씀으로 붙들려 있습니다(히 1:3). 이런 의미에서 모든 생명과, 따라서 “불멸”도 하나님에게서 비롯되며 그분께 의존합니다. 살아 있는 모든 것은 그분이 원하시기 때문에 삽니다(계 4:11; 딤후 6:13; 행 17:25). 이것은 사람의 영-혼에도 해당됩니다. 문제는 하나님 외에 누군가 불멸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불멸하느냐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에 관한 장에서 이 개념을 두 번 더 사용합니다(고전 15:53-54). 거기서 불멸은 오로지 신자들이 부활이나 변화 때 받는 새 몸과 관련됩니다. 이 새 몸과 함께 비로소 신자들은 성경적인 의미의 불멸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불멸은 언제나 사람 전체와 관련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활과 함께 비로소 시작됩니다. 그때 불멸은 그의 영혼만이 아니라 사람 전체를 아우릅니다. 분명히 말하겠습니다. 성경은 불멸이라는 개념을 영혼과 관련하여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영혼이 사람의 본질적 요소로 묘사될 때 영혼이 죽는다고 말하는 곳도 성경에 한 군데도 없습니다. 불멸이 몸에만 관련되므로, 죽을 수밖에 없음도 몸에만 해당됩니다. 그러나 영혼은 죽을 것이 아니므로, 영혼 불멸이라는 것도 없습니다. 어떤 이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영혼이 영생을 받음으로써 나중에는 불멸을 얻은 것도 아닙니다.

신약에서 죽을 수밖에 없음은 몸에만 해당됩니다(롬 6:12; 8:11; 고전 15:53-54; 고후 4:11; 5:4). 몸은 죽을 것이며, 그래서 보이는, 따라서 덧없는 창조 세계에 속합니다(고후 4:18). 우리가 보지 못하는 영혼에 대해서는, 영혼이 몸과 달리 영원하다는 것이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영혼 불멸”이라는 개념은 사실 꼭 맞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관심을 두는 것은 이 개념을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개념이 표현하는 진리를 변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차라리 “영혼의 영원한 존재”라고 말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제가 “영혼 불멸”이라는 개념을 계속 사용하고 이 책의 제목에까지 사용한다면, 그것은 더 나은 의사소통을 위해서입니다.

사람의 영원한 존재는 영혼의 영원한 존재뿐 아니라 (부활 때의) 몸의 영원한 존재도 포함합니다. 사람은 그 전체로 영원을 향해 지어졌습니다. “영혼 불멸”이라는 개념이 사람의 전체 가운데 영혼이라는 한 측면만을 말하는 것은, 이 개념이 죽음과 부활 사이의 시간에만 관련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개념은 성경의 틀 안에서 이 기간에만 유효합니다. 그 이상의 모든 의미는 그리스 사상을 받아들이는 것이며, 그것은 전적으로 거부해야 합니다.

4.3 죽음과 부활 사이

죽음과 부활 사이의 기간에 영-혼은 몸 없이 있습니다. 몸은 썩어 없어지고, 부활 때에야 비로소 다시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반론합니다. 몸과 그 감각이 없으면 의식이 있을 수 없으므로, 영혼은 몸 없이 독립된 존재를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통일성은 죽음이 인간의 모든 기능을 끝내 버리는 그런 것이라고 합니다.

4.3.1 몸 없는 영혼의 의식

죽은 뒤 인간의 상태는 전혀 정상이 아닙니다. 죽음이 인간의 통일성을 깨뜨리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영-혼을 몸에서 떼어 놓습니다. 이제 영-혼은 몸 없이 “지내야” 합니다. 이 상태가 완전하지 않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몸 없는 영-혼에게 의식이 없다는 것이 증명되지는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우리는 의식을 가지려면 몸과 감각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지 않고 완전히 다른 성질을 가진 죽음 저편의 세계에 그대로 옮겨 놓을 수 없습니다.

2장에서 다룬 본문들에서 분명해졌듯이, 죽은 뒤에 몸 없는 영혼과 그 의식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죽은 뒤 영혼의 의식은 몸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말하고 듣는 것처럼 원래 몸에만 속한다고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영혼들”에게도 해당됩니다(계 6:9; 2.9 단락 참조). 우리가 몸 없는 영혼의 상태를 상상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 때문에 그런 상태가 존재한다는 것을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 천사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영들이며(히 1:7, 14), 몸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에게는 인격으로서의 의식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에 이끌려 올라갔을 때 자신이 “몸 밖에”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고후 12:1-4).

4.3.2 영혼에게 아직 몸이 필요한가?

또 다른 논증은 이렇습니다. “인간의 영혼이 죽은 뒤에도 계속 살고 신자의 영혼이 낙원에 들어간다면, 부활이 또 왜 필요한가? 몸 없이도 복된 존재 형태에 이른다면, 우리에게 몸이 왜 필요한가?”

여기서도 저는 죽음과 부활 사이의 기간이 완전히 예외적인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인간은 이 기간을 위해 지음받지 않았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말하면, 죽음은 예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니다. 인간이 죽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이 낙원에 있다 하더라도, 죽은 뒤의 상태를 완전하다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그들의 몸은 죽음의 손에 넘어갔습니니다.

이 논증은 우리를 이미 여러 번 다룬 진리, 곧 하나님께서 지으신 몸의 가치와 인간의 통일성에 관한 진리로 다시 이끎니다. 하나님의 이 작품이 죽음으로 파괴되었습니다. 그러나 죽음은 오직 부활로만 정복되고 폐기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그분의 부활 없이는 불완전한 것처럼(롬 4:25), 죽은 신자들의 몸이 무덤에 남아 있다면 구속도 똑같이 불완전할 것입니다(롬 8:23). 부활이 없다면 죽음이 이긴 것입니다. 부활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영화롭게 되심이며, 부활이 없다면 그것은 줄어들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신 뒤에 낙원으로 가셨습니다(2.3 단락 참조). 그러나 그곳이 가장 큰 복락의 장소인데도 그분은 그곳에 머물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분의 부활에 달려 있습니다. 그분의 부활이 없다면 의롭다 하심도 없고 하나님과의 화평도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그분이 낙원에 가셨고 그분의 영-혼이 죽지 않았다는 사실과 모순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영혼 불멸과 부활이 서로를 배제하거나 서로를 무효로 만들지 않는다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성경적인 의미의 영혼 불멸은 부활을 무의미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적인 의미의 영혼

불멸을 믿는다면, 실제로 부활이 필요 없습니다. 다음의 대조가 보여 주듯이, 그리스 철학의 불멸 개념은 성경의 불멸과 아무런 공통점이 없습니다.

4.4 성경과 그리스 철학의 불멸

영혼 불멸 교리에 반대하는 가장 강력한 논증으로 그 이교적인 기원이 제시됩니다. 그리스인들의 불멸 사상은 플라톤(Plato)에게서 가장 잘 알려진 형태를 얻었습니다. 물론 영혼 불멸에 대한 믿음은 그리스인들보다 훨씬 전에, 예를 들어 바빌로니아 사람들에게 이미 있었습니다.

기독교회는 그리스인들의 불멸 사상을 받아들여 성경의 가르침과 섞었습니까? 안타깝게도 실제로 그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영혼 불멸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말이 옳다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분명한 경계선을 그어야 하고, 어떤 혼합도 거부해야 합니다.

그리스적 사고와, 성경적인 불멸 개념과 결합된 그리스도인의 부활 소망 사이의 대립을 근거로, 저는 이교와 타협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네 가지로 정리한 차이점은 (분명히 이것이 전부는 아니지만) 두 사상이 얼마나 양립할 수 없는지를 보여 주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두 사상은 출발점과 종착점이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4.4.1 이원론

그리스 철학은 인간을 두 실체, 곧 몸과 영혼, 또는 물질과 정신으로 나눕니다. 성경적인 관점에서도 이것이 동등한 가치의 구분이라면 이 구분은 아직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¹³⁹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인들은 영혼과 정신적인 것을 몸보다 높게 여겼고, 몸을 영혼의 감옥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죽음은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이었고, 그로써 영혼이 참된 삶을 찾았다고 여겼습니다. 그들에게는 정신과 물질 사이에 분열이 있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인간의 창조에서 출발하여, 몸은 결코 부차적인 것이 아닙니다. 몸은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그러므로 선하기 때문입니다(3.3 단락 참조). 죄가 죽음을 가져왔다 하더라도, 신자의 몸이 하나님 자신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139. “속사람”과 “겉사람”으로서.

사실은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고전 6:19). 신자는 자기 몸으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

4.4.2 부활

그리스인들은 몸의 부활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사고에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행 17:32-34). 몸의 부활은 영혼을 몸이라는 감옥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것이 될 터였습니다.

몸은 영혼이 벗어나야 할 무엇이 아닙니다. 이것은 부활이라는 사실로 분명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부활 때에 몸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영-혼이 영원히 존재한다고 믿는다고 해서, 그것으로 부활을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활은 성경적 의미의 영혼 불멸로 대체되지도 않고 배제되지도 않습니다. 둘은 반드시 함께 속하며, 하나가 없으면 다른 하나도 없는 방식으로 함께 속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영-혼을 불멸하는 것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분은 같은 인격을 지닌 몸의 부활을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인간이 죽을 때 떨어지는 무(아무것도 없음)로부터의 새 창조가 아니라, 영-혼과 몸이 다시 합쳐지는 것입니다. 각 사람의 인격적 정체성이 부활 때에 보존되고 계속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죽은 자들의 부활은 영혼 불멸의 전제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영혼 불멸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을 그 전체로 포괄합니다. 그러므로 몸 없는 영혼의 영원한 존재는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통일성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이미 인용한 자료들에서 우리는 바리새인들이 영혼 불멸을 확신했고 부활을 믿었다는 것을 압니다. 그들도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았지만, 부활은 구약에 근거한 그들의 신앙 유산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영혼 불멸과 부활 사이의 관계를 알아보는 것이 문제도 아니고 모순도 아니었습니다.

영혼 불멸과 죽은 자들의 부활은 서로 대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면 둘은 함께 속하며(2.2 단락 참조), 서로를 전제합니다. 이것은 타협도 아니고, 기독교 교리와 이교 사상의 혼합 형태도 아닙니다.

4.4.3 영혼 불멸은 최종 상태가 아니다

그리스인들에게서는 영혼이 죽은 뒤에 최종적인 목적지에 이릅니다. 영혼은 인간 안에 있는 “신적인 것”이며, 신에게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영혼은 죽은 뒤에 아직 마지막 목적지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성경적 관점에서 본 영혼 불멸 교리는 영원한 최종 상태를 묘사하지 않습니다. 죽은 뒤에 문제가 되는 것은 영혼의 잠정적인 상태이며, 그것은 부활 때까지만 계속됩니다. 죽음은 시간적으로 제한된 “예외 상황”을 가져왔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덕분에 폐기될 것입니다.

4.4.4 인격

그리스인들은 영혼의 선재를 믿었습니다. 영혼이 신적인 불꽃으로서 죽은 뒤에 신에게로 돌아가는 것처럼, 인간이 잉태되기 전에도 이미 신 안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영혼을 초자연적인 “우주 영혼”의 일부로 보았습니다. 그 영혼은 몸이라는 감옥을 벗은 뒤 자신의 개체성을 다시 포기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성경의 영혼 개념과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영혼은 하나님의 창조로 말미암아 각 사람의 인격이 자리하는 곳이며 그 인격의 표현입니다. 영혼은 개별적인 영-혼이며, 영원히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영혼의 존재는 그 개인의 역사 이전에 시작되지 않고, 그 역사와 함께 시작되며, 결코 그치지 않습니다.

이런 중대한 차이가 있는데도, 그리스도인들이 영혼 불멸을 말할 때 그리스인들과 같은 것을 뜻한다는 비난을 여전히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저 이교 사상을 받아들인 것입니까? 앞에서 말한 차이점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충분히 분명하게 보여 줄 것입니다.

4.5 결론

아래에서 저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존재가 있으며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면 거기에는 영원한 영-혼도 속한다고 제가 믿는 이유를 세 가지로 요약합니다.

- 인간의 영은 하나님께서 친히 불어넣으신 생명의 영입니다(3.1 단락 참조). 이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동시에 인간의 영을 이루기 때문에,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의 영 자신처럼 영원히 존재해야 합니다. 이 존재는 오직 모든 것을 살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근거합니다.

- 다음으로 우리는 죽은 뒤의 상태에 관한 성경의 증언들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2.1-10 단락). 거기서 분명해진 것은, 사람이 죽을 때 존재하기를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산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가장 설득력 있는 설명은 인간의 영-혼이 육체의 죽음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 영생을 가진 사람들 외에, 영생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며, 주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영원한 고통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고통은 신자들의 영원한 기쁨과 마찬가지로 끝이 없으며, 곧 영원합니다(마 18:8; 25:41, 46; 살후 1:9; 히 6:2). 잃어버린 자들 위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영원히 머물러 있습니다(요 3:36; 6.2 단락 참조).

르네 파슈(René Pache)¹⁴⁰는 이 주제를 적절하게 요약합니다.

인간은

- 태어날 때 자기 영혼과 함께 끝없는 존재를 받고
- 거듭날 때 ... 영생을 받고
- 부활할 때 자기 몸과 함께 불멸을 받는다.

영혼 불멸은 죽음의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묘사하는 대로 인간 존재의 본질적인 구성 요소입니다.

4.6 이 진리의 의미

이 중요한 진리는 복음 전파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모든 사람에게 불멸의 영혼이 있다는 사실 속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우리를 몰아가는 동기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고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고후 5:11).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영원한 운명을 확정하는 판결이 선고되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롬 14:10-12; 계 20:11-15).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은 복음 전파의

140. René Pache, *Das Jenseits*, Wuppertal (Verlag Sonne und Schild), 1957.

필요성에 사로잡혀야 합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고전 9:16).

더 깊이 생각해 볼 질문

- 영혼 불멸은 왜 자주 거부됩니까?
- 이 거부는 정당합니까?
- 영혼 불멸의 성경적 의미는 무엇입니까?
- 영생과 영혼 불멸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 어떤 사람들에게 불멸의 영혼이 있습니까?
- 어떤 사람들에게 영생이 있습니까?
- 영혼은 몸 없이 의식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영혼에게 몸이 정말 필요합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영혼 불멸에 대한 그리스적 이해와 성경적 이해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5 죽은 자들의 미래

앞의 장들에서 분명해진 것은, 사람이 믿는 사람이든 아니든 죽을 때 아직 최종 상태에 이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죽은 직후 사람이 의식하며 겪는 상태는 기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중간 상태, 곧 영원을 향해 가는 길의 중간 정거장입니다. 그러나 죽은 자들은 중간 상태가 시작될 때 이미 자신이 영원을 어디에서 보낼지 분명히 압니다. 이 기간이 이미 영원에서 그들의 몫이 될 것, 곧 한쪽에서는 고통, 다른 쪽에서는 기쁨으로 특징지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신자들, 곧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뜻은 그들을 영화롭게 하시고 그분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는 것입니다(롬 8:17, 29, 30). 이것은 모든 신자에게 해당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아직 살아 있던 이미 죽었던 상관없습니다. 죽음은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없습니다. 죽음은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폐하여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화평 없이 죽은 사람들의 경우는 다릅니다. 그들에게도 미래가 있습니다. 그들은 죽음으로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불멸의 영-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미래는 끔찍할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에 따르면 그들은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그들에게도 중간 상태는 끝날 것이며, 그때 그들은 판결 선고를 받기 위해 온 땅의 심판자(창 18:25) 앞에 끌려 나갈 것입니다.

신자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미래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이것은 사건들이 일어나는 시간적 순서에도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신자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분의 목표를 이루시는지 보기 위해 두 갈래의 선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중간 상태는 영-혼이 몸에서 분리된 것으로 특징지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인간 전체를 보시기 때문에, 이것은 최종 상태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활, 곧 인간의 통일성이 회복되는 것이 죽은 자들이 겪게 될 다음의 큰 사건입니다.

5.1 부활

부활은 죽음의 상태, 곧 몸이 영-혼에게서 분리된 상태를 끝냅니다. 창조에 근거를 둔 하나님의 뜻은 인간을 그 전체로, 곧 영과 혼과 몸으로 이루어진 존재로(살전 5:23)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부활 때의 이 회복은 마치 인간이 죽을 때 완전히 사라지고 지워져 버린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데서 새로 창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담이 죽은 뒤 다시 흙이 되었을 때, 그것은 “온전한” 아담이 아니라 땅의 흙으로 지어진 그의 죽을 몸에만 해당되었습니다. 그의 영-혼은 죽을 몸처럼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사라질 수도 없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생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영-혼은 죽은 뒤 몸과 분리된 채 계속 삽니다. 하나님께서 부활 때에 그것을 다시 그 몸과 결합시키시는 순간까지 그렇습니다(고후 5:1-4).

부활 때까지 영-혼이 계속 존재한다는 것은, 각 사람의 인격적 정체성이 부활 때에도 보존된다는 사실의 근거이자 전제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부활 때에도 한때 땅 위에서 살았던 바로 그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영과 혼과 몸이 속한 인간의 인격, 곧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인격은(시 33:15; 사 45:9; 롬 9:20, 21 참조)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뀌지도 않고 새로 창조되지도 않으며, 그대로 보존됩니다. 그러므로 몸은 새로울지라도, 무덤에서 다른 사람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각 사람이 인격으로서 얼마나 소중한지, 놀랍지 않습니까!?

그 증거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과 같은 주님이셨습니다. 사람으로서 그분의 죽음도 그분의 영-혼이 몸에서 분리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곧 그분의 영-혼은(행 2:27, 31), 죽으실 때 낙원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 가셨습니다(눅 23:43, 46). 그분의 몸은 사흘 동안 무덤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정말로 죽으셨다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분의 부활에서 이 분리는 다시

폐기되었고, 그래서 그분은 이제 부활하신 사람으로서 많은 형제 가운데 맡아들로서 첫자리를 차지하십니다(롬 8:29).

그런데도 부활은 몸에 관한 한 새 창조와 같습니다. 오직 생명과 죽음의 주이신 하나님만이 그 일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창조 때와 같습니다. “그가 말씀하시매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시매 견고히 섰도다”(시 33:9).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이십니다(롬 4:17). 오직 그분만이 썩어 없어진 몸을, 각 사람에게 고유했던 특징들과 함께 다시 나오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과 그분의 힘의 위력이 드러납니다(엡 1:19, 20).

5.1.1 구약의 부활

죽은 자들의 부활은 이미 구약 시대에 사람들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하여 자기 외아들을 바칠 용기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히 11:19; 창 22장; 롬 4:17 참조).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내 시체들은 다시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깨어 노래하라”(사 26:19). 다니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어떤 자는 영생을 받고 어떤 자는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리라”(단 12:2). 에스겔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무덤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겔 37:12; 5절과 6절도 보십시오).

부활은 (백성의 민족적 부활이든 몸의 부활이든) 믿는 이스라엘 사람의 신앙 유산이었습니다(히 6:2; 행 26:6-8; 욥 19:25-27). 사두개인들과 달리 특히 바리새인들이 이 부활 소망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오셔서 그분의 나라를 세우실 때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으리라고 믿었습니다(행 23:6).

그러나 부활이라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비로소 구체적인 형태를 띠입니다. 그분의 부활은 죽은 자들의 부활 전체의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고전 15:21). 그분이 사람으로서 죽으셨고 사람으로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인간의 부활은 확실히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특히 신자들에게 해당됩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삶에서도 죽음에서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롬 14:8, 9).

그러나 부활은 구속받은 사람들에게만 한정된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고, 믿지 않은 사람까지 포함하여 모든 사람의 몫입니다(요 5:29; 행 24:15).¹⁴¹ 그러나 의인의 부활과 불의한 자의 부활은 시점에서도 성격에서도 근본적으로 서로 다릅니다. 성경은 분명히 가르칩니다. 첫째 부활, 곧 생명의 부활이 있는데, 이것은 구속받은 사람들에게만 해당됩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를 위해서는 마지막 부활, 곧 심판의 부활이 있습니다(계 20:5).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동시에 부활하는 “마지막 날”(요 11:24)의 “일반적인” 부활은 없을 것입니다.

5.1.2 생명의 부활

생명의 부활은 신자들의 부활을 가리킵니다. 이 부활은 하나님의 아들의 부활 생명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고 그 생명으로 특징지어지기 때문입니다(롬 6:9, 10). 그분은 죽은 나사로의 무덤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요 11:25). 그분은 친히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그분이 없으면 부활도, 죽음 너머의 생명도 없을 것입니다! 신자들은 주 예수님의 생명을 자기 생명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활할 것입니다.

죽은 신자들이 부활할 또 하나의 이유는 성령께서 그들 안에 거하신다는 데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롬 8:11).

예수님 안에 계셨고(골 2:9; 히 9:14) 그분이 살아나셨을 때 능력으로 나타나신(롬 1:4; 벰전 3:18) 바로 그 영께서 우리 안에도 거하십니다(고전 6:19; 살전 4:8; 요일 4:13). 그러므로 생명의 성령(롬 8:2)께서는 죽은 신자들을 살리실 때에도 역사하실 것입니다. 성령은 보증이시며, 그러므로 신자들이 살아나고

141. 다만 살아나게 된다는 말은 신자들에 대해서만 합니다.

(고후 5:5) 주님이 오실 때 뒤에 남겨지지 않으리라는 것에 대한 담보입니다(살전 4:13-17).

부활과 변화 안에서 신자들에게 이루어지는 구속의 사역이 완성될 것입니다(롬 8:23; 빌 1:6; 살전 5:23). 주 예수님께서 신자들을 위한 구주로 다시 오셔서(살전 1:10; 4:15, 16; 요 14:3) 우리의 낮은 몸을 변하게 하실 때, 우리는 구속받은 죄인으로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도 입을 것입니다(빌 3:20, 21; 딤후 2:13; 고전 15:49). 그분은 지금 이미 우리의 구주(구원자; 요 4:42)이십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고,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벧전 1:19; 2:24; 3:18). 그러나 우리의 몸은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아직 이 구원에 참여하지 못하고, 죄 때문에 아직 죽은 것입니다(롬 8:10; 6:12 참조). 신자의 몸은 아직 죽을 운명 아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살아 있는 우리는 그분을 우리 몸의 구주로 기다립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에게도 해당됩니다. 그들에게도 구주의 똑같이 역사하는 능력이 그들을 살리시는 일에서 거스를 수 없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이미 오래전에 완성된 것으로 보이는 일이 현실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영화롭게 될 것이며, 그리스도께서는 형제들 가운데서 맏아들의 자리를 차지하실 것입니다(롬 8:29, 30). 그분은 새 창조의 머리이시며(골 1:18), 새 창조는 그분의 부활의 열매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생명의 부활을 “첫째” 부활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 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 하리라”(계 20:5, 6).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불립니다. 지옥에서의 둘째 사망, 곧 영원한 사망이 그를 다스릴 권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불의한 자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고 불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의인들의 부활이며, 그때 그들은 의로운 행위에 대해 갚음을 받습니다(눅 14:14; 20:35, 36; 행 24:15). 사도 바울은 죽은 자들의 부활, 특히 신자들의 부활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이 논의의 계기는 고린도의 어떤 사람들이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고 주장한 데

있었습니다(12절). 그들은 그렇다면 그리스도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실 수 없었다는 뜻이 된다는 것을 간파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독교 신앙의 기초로 변호하고 거짓 교사들을 반박한 뒤에, 이어서 부활의 본질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고전 15:20). 그리스도는 자기 사람들의 부활을 일으키시는 분으로 소개됩니다. 그분은 그들과 영원히 연결되어 계십니다. 그분은 새 가족의 머리가십니다(롬 5:12-21). 그분은 그들을 위해 죽음에서 생명으로 가는 문을 여심으로써 그들의 선구자이자 길을 예비하신 분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이제 죽음의 저편에 계시며, 죽음이 더 이상 그분을 주장하지 못합니다(롬 6:9).

“첫 열매”라는 말은 우선적인 지위를 나타냅니다. 그분은 시간적으로 특정한 종류의 부활의 첫 번째이십니다. 그분의 부활 전에도 살아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부활의 몸을 받지 않았고, 나중에 다시 죽었습니다. 그분의 부활에서 죽음은 최종적으로 정복되었습니다. 그분이 신자들을 살리실 때, 그들은 더 이상 죽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은 주 예수님의 우선적인 지위를 다른 곳에서도 묘사합니다. “그는 …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골 1:18). 그분이 살아나신 것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였습니다(막 9:9; 뱀전 1:3, 21). 신자들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날 것입니다. 곧 다른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분간 아직 남아 있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고, “마지막” 부활 때에야 비로소 무덤에서 불러 나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죽은 자들의 부활”과 “죽은 자들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부활”을 분명히 구별합니다(눅 20:35; 행 4:2; 빌 3:11).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세상에 들어왔고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으므로, 그들은 모두 죽습니다(롬 5:12, 21).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은 폐하여집니다. 그분은 사람으로서, 앞서 친히 맛보셔야 했던 죽음을(히 2:9) 그분의 부활로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이 죽음을 정복할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신자들의 부활만 다룹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23절), 곧 그분께 속하고 그분 안에 있으며(22절) 둘째 사람의 생명을 주는 능력을 경험하게 될 사람들(45-47절)이 문제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살아날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아무런 연결이 없습니다. 그분은 그들을 심판받도록 무덤에서 불러내십시오, 그들에게 부활하신 분으로서의 권능을 행하실 것입니다(요 5:29). 인자의 이 권능의 나타남은 첫 창조와 관련된 하나님의 길의 마무리에 속합니다(계 21:4). 그분은 마지막에 마지막 원수인 죽음도 영원히 없애실 것입니다.

이 사건에는 불의한 자들의 부활도 포함됩니다. 죽음이 없어질 때 그들의(육체의) 죽음도 끝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의 부활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직접 언급되지는 않지만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부활은 필연적인 사건으로 배경에 남아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장에서 그토록 뛰어나게 묘사된 주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승리에 아무런 몫이 없습니다.

더 깊이 생각해 볼 질문

- 신자들이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이유들을 말해 보십시오!
-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부활과 구별해 보십시오!

5.1.3 부활 때의 몸

부활의 몸이 어떤 성질을 지녔는지 묘사하기 어려운 이유는, 이 새로운 몸을 떠올리는 데 근거로 삼을 만한 비교 대상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가진 몸만 압니다. 이 몸은 “혈과 육”이며, 땅의 흙으로 지어진 자연적인 몸입니다. 죄 때문에 이 몸은 죽음과 썩음 아래 놓여 있습니다.

바울은 “혈과 육”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고전 15:50). 그러므로 땅에 속한 몸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자들에게, 잠든 사람들에게는 살리심을 통해, 살아 있는 사람들에게는 변화를 통해, 하늘에 속한 몸을 주십니다(고전 15:40, 48-50). 이 몸은 하늘의 생활 조건에 맞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지금의 몸과는 다른 몸이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그 몸은 지금의 몸과 닮은 점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의 모습이 그대로 남는 연속성이 있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해 봅시다. 제자들은 그분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분은 그들이 따르던 바로 그분이셨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상처까지 여전히 보였습니다.¹⁴²

이 닮음은 바울에게서도 드러납니다. 그는 우리의 죽을 몸이 살아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가진 죽을 몸이 다시 살아나고, 부활 때에 불멸을 얻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은 그것이 다른 몸이 되리라는 것도 강조합니다. 부활을 씨 뿌림과 비교하는 것에서 분명해지듯이, 땅에서 자라나는 것은 땅에 심은 씨와 다른 것입니다. 이 그림도 다시 닮음과 연속성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 줍니다. 씨와 거기서 나오는 열매는 하나의 같은 식물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우리는 이 두 측면(닮음과 다름)을 모두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가진 몸에 매여 있는 인격은 보존되며, 그 인격으로서 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몸의 종류는 완전히 새로울 것입니다. 이것은 옛 창조와 새 창조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새 창조도 옛 창조와 닮겠지만, 동시에 완전히 새로울 것입니다(계 21:1).

이 새로운 몸과 관련하여 가장 위대한 것은 우리가 그분, 곧 하나님의 아들과 같아지리라는 사실입니다(요일 3:2).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고전 15:43).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인장을 지닐 것입니다. 그것은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 영화롭게 되셨을 때 받으신 영광입니다. 주님과 같아진다는 것은 그분의 외적인 영광과 관련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과 함께 나타날 때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을 것입니다(고전 15:49; 빌 3:20, 21). 그러므로 그분은 믿은 사람들 가운데서 놀라움의 대상이 되실 것입니다(살후 1:10).

142. 이것은 분명 예외일 것입니다. 그것은 그분의 구속 사역의 상처이기 때문입니다(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 또는 죽게 된 상처를 지닌 어린 양 참조; 계 5장). 제 생각에는 신자들의 부활의 몸에는 상처 자국이 없을 것입니다.

죽음이 정복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몸은 더 이상 죽지 않을 것입니다(고전 15:54, 55). 죽은 몸에 대해서는 그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으리라고 말합니다. 죽은 몸은 썩어 없어졌습니다. 새로운 몸에는 그런 일이 결코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아직 죽지 않은 살아 있는 사람들의 몸에 대해서는 그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고 말합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을 것입니다(계 21:4)!

새로운 몸의 이 특징들, 곧 썩지 아니함과 죽지 아니함도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특징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매 다시 죽지 아니하실 줄을 알아로라”(롬 6:9). 주 예수님께서는 의인들이 부활 때에 더 이상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죽지 않는 천사들과 같습니다(눅 20:36).

이와 관련하여 주님은 부활 때에는 혼인 관계가 없고, 따라서 자손을 낳는 일도 더 이상 없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고 성별의 구별까지 사라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구별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인격을 보존하신다는 점에서 그대로 남습니다. 바로 남자로 있음과 여자로 있음도 그 인격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자연적인 몸은 땅을 위해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그 몸은 땅과의 관련성으로 형성되고 규정됩니다. 그 몸은 땅의 법칙과 생활 조건 아래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활 때에 우리는 “신령한 몸”(고전 15:44)을 받을 것입니다. 이 몸은 더 이상 땅의 조건 아래 있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부활하신 주 예수님의 몸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 몸은 공간과 시간에 매여 있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닫힌 문을 통과하여 들어오셨습니다. 제자들이 보기에 그것은 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영은 살과 뼈가 있는 몸의 특징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그분을 만져 볼 수 있었고, 그분은 구운 생선을 잡수시기까지 하셨습니다(눅 24:36-43).

더 깊이 생각해 볼 질문

- 부활의 몸이 가진 특성 몇 가지를 열거해 보십시오!

5.1.4 부활의 시점

그러므로 마지막 날에 모든 죽은 자가 동시에 일반적으로 부활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성경은 의인들이 부활하는 시점과 불의한 자들이 부활하는 시점을

분명히 구별합니다. 신자들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고, 그때 나머지 죽은 자들은 당분간 살아나지 않는다는 사실이 이미 이것을 뒷받침합니다. “첫째” 부활이라는 표현(계 20:5)도 나중에 “둘째” 또는 “마지막” 부활이 있으리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 줍니다.

마지막 날에 **단 한 번**의 일반적인 부활이 있고 그 뒤에 심판이 이어진다는 가정은 주 예수님의 다음 말씀에서 끌어낸 것입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듣고 나올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요 5:28, 29).

사람들은 “때”(독일어 *Stunde*, 시간)라는 말에서 **단 한 번**의 일반적인 부활만 있을 수 있다고 추론합니다. 그때 그들은 이 “때”를 한 시점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비교적 긴 기간에 걸친 한 시기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런 의미로 요한은 자주 “때”를 말합니다(요 4:21, 23; 5:25; 16:2, 25; 요일 2:18; 계 3:10; 14:7; 17:12). 이 구절들에서 분명히 드러나듯이, 이 “때”는 한 시점이나 60분이라는 시간 단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한편으로는 한 시간보다 훨씬 오래 계속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특정한 특징과 사건들로 특징지어지는 한 시대를 가리킵니다.

요한복음 5:25에서 주님은 60분이라는 기간으로 한정될 수 없는 “때”를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이제 이미 2000년 동안 계속되고 있는 은혜의 시대를 포괄하며, 그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사람들을 그들의 영적 죽음에서 불러냅니다. 부활과 관련해서 이 “때”는 적어도 1000년의 기간에 걸쳐 있습니다. “때”의 이 비유적인 의미는 “마지막 날”에도 해당됩니다(요 6:39 이하; 11:24). 이 날은 세상의 끝을 표시하는 한 시점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때”와 마찬가지로 여러 부활이 일어날 하나의 기간, 하나의 시대입니다.

생명의 부활, 곧 신자들의 부활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일어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차례에 속합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요”(고전 15:23). 여기서 의인들이 부활하는 시점은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는 시점과 같은 것으로 놓입니다. 이로써 그 시기가

정확히 정해집니다. 그리스도의 강림(헬라어 **parousia**)은 다시 두 개의 서로 다른 시점에 일어납니다. 따라서 “첫째” 부활에도 두 단계 또는 세 단계의 부활이 있습니다. 1. 그리스도, 2. 휴거 때의 신자들, 3. 평화의 왕국이 시작될 때의 순교자들입니다.

먼저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살아 있는 모든 신자를 자기에게로, 하늘로(요 17:24; 빌 3:20, 21), 아버지 집으로(요 14:2, 3) 데려가실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들을 휴거하시기 위한 그분의 오심이며,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살아 있는 신자들이 변화될 것입니다(고전 15:51, 52; 살전 4:13-17). 첫 번째 강림은 신자들에게만 해당됩니다. 그때 그분은 나중에 그러하실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보이게 오시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첫 번째 오심은 신자들의 소망입니다. 그들은 하늘로부터 오실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립니다. 그분은 그들이 하늘에 있을 때 땅에 임할 장래의 진노에서 그들을 건지실 것입니다(살전 1:10). 구약 시대의 신자들도 이 부활에 속할 것입니다(히 11:35, 39, 40). 그들은 부활 후에 교회의 신자들과 함께, 하늘에서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양을 둘러쌀 24 장로 안에서 보입니다(계 4:4 이하).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땅에 임할 때, 부활한 사람들은 하늘에 있습니다(계 6-19장).

그다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에게 보이게 두 번째로 능력과 영광 가운데 나타나실 것입니다(살후 1:7, 8; 히 1:6; 계 1:7; 19:11-16). 그때에도 신자들이 부활할 것입니다. 그들은 휴거 뒤에 죽은 사람들입니다. 요한은 그들에 대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에 대한 증언 때문에 목 베임을 당했으며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살아날 것입니다(계 20:4).

따라서 첫째 부활은 두 단계로 일어납니다.

- 먼저 교회와 구약의 신자들
- 그다음 휴거 뒤부터 평화의 왕국까지 죽은 신자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신자들은 영화롭게 된 몸으로 하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들은 하늘에 속한 몸을 받으며, 그

몸으로 땅이 아니라 하늘에 영원한 집을 가집니다.

살아난 신자들에게는 더 이상 심판이 없을 것입니다. 심판의 문제는 그들을 위해 골고다의 십자가에서 해결되었습니다. 이미 완전하게 되었고 영광의 몸을 입은 사람들이, 결국 잃어버린 바 될 가능성을 안고 다시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고후 5:10). 그러나 그때 문제가 되는 것은 구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거기서는 그들의 행위에 대한 평가와 상급이 문제가 됩니다(고전 3:12-15). 거기서 그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기 삶을 보고 평가하게 될 것이며, 그리하여 주께서 그들을 아신 것 같이 그들도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고전 13:12). 그들은 자신을 안전하게 목적지에 이르게 한 은혜를 알고 찬양할 것입니다.

5.1.5 심판의 부활

불의한 자들의 부활(행 24:15)에 대해서 성경은 많이 말하지 않습니다. 몇 가지는 생명의 부활과 대조하면서 이미 언급했습니다. 성경은 이 부활을 반드시 일어날 중요한 사건으로 말하며,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으로 첫 창조의 역사를 마무리하실 것입니다.

이 부활은 한순간에 일어나며,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모든 죽은 자, 곧 남아 있던 자들을 포함할 것입니다(계 20:5). 오직 이런 의미에서만 마지막 날의 일반적인 부활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불의한 자들을 그들의 무덤에서 불러내실 것입니다(요 5:28, 29). 그분은 이 부활을 “심판의 부활”이라고 부르십니다. 이 부활은 심판으로 특징지어지기 때문입니다. 불의한 자들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살아 있는 동안 이미 심판을 받았습시다(요 3:18). 그들은 부활한 뒤에 영원한 심판으로 들어가며, 그 심판은 크고 흰 보좌의 심판 법정으로 시작됩니다(계 20:11).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20:11-15에서 이 사건에 대해 말합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1000년이 다 차기까지 살아나지 못하는 **그 나머지** 죽은 자들(계 20:5)에 대해 말합니다. 이로써 마지막 부활의 시점도 정확히 정해집니다. 이 통치 기간이 끝날 때(고전 15:24) 죽은 자들이 불러 나옵니다.

그들은 산 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 앞에 끌려 나가기 위해 부활할 것입니다(히 12:23; 롬 2:16; 딤후 4:1).

요한은 이 장래의 사건을 인상 깊게 묘사합니다. 그는 먼저 크고 흰 보좌를 봅니다. 이 보좌는 곧바로 최고의 권위와 절대적인 의와 거룩하심의 인상을 줍니다(요일 1:5). 그다음 그는 보좌에 앉으신 이를 봅니다. 이분 앞에서 하늘과 땅이 피하여 달아납니다. 이것이 첫 창조의 끝입니다(고전 15:24). 땅과 하늘이 피하여 사라지고(계 20:11) 불에 타서 풀어집니다(벧후 3:7, 11). 이제 옛 창조는 새 창조에게 자리를 내주어야 합니다. 이런 일을 일으키시는 분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겠습니까! 그분 앞에 서게 될 사람들은 무엇을 느끼겠습니까!?

보좌에 앉으신 분은 누구입니까? 그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 곧 인자이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심판을 그분께 맡기셨습니다(요 5:22, 27; 행 10:42; 17:31; 고후 5:10). 심판자는 친히 땅에서 사셨고 사람으로 사는 것을 완전히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그분이 사람의 어떤 상황을 경험으로 판단하실 수 없다고 주장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다음 요한의 시선이 옮겨 가고, 그는 보좌 앞에 서 있는 큰 무리를 봅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땅에서 살았던 믿지 않은 죽은 자들 모두입니다. 단 한 사람도 잊히지 않았습니니다. 가장 작은 자부터 가장 큰 자까지 그들 모두가 거기에 나타날 것입니다. 이 진실의 시간에는 아무런 차별이 없을 것입니다.

눈에 띄는 것은, 이 사람들이 살아난 뒤에도 여전히 “죽은 자들”이라고 불린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모순이 아닙니다. 크고 흰 보좌 앞에는 불의한 자들만 서게 되리라는 것이 이미 분명해졌기 때문입니다. 첫째 부활, 곧 의인들의 부활은 이미 적어도 1000년 전에 일어났습니다. 보좌 앞의 사람들이 살아났는데도 “죽은 자들”이라고 불린다면, 그것은 그들의 잃어버린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들은 자기 죄 가운데서 영적으로 죽어 있고(엡 2:1), 죄의 삯으로 육체적 죽음을 맞았으며, 판결이 선고된 뒤에 자기 죄책과 죄성을 온전히 의식한 채 영원한 죽음으로 들어갑니다(계 20:6, 14).

판결의 증거 자료는 생명책¹⁴³과, 모든 행위가 기록된 책들입니다(단 7:10). 생명책에는 생명의 부활에 참여한 모든 사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 보좌 앞에 전혀 서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의 부활은 이미 1000년 전에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이 심판에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사람은 모두 불뭇에 던져졌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불뭇에 던져질 사람들만 서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의 묘사에서, 거기서 생명책을 보게 되므로, 보좌 앞에 불뭇에 들어가지 않을 사람들도 서 있다고 추론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생명책은 왜 동원됩니까? 그 이유는 이 심판이 지극히 정확하게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어떤 사람의 상태에 대해 생길 수 있는 모든 의심이 제거됩니다. 그 책을 조사함으로써 모든 혼동이 배제될 것입니다. 생명이 있고 이 책에 기록된 사람은 아무도 부당하게 불뭇에 던져지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은 거기서 완전히 죄를 깨닫게 되고, 자기 자신에 관한 진실을 알게 됩니다. 모든 행위가 기록된 다른 책들도 그 일에 쓰입니다. 여기서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불신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는다는 점입니다. 모든 행위, 곧 선하다고 여겨졌던 행위와 악한 행위가 살펴지고, 검토되고, 평가됩니다. 이 심판자 앞에서 사람은 자기 삶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인정해야 합니다. 이 깨달음은 끔찍합니다. 거기에는 보상할 길도 없고, 그를 위해 변호해 줄 대언자도 없기 때문입니다.

피상적이거나 일괄적인 판결은 내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의롭고 모든 것을 아시는 심판자께서 심판을 행하시기 때문에, 그 심판은 세부 사항에 이르기까지 절대적으로 공정하고 매수될 수 없을 것입니다(딤후 4:8; 시 7:11; 9:4).

요한은 그 많은 죽은 자들이 어디에서 오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듯합니다. 그는 바다와 사망과 하데스(헬라어 *hadēs*)가 그 가운데 있는 죽은 자들을 내어 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로써 죽은 자들이 아직 있을 수 있는 장소나 상태는 하나도 예외로 남지 않습니다. 사망과 하데스는 불뭇에 던져지고, 이로써 마지막 원수인 사망이 끝을 맞습니다(고전 15:26).

143. 누가복음 10:20; 빌립보서 4:3; 히브리서 12:23; 요한계시록 3:5; 13:8; 17:8; 20:12, 15; 21:27; 22:19.

그때에는 첫째 사망, 곧 육체적 죽음이 더 이상 없습니다. 마지막 부활 뒤에는 영-혼과 몸이 분리된다는 의미의 죽은 자들이 더 이상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죽은 자들의 장소인 하데스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에서 나오는 끔찍한 결론은, 불의한 자들, 곧 잃어버린 자들이 자기 몸으로 둘째 사망, 곧 불못을 겪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서는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마 10:28). 이 말씀에서 오해의 여지 없이 드러나듯이, 사람은 영혼과 몸을 가지고 지옥, 곧 불못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둘째 부활은 오로지 불의한 자들이 자기 몸으로 지옥에 추방되기 위해 일어납니다. 그들의 멸망은 그들의 영혼만이 아니라 그들의 몸에도 미칠 것입니다. 이로써 죽은 자들은 부활과 심판 뒤에 최종적이고 영원한 상태에 들어갑니다.

더 깊이 생각해 볼 질문

- 신자들과 불신자들의 부활의 여러 단계(또는 시점)를 구별해 보십시오!

6 영원 속의 인간

영원한 상태의 시작, 곧 완전히 새로운 창조의 시작(계 21:1)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길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구속사는 오랜 시간이 지나 마무리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그분의 목표에 이르셨고, 그분의 영원한 작정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분은 그 안에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피조물이자 형상인 인간이 복락과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행하셨고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죽음 이후의 삶에 관해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에 의존한다면, 영원 속의 인간에 관한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제에서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계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까지도 우리 삶을 위해 중요한 결론을 끌어낼 수 있을 만큼 계시해 주시는 것은 그분의 크신 은혜 덕분입니다. 장래 일을 다루는 것이 우리의 호기심을 채워 줄 뿐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이것이 언제나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영원 속에도 오늘날과 똑같이 두 부류의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생명을 가진 사람들과, 하나님에게서 난 생명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주제, 곧 인간의 영원한 존재, 달리 말하면 영혼 불멸과의 관련성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은 뒤에, 비록 일시적일지라도 자기 존재를 잃는다고 전제한다면, 언젠가는 그가 자기 존재를 최종적으로 잃는다는 결론을 끌어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혼이 죽는다고 믿는 사람들에게서는 불신자들이 언젠가 소멸되리라는 견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영혼이 죽는다는 교리와 인간이 소멸된다는 교리는 대개 함께 나타납니다. 영혼이 죽는다는 것이 당연히 인간이 소멸된다는 것의 전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성경을 근거로, 인간에게 영원한 존재가 있으며 그러므로 불신자들은 결코 소멸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늦어도 다음의 연구에서는, 영혼 불멸, 곧 인간의 영원한 존재에 관한 진리가 사소하거나 부차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이 분명해질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일치를 위해 이 진리를 덮어 두어서는 안 됩니다. 이 진리를 포기하면 성경적 교훈의 본(롬 6:17)이 일그러지고 복음의 메시지가 축소됩니다.

6.1 영원 속의 신자들

자신에게 영원한 미래가 있다는 것을 의심하는 신자는 거의 없습니다. “어디에서”와 “어떻게”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있지만, 모두가 기쁜 기대 속에 영원을 향해 나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기다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립니다(벧후 3:11-13).

하나님께서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의 영원한 영광에 부르셨습니다(벧전 5:10). 우리는 그분 자신의 영광과 그분 자신의 나라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살전 2:12).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광이 우리를 위해 준비되어 있으며, 그것은 우리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을 것입니다(예를 들어 롬 8:18, 21, 29, 30; 딤후 2:10).

“하늘에서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모든 것이 영원히 극복되어 있을 것이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고통, 슬픔, 낙심, 질병, 죽음, 죄, 이기심, 피곤함이나 괴로움을 다시는 견딜 필요가 없을 것이다.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기’ 때문이다(계 21:4; 22:3 참조). 하늘은 형언할 수 없는 사랑과 아름다움과 평화와 기쁨과 모험과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곳이 될 것이다(계 21:4). 무한히 사랑하시고 전능하시며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기꺼이 자신의 독생자를 희생하여 주신 사람들을 위해 영원 속에서 무엇을 하실지 우리는 상상하기 어렵다(롬 8:32; 고전 2:9; 3:21-23 참조). 그곳의 삶은 우리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을 것이다. 하늘에 부정적인 것이 모두 없다면, 그곳은 새롭고 긍정적인 모든 것으로 가득 차 있을 것이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들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계 21:5).”¹⁴⁴

그리스도인의 이 영광과 하늘의 복들을 더 깊이 생각해 보는 것은 수고할 가치가 있는 일이며, 저도 지금 기꺼이 이것을 더 다루고 싶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다루는 것은 신자들의 영원한 존재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아무도

144. John Ankerberg und John Weldon, *Fakten über Sterbeerlebnisse*, Pfäffikon (Verlag Mitternachtsruf), 2001, 67쪽.

의심하지 않습니다. 불신자들과 그들의 미래의 경우는 다릅니다. 여기서는 견해들이 근본적으로 갈라집니다.

6.2 영원 속의 불신자들

회개하지 않았고 죄 사함을 받지 못한 불신자들은 자기 죄 가운데서 죽을 것입니다(요 8:21). 그 뒤에는 심판이 그들을 기다립니다(히 9:27). 그들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집니다(히 10:31). 그분은 절대적으로 거룩하시며, 그러므로 죄를 미워하시고 혐오하십니다. 그러므로 불신자들의 부활은 오직 심판을 위해 일어납니다(요 5:29).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말에 근거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노가 불신자들 위에 영원히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요 3:36).

우리는 사도 베드로와 함께 묻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벧전 4:17, 18).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에 대해 우리를 불분명한 채로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저는 구주이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독생자를 제물로 내어 주심으로써 잃어버린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모든 것을 행하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죄인이 멸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딤후 2:4; 벧후 3:9). 하나님의 뜻은 그가 살고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해 애쓰시며, 그분의 신적인 사랑으로 그에게 다가가려 하십니다. 어떤 사람도 자기의 영원한 운명에 대해 하나님께 책임을 돌릴 수 없을 것입니다. 영원한 정죄는 창조주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그분의 아들을 거부한 모든 사람에게 임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은혜에서도 심판에서도 의로우신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 말합니다. “혹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회개로 이끄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스스로 쌓는도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으시리니, 참고 선한 일을 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다투기를 좋아하며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혼에게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라”(롬 2:4-9, 독일어 Elberfelder 성경에서 번역).

진노, 분노, 환난, 곤고는 여기서 회개하지 않는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나타내는 표현들입니다. 성경은 장래의 영원한 심판에 대해 오해의 여지 없이 말합니다. 성경은 오늘날 안타깝게도 자주 그러는 것처럼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현실을 숨기지 않습니다. 죄인을 지옥에 넘겨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에 맞지 않으며,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의 생각에도 맞지 않습니다. 너무 자주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타협할 준비가 되어 있어서 은혜로 죄를 눈감아 주실 것이라고 믿거나 바랍니다. 그러나 이런 추측은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하나님의 본성과 죄의 본성에 관해, 그리고 그로써 자기 자신의 영원한 운명에 관해서도 그릇된 길로 이끌기 때문입니다.¹⁴⁵

성경은 영원한 심판을 될 수 있는 대로 인상 깊게 묘사하기 위해 여러 가지 명칭과 강렬한 그림이나 비유를 사용합니다.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심각하게 여기시는지, 그리고 심판 때 그분이 얼마나 두려운 분이신지를 사람에게 보여 주려는 것입니다. 성경은 천국과 지옥을 실제로 존재하는 장소로 말하며, 그것들을 묘사하기 위해 비유적인 언어를 사용합니다. 우리는 하늘이 그림 언어로 묘사된다고 해서(요한계시록 참조) 하늘의 실재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지옥의 실재도 의심할 수 없습니다.

이 심판에 대해 말하는 세 가지 핵심 개념과 그림을 한번 살펴봅시다. 그것은 지옥, 불못, 둘째 사망입니다.

6.2.1 지옥(게헨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복음서에서 열한 번 지옥에 대해 말씀하십니다(마 5:22, 29, 30; 10:28; 18:9; 23:15, 33; 막 9:43, 45, 47; 눅 12:5; 신약에서는 그

145. 영원한 고통을 가법게 여기고 거부하는 태도는 여러 형태로 나타납니다. 1. 보편 구원론과 만유 화목설: 모든 사람이 결국 구원받습니다 2. 조건적 불멸설(Konditionalismus), 곧 조건부 불멸: 구속받지 못한 자들은 소멸됩니다 - “소멸설”(Annihilationismus)이라고도 합니다 3. 죽은 뒤에 돌이켜 구원받을 가능성(가설적 조건적 불멸설). 이 교리들은 모두 비성경적이며 신앙을 속에서부터 무너뜨리는 것으로 거부되어야 합니다.

밖에 약 3:6에만 나옵니다). 지옥은 불의한 자들이 자기 죄책을 온전히 의식한 채 영원히 홀로 버려지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곳입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지옥, 곧 무서운 심판의 장소에 대해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점입니다. 그분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의 계시이신데도 말입니다. 아무도 그분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했고, 그분은 그 사랑을 계시하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그런 무서운 심판과 어울릴 수 있습니까? 아무도 그분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심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요일 1:5). 여기서 **빛**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며, 죄와 죄에 관련된 모든 것을 나타내는 표현인 어둠과 대조됩니다.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은 “지옥”(헬라어 **gehenna**)이 무엇을 뜻하는지에 대해 어느 정도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생각은 잘 알려진 한 장소와 그 역사에서 나왔습니다. 이 헬라어 단어는 히브리어 “게-히놈”에 해당합니다. 그것은 예루살렘 성 남쪽으로 내리뻗은 히놈의 골짜기를 가리킵니다(수 15:8; 18:16).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아하스 왕(왕하 16:3)과 므낫세 왕(왕하 21:6) 때에 이곳은 가장 가증한 우상 숭배의 장소였습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은 몰렉 우상에게 아이들을 제물로 바쳤습니다(대하 28:3; 33:6). 아이들의 비명을 덮으려고 북을 치는 가운데 그들을 불태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증한 일들에 대해 무서운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렘 7:32; 19:5-9; 32:35).

요시아 왕 때의 부흥 동안 이곳은 파괴되어 폐허가 되었습니다(왕하 23:10). 나중에 이곳은 잔해와 쓰레기를 버리는 곳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의 쓰레기와 오물이 그곳으로 옮겨졌습니다. 처형된 범죄자들의 시체도 불태우려고 그곳으로 가져갔습니다. 그곳은 쓰레기를 없애려고 늘 불이 타오르는 쓰레기장이었습니다. 벌레들은 쓰레기 속에서 먹이를 충분히 얻어 그곳에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옥과 관련하여 죽지 않는 벌레와 꺼지지 않는 불에 대한 말씀이 자주 나옵니다(막 9:43-48; 사 30:33; 66:24).

유대인들의 문헌에서는 이곳에서 일어난 일이 불의한 자들에 대한 종말의 영원한 형벌 심판과 비교됩니다.¹⁴⁶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기서 그 시대 유대인들의 생각에 연결하십니다. 그러나 그분의 말씀은 유대인들의 생각과 달리 신적인 진리의 계시입니다. 그분은 특히 두 가지를 강조하십니다.

- 사람 전체가 지옥의 심판에 넘겨집니다.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마 10:28; 눅 12:5 참조). 지옥의 심판(마 5:29, 30)은 몸과 똑같이 영혼에게도 임할 것입니다(눅 12:47).
- 지옥은 불과 떼려야 뗄 수 없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마 5:22).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막 9:43, 44; 마 5:29 참조).

사람은 불을 두려워합니다. 지옥에서는 심판이 몸과 혼과 영에게 임합니다. 불의 그림은 고통과 두려움을 말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 그림은 충분히 인상적입니다. 이보다 더 절박할 수 없는 경고입니다. 불은 자주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쓰이며, 그 심판은 심판의 날에 하나님과 일치하지 않는 모든 것을 향합니다(창 19:24; 레 10:2; 민 16:35; 고전 3:13; 살후 1:8; 히 10:27; 벧후 3:7; 계 20:9; 21:8).

“지옥”이라는 말을 쓰지는 않지만 같은 심판을 묘사하는 다른 구절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인이거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마 18:8).

“... [악한 자의 아들들을] 풀무 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마 13:42; 8:12 참조).

유다는 이렇게 말합니다.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유 7).

146. Strack / Billerbeck, *Exkurs: Scheol, Gehinnom u. Garten Eden*, München (Verlag C.H. Beck) 1029-1037쪽. G.W. Bromiley,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NT*, Grand Rapids (Eerdmans) 1985, 113쪽.

6.2.2 불못

불못은 위의 구절들과 일치하여 지옥의 다른 이름입니다(계 19:20; 20:10, 14, 15). 이 장소에 대해서는 몇 가지 세부 사항만 언급됩니다. 그곳은 죄인이 영원히 안식을 얻지 못할 곳입니다. 못도 바다와 마찬가지로 끝없는 불안을 암시합니다(계 14:11).

먼저 짐승과 거짓 선지자(마지막 때의 두 사람, 계 13장 참조)가 불못에 던져집니다(계 19:20). 그들은 산 채로 불과 유황으로 타는 이곳으로 갑니다. 1000년 뒤에 마귀가 불못에 던져져 밤낮 세세토록 괴로움을 받을 것입니다(20:10).

불못, 곧 영원한 불은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 준비된 것이지만 사람을 위해 준비된 것이 아닙니다(마 25:41)! 그러나 사람이 마귀를 따랐고, 불순종의 같은 길을 걸었으며, 하나님께 굴복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도 그곳에서 자기의 영원한 운명을 맞게 될 것입니다(계 20:10, 14, 15; 14:10).

불은 무언가를 태우고 없애려고 있는 것입니다. 힌놈의 골짜기에서 쓰레기에 일어난 일도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지옥의 심판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소멸이라는 의미의 태워 없애기입니다.

인간이 완전히 소멸된다는 교리 외에, 지옥에 시간적으로 제한된 기간 동안 머문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것은 제한된 형량을 치르기 위한 것이거나, 심지어 연옥이라는 의미의 정화를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불의 그림을 이런 의미로 해석한다면, 모든 악인은 이 불에 노출되는 즉시 순식간에 타 버릴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새 생명도 없고, 정화 후에 남을 수 있는 선한 것도 전혀 없습니다. 지옥에서는 빠져나올 길이 없습니다. 지옥에는 입구만 있을 뿐 출구가 없습니다.

힌놈의 골짜기에서 타고르던 그 불은 죄인의 고통을 묘사함으로써 지옥의 실재를 보여 주는 그림입니다.

6.2.3 둘째 사망

우리는 이미 죽음이 인간 존재의 끝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존재 형태의 변화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게다가 죽음은 언제나 분리를 가져옵니다. 둘째 사망, 그러므로 마지막 사망(계 20:6, 14)은 죄인이 하나님에게서 최종적으로 분리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죄인의 영원한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심판을 “주의 얼굴을 떠난 영원한 멸망”이라고 부릅니다(살후 1:9). 하나님께서는 죄를 보실 수 없으므로, 죄인을 영원히 그분의 임재에서 쫓아내셔야 합니다(마 7:23; 25:12). 빛과 어둠은 서로 사귄 수 없기 때문입니다(고후 6:14). 죄인은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납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 죄를 지닌 그를 받아들이실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마 22:13; 눅 13:22-28; 벧후 2:17; 유 13). 많은 사람이 하나님과 아무 상관도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영원히 하나님 없이 있게 될 것입니다. 영원히 끝없이 죄인들의 몫이 될 것을 생각하면, 이 사실은 우리를 몸서리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돌아서시고 계시지 않는다는 것은 가장 깊은 죽음의 어둠 속에 있다는 것, 곧 결코 끝나지 않는 잃어버림을 뜻합니다.

더 깊이 생각해 볼 질문

- 신약은 불신자들의 영원한 운명을 어떤 그림들로 묘사합니까?

6.3 형벌은 얼마나 오래 계속되는가?

이것은 중요한 질문이며, 교회사의 여러 세기를 거쳐 오늘날까지 많이 논의되어 온 질문입니다. 여기서 많은 그리스도인의 견해가 갈라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형벌이 시간적으로 제한되어 있다고 주장합니다. 사람이 자기 형량을 다 치르면 영원히 소멸되거나 하늘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저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형벌이 결코 끝나지 않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인간의 (바람이 섞인) 생각과 감정이 발언권을 가진다면, 이 질문에 객관적으로 답할 수 없습니다. 성경이 유일한 권위여야 합니다. 성경의 말씀은 악인들의

형벌과 고통이 영원하리라는 것, 곧 시간적으로 끝이 없으리라는 것을 오해의 여지 없이 분명히 보여 줍니다. 이것은 다음의 성경 구절들에서 분명해집니다.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막 9:43; 마 3:12; 사 66:24; 렘 17:4 참조).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마 18:8).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유 7).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 **밤낮** 쉬을 얻지 못하리라”(계 14:10, 11; 20:10 참조).

불은 영원히 탑니다. 곧 꺼지지 않습니다.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영원이라는 기간(“세세토록”)이 여기서, 우리가 더 잘 알아볼 수 있도록, 끝없이 그치지 않고 이어지는 낮과 밤에 비유됩니다.

“그들은 **영원한** 고통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마 25:46). “...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히 6:2). “주의 얼굴을 떠난 **영원한** 멸망”(살후 1:9). “그들에게는 캄캄한 흑암이 **영원히** 예비되어 있나니”(유 13; 벨후 2:17 참조).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요 3:36).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막 3:29; 마 6:15; 12:32). 영원히 죄 사함이 없는 곳에서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도 영원히 있을 것입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이 구절도 영원 속에 죄 사함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영원히 그 위에 머물러 있을 사람들이 있으리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 줍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영원한”과 “영원”이라는 말이 언제나 끝없는 기간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끝이 있는 기간도 묘사할 수 있다고 반론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약에서 심판과 관련하여 이 말들이 무엇을 뜻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6.3.1 신약의 “영원”과 “영원한”

“영원”이라는 말은 헬라어 “aion”에 해당합니다. 이 말은 어떤 특정한 시기나 제한된 시대를 뜻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2:32; 24:3; 28:20; 누가복음 16:8; 20:34; 로마서 12:2; 고린도전서 1:20; 고린도후서 4:4; 갈라디아서 1:4; 디모데전서 6:17; 디모데후서 4:10; 디도서 2:12; 히브리서 9:26을 보십시오.

이 구절들은 시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시대나 세대의 흐름을 특징짓는 도덕적 특징들이 문제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 줍니다.

“영원”은 또한, 대부분의 구절에서, 끝없는 기간입니다.

- “영원히”(헬라어 *eis ton aiona*). 이 표현은 다음 구절들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21:19; 마가복음 3:29; 11:14; 누가복음 1:55; 요한복음 4:14; 6:51, 58; 8:35, 51, 52; 10:28; 11:26; 12:34; 13:8; 14:16; 고린도전서 8:13; 고린도후서 9:9; 히브리서 5:6; 6:20; 7:17, 21, 24, 28; 베드로전서 1:25; 요한일서 2:17; 요한이서 2.
- “영원들에까지”(eis tous aionas). 이에 대해서는 다음 구절들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1:33; 로마서 1:25; 9:5; 11:36; 16:27; 고린도후서 11:31; 히브리서 13:8.
- “모든 영원들에까지”(eis pantas tous aionas): 유다서 25
- “영원의 영원까지”(eis ton aiona tou aionos): 히브리서 1:8.
- “영원들의 영원들까지”(eis tous aionas ton aionon). 이 표현은 자주 나옵니다. 로마서 16:27; 갈라디아서 1:5; 빌립보서 4:20; 디모데전서 1:17; 디모데후서 4:18; 히브리서 13:21; 베드로전서 4:11; 5:11; 요한계시록 1:6, 18; 4:9, 10; 5:13; 7:12; 10:6; 11:15; 14:11; 15:7; 19:3; 20:10; 22:5.

요한계시록 14:11과 20:10에서 우리는 형벌의 끝없음에 대해 더 이상 강하게 할 수 없는 표현을 발견합니다. 이 형벌은 마귀와 짐승과 거짓 선지자에게, 그리고 짐승을 따른 사람들에게도 임할 것입니다. 그들은 “세세토록” 괴로움을 받을 것입니다. 헬라어에서는 “영원”이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문자적으로는 “영원들의 영원들까지”라는 뜻입니다.

형용사 “영원한”도 시간적으로 끝이 없음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신자들의 “영원한” 복들에서 분명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신자들은 다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 “영원한 구원”(히 5:9)
- “영원한 구속”(히 9:12)
- “영원한 기업”(히 9:15)
- “영원한 영광”(딤후 2:10; 벰전 5:10)
- “영원한 집”(고후 5:1)
- “영원한 나라”(벰후 1:11).

어떤 하나님의 자녀도 이것들이 시간적으로 제한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들은 바로 잠깐이고 사라질 것들과 대조를 이룹니다(고후 4:17, 18).

신자들의 복과 대조되는 것이 불신자들의 운명입니다.

- “영원한 고통”(마 25:46)
- “영원한 불”(마 18:8; 25:41; 유 7)
- “영원한 심판”(히 6:2)
- “영원한 멸망”(살후 1:9).

신자들의 복도 악인들의 형벌도 똑같이 영원합니다. 곧 끝이 없습니다. 마태는 이것을 간결하게 요약합니다. “그들은 영원한 고통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마 25:46).

영원한 고통에 반대하는 또 하나의 논증은, 형용사 “영원한”을 죄인의 존재와 그의 심판의 기간에 적용하지 말고, 오직 심판의 효과 또는 그 후속 효과에만 한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둘째 사망, 곧 영원한 사망은 악인들의 소멸이 됩니다. 그러나 도대체 인간의 소멸을 말할 수 있습니까? “멸망”은 인간 존재의 종결을 뜻합니까?

6.3.2 “멸망”

“멸망”이라는 표현을 소멸, 곧 인간 존재의 끝으로 이해한다면, 지옥의 형벌은 끝이 없는 것이 아니라 끝이 있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견해는 이미 인용한 성경 구절들과 모순됩니다. 사람이 정말로 소멸된다면, 어떻게 그의 고난과 고통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계 14:11; 20:10)? 그 불이 “타오를” 대상이 되는 사람이 더 이상 아무도 없다면, 영원한 불의 형벌은 무엇을 위해 있습니까(유 7)? 심판의 불은 왜 꺼지지 않습니까(막 9:43)?

이 성경 말씀들은 멸망이 소멸이라는 뜻일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 줍니다. 신약의 다른 구절들도 이것을 분명히 보여 줍니다. 헬라어 신약에는 멸망을 뜻하는 여러 단어가 있는데, 저는 그 가운데 영원 속에서 악인들이 받을 심판에도 쓰이는 가장 중요한 단어들을 여기서 제시합니다.

명사 “멸망”(apoleia)

이 단어는 19번 나오며, 여러 가지로 번역됩니다.

- “허비” 또는 “낭비”(마 26:8; 막 14:4)
- “내어 주다”(행 25:16)
- “멸망의 자식”(요 17:12; 살후 2:3)
- “멸망”(마 7:13; 롬 9:22; 빌 1:28; 3:19; 딤후 6:9; 히 10:39; 벧후 2:1; 3:7; 3:16; 계 17:8, 11)

동사 “멸망하다”(apollymai)

동사 “멸망하다”(신약에 86번 나옴)도 마찬가지로입니다.

- 홍수로 인한 땅의 “멸망”(벧후 3:6; 히 1:11 참조)
- “없어지다”(벧전 1:8 등)
- “죽이다”(마 2:13; 12:24; 21:41; 27:26 등)
- “죽다”(마 5:29, 30; 8:26; 26:52; 유 11 등)
- 사람, 짐승, 물건에 대해 “잃어버린”(마 10:6; 15:24; 16:25; 18:11, 14; 고후 2:15; 살후 2:10; 요이 8 등)
- 지옥에서 몸과 영혼을 “멸하다”(마 10:28)

- 포도주 부대가 “못 쓰게 되다”(마 9:17)
- “멸하다”(유 5)

명사 “멸망”(olethros)

이 단어는 신약에 네 번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5:5; 데살로니가전서 5:3; 데살로니가후서 1:9; 디모데전서 6:9.

데살로니가후서 1:7-9에서 우리는 주님이 나타나실 때의 주님의 심판과 동시에 영원한 심판에 대한 인상 깊은 묘사를 봅니다.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리니, 주 예수께서 자기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리니**, 이들은 **형벌을 받으리라**. 곧 주의 얼굴로부터[또는 주의 얼굴을 떠나] 그리고 그의 힘의 영광으로부터 **영원한 멸망**이라.”

6.3.3 요약

이 개념들도 **영생**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몇몇 소수의 구절에서는 어떤 물건의 소멸이나, 사람들을 땅에서 없애 버리는 것을 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멸망**은 결코 인간의 소멸이나 말살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 땅의 생명을 잃는 것을 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존재의 끝이 아니라 다른 존재 형태로 넘어가는 것일 뿐입니다.

멸망은 도덕적인 몰락과 파멸이며, 그것은 소멸이 아니라 어떤 상태가 근본적으로 악화되는 것입니다. 멸망은 결코 존재를 잃는 것이 아니라, 존재에 가치를 주는 모든 것을 잃는 것입니다. 이 구절들에서 “멸망” 대신 “소멸시키다”나 “소멸”이라는 말을 넣으면, 뜻이 왜곡될 뿐 아니라 구절들이 전혀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악인들의 영원한 멸망은 그들이 영원히 하나님에게서 끊어지고 심판에 내맡겨지는 데 있습니다. 그들은 잃어버린 자들이며, 바깥 어두운 데 있습니다 (마 8:12; 22:13; 25:30; 유 13)

더 깊이 생각해 볼 질문

- 다음과 같은 잘못된 견해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습니까?
- 불신자들이나 그들의 영혼이 소멸된다는 견해
- 그들의 형벌이 시간적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견해

6.3.4 하나님의 의와 거룩하심

인간의 이해와 감정으로는 영원한 심판과 그치지 않는 죄인의 형벌이 있다는 것을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흔히 그것이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는 살피지 않고 끝만 봅니다. 우리 자신의 생각이 우리를 이끌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이 궁극적인 질문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을 앞세우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유일한 기준이며, 우리는 모든 문제에서 그 기준에 겸손히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죄인을 정죄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애 3:33). 그렇다면 왜 영원한 심판이 있습니까? 대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실 뿐 아니라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절대적인 의와 거룩하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의는 죄의 빛을 갚을 것, 곧 죄인의 형벌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죄를 용납할 수 없으며, 죄와 관련된 모든 것을 없애고 태워 버려야 합니다(수 24:19).

선지자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시므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므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사 5:16).

영원한 심판을 부인하면, 그것으로 하나님의 본성 자체를 의문시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본성에서 변하지 않으시며, 그분의 의와 거룩하심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불변하심과 함께 사람들은 죄의 본질과 그 무게도 과소평가합니다. 죄는 영원한 심판의 이유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눈에 죄는 무엇입니까? 죄는 연약함도 아니고 사소한 실수도 아닙니다. “죄는 불법이라”(요일 3:4). 불법은 한 계명을 어기는 것만이 아니라, 모든 신적인 법을 거부하는 것, 곧 자기 고집이며 하나님의 권위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무정부 상태이며, 창조주께서 그분의 피조물에 대해 가지신 권리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대감이며 반역입니다.

죄는 반드시 하나님을 향한 공공연한 적대감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형태로 드러납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이 모욕을 당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죄를 벌하지 않은 채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은 그분의 영광을 회복하시고 그분의 거룩하심이 요구하는 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같은 하나님과 관계하지만,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는 하나님의 아들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감정도 안타깝게도 죄의 영향을 받아 흐려져 있습니다. 우리 자신도 본성상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판단에서 중립적이지 않으며¹⁴⁷,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의 기준에 맞출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감정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분께, 죄인을 그의 죄 때문에 영원히 벌하셔서 안 된다고 지시하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죄인을 어떻게 다루시는지는 오직 하나님만의 일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행하심에 대해 결코 해명하실 필요가 없지만, 그런데도 그분의 말씀에서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영원한 심판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문시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행하셨고, 하늘과 영원한 영광이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는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¹⁴⁸께서 죄인을 영원히 정죄하신다고 해서 불의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에서도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함에서 영광스러우신 분입니다(출 15:11)!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시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나?”(롬 3:4, 5).

147. 성령께서는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 이해하여,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께서 느끼시는 것처럼 죄를 느끼게 되기를 늘 힘쓰십니다(요한일서 1:5-2:2 참조).

148. 요한계시록 16:5; 시편 47:8; 119:137; 이사야 6:3.

6.3.5 골고다의 십자가

이제 이 책의 끝에 이르렀으니, 죄인을 기다리는 무서운 심판을 마음에서
새기면서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들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위해 그분의 의와 거룩하심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골고다의 십자가는 그것에 대한 가장
인상 깊은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 줍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를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위해 자신을 내어
주셨을 때, 그 거룩하심과 의는 그분에게도 예외를 두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신적인 인격께서 우리를 끝없는 심판에서 건지시려고 이루신, 신적으로 완전한
사역입니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에게서 우리를 대신하여 심판을 떠맡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지니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셨고, 하나님께서는 그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분을 벌하셨습니다. 그분은 나무에 달려 친히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고(벧전 2:24), 우리 대신 죄로 삼으신 바 되셨으며(고후
5:21), 나무에 달려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은 바 되셨습니다(갈 3:13).

마르크 타페르누(Marc Tapernoux)는 이것을 적절하게 표현합니다. “이 일은
죄가 속죄되고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과 영광의 요구가 충족되며,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사면하실 수 있도록 일어났다. 이 제사의 위대함[히 10:1-
18], 죄책을 속죄하신 그분[요일 2:2; 4:10]의 무한한 가치[마 3:17; 17:5],
그분에게 임한 심판의 무게[마 27:46; 시 22편; 42편; 69편]는, 속죄되어야 할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그리고 죄가 사람을 빠뜨린 멸망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로 깨닫게 한다. 그것은 영원한 멸망이다.”¹⁴⁹

형벌이 시간적으로 제한되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그로써 죄가 하나님의 눈에
영원한 형벌을 불러올 만큼 무겁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그렇게 대수롭지 않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그토록
무서운 방식으로 심판하셨습니까? 왜 그분은 흑암의 세 시간 동안 거기서

149. Marc Tapernoux, *Das ewige Gericht*, Zürich (Beröa-Verlag), 1962, 5쪽.

아들을 버리셨습니까? 왜 그분은 아들을 그토록 무섭게 치셨습니까(사 53장; 욥 13:7)?

우리가 일정한 분량의 일시적인 고난에서 건져지지만 하면 되는 것이었다면, 이 끔찍한 사역이 필요했겠습니까? 분명히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시간적으로 제한된 고난의 총량에서 건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에서 건지셨습니다. 그 진노는 너무나 무서워서 하나님 자신의 아들조차 그것을 면하지 못하셨습니다(롬 5:8-10; 8:32).

잃어버린 죄인이 영원히 형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소멸될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고난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견해에서 필연적으로 나오는 나쁜 결과입니다. 우리를 일시적인 고통에서 건지는 것만이 문제였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제물로 드리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영원하기 때문에, 오직 신적인 인격만이 우리를 대신하여 그것을 지시고 우리를 거기서 건지실 수 있었습니다.

영원한 고통을 부인하면, 그 결과가 너무나 커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까지 건드리고 깎아내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주셔서, 신적으로 위대한 그 제사의 무한히 큰 가치를 어떤 형태로든 깎아내리지 않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곳에서, 우리에게 영원히 임했을 형벌을 그 모든 크기 그대로 떠맡으셨다는 것을 굳게 붙들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에 대한 가장 큰 증거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변함없는 거룩하심에 대한 가장 큰 증거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긍휼,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긍휼,
사랑의 팔을 활짝 벌리시고
죄인에게로 몸을 굽히시는 분의 긍휼,
저주와 죽음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예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의 긍휼.

우리가 멸망하지 않기를,
하나님은 우리가 도움 얻기를 원하시네.
그래서 아들이 이 땅에 오셨고
그 뒤에 하늘에 오르셨네.
그러므로 이제 은혜의 보좌로부터
아들을 통해 충만한 은혜가 오네.

오 은혜여, 모든 죄를
이제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 없앨 수 있는 은혜,
그리고 이제 곳곳에 선포하게 하네,
모든 사람에게 용서와 평화를.
영원한 구원이 이제 준비되었으니,
오 놀라운 은혜의 때여!

7 부록

7.1 성경은 스올과 하데스에 대해 무엇을 가르치는가?

Bible Treasury, N9권, 79쪽에 실린 질문과 답변

질문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마 12:40)는 표현은 무덤 이상의 것을 가리킵니까? 또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엡 4:9)이라는 표현은 죽음과 무덤 이상의 것을 가리킵니까?

스올이나 하데스(헬라어 *hadēs*)가 (아브라함의 품과 낙원을 포함하여) 땅 아래에 있고, 주 예수님께서 그곳으로 내려가셔서 몇 사람을 자기와 함께 높은 곳으로 데리고 올라가셨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성경과 일치합니까? 아니면 낙원, 곧 아브라함의 품은 언제나 하늘에 있었고, 구약 시대에도 결코 땅 아래에 있지 않았습니까?

“스올로 내려가다”라는 표현은 무엇을 뜻합니까?

“무저갱”은 “하데스”와 다른 것입니까?

스올이나 하데스라는 말을, 보이지 않는 세계의 한 부분인 하늘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까?

J.C.B.

답변

구약의 표현 “스올”은 65번 나오며, “Authorised Version”에서는 31번 “무덤”, 3번 “구덩이”, 31번 “지옥”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이것은 이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같은 단어가 칠십인역(구약의 헬라어 번역)에서는 31번 “하데스”로, 두 번 “죽음”(thanatos)으로(삼하 22:6; 잠 23:14) 번역되었고, 두 곳(욥 24:19; 겔 32:21)에서는 아예 번역되지 않았습니다. 헬라어에는 이 구절들에서의 의미를 옮길 수 있는 단어가 없기 때문입니다.

몇 곳만 들자면 다음 구절들, 곧 창세기 37:35; 42:38; 44:29, 31; 민수기 16:30, 31; 열왕기상 2:6, 9; 시편 49:15; 141:7에서 “스올”은 단지 “무덤”을 뜻하며, 영어판에서도 그렇게 번역되었습니다. 예외는 민수기 16장인데, 거기에는 “구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면 다른 모든 구절에서 “스올”이라는 표현은 떠나간 영들이 있는 곳을 가리킵니다. 무덤은 생명 없는 몸을 받아들입니다. 요약하면, 구약의 표현 “스올”은 무덤에도, 떠나간 영들이 머무는 곳에도 쓰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면, 이 이중적인 의미는 사라집니다.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이 복음을 통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원래 히브리어 “스올”의 헬라어 번역인 “하데스”라는 말은 신약에서 떠나간 영들의 세계에만 관련됩니다. 마찬가지로 “사망”과 “무덤”이라는 말(계 20장)은 몸에만 관련되고, 혼과 영에는 관련되지 않습니다. 죽는 것은 몸이며,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영과 혼은 결코 존재하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하데스는 믿지 않은 죽은 자들만 받아들입니다. 신자는 부름을 받아 본향으로 갈 때 하데스로 가지 않고 낙원으로 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데스가 죽을 때 신자들과 불신자들을 똑같이 받아들이며, 이 두 부류가 그 안에서 큰 구렁텅이로 나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어디에서도 신자들이 하데스로 간다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하데스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고 말합니다(눅 16:23). 사도행전 2장에서 두 번 인용되는 시편 16편 10절이, 주님께서 죽으신 뒤 스올, 곧 하데스로 내려가셨고 그분의 영혼이 거기에 버려지지 않았다는 가르침의 근거라면, 거기에는 신자들과 불신자들을 위한 두 부분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이 낙원, 곧 흑암이 아니라 기쁨의 동산으로 가셨고, 거기에는 십자가에 달린 행악자도 있었다는 것을 압니다. 이 오류는 영어판에서 이 구절을 잘못 번역한 데서 생겼습니다. 이 구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로[‘스올에’가 아니라] 넘기시(내주거나 그리로 보내지) 아니하시리니.” 이 올바른 번역은 사도행전 2:27, 31의 “수정된 본문”으로 확인되며, 라흐만(Lachmann), 티센도르프(Tischendorf), 트레겔레스(Tregelles), 웨스트콧(Westcott), 호트(Hort)와 그 밖의 번역자들이 이것을 인정합니다.

“하데스”라는 말은 신약에서 결코 긍정적인 의미로 쓰이지 않습니다. 하데스 안에 신자들을 위한 영역과 불신자들을 위한 영역이 다 있다면, 왜 우리는 예외 없이 불신자들과 관련해서만 하데스에 대해 읽고, 신자가 그곳에 머문다는 암시는 단 하나도 찾지 못합니까?

“땅속(땅의 심장)”이나 “땅 아래 낮은 곳”이라는 표현은 무덤을 뜻합니다. 우리 주님은 죽으셨을 뿐 아니라 묻히셨고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셨습니다. 요나가 그것의 예표입니다. 시편 139:15는 이 말을 너무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땅의 깊은 곳은 의심할 여지 없이 보이지 않거나 숨겨진 무언가를 뜻합니다. 무덤은 돌로 인봉된 뒤에 경비병으로 지켜졌습니다(마 27:66). 어떤 사람의 눈도 예수님의 몸이 누워 있던 거룩한 영역을 들여다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경건한 유대인에게 “아브라함의 품에”라는 표현은 복락의 본보기였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이라고 불렸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복된 전망입니다. 그것은 위에 있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습니다. 낙원은 하데스와 같은 뜻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데스에 있지 않았고, 하데스에 있던 고통받는 영혼이 “멀리서” 그를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하데스에 계셨고 거기서 누군가를 해방시키셨다는 것은 사람이 지어낸 것입니다. 주님은 하데스로 가지 않으시고 낙원으로 가셨습니다. 성경은 하데스에서의 해방에 대해 단 하나의 암시도 주지 않습니다. 사사기 5:12; 시편 68:18; 에베소서 4:8은 포로들의 해방이 아니라, 여기서 사로잡힘이라고 불리는 악한 세력들을 사로잡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그들을 이기셨습니다(골 2:15). 그분은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으셨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들이 해석하는 것처럼 지옥에서 포로들을 풀어 주신 것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스올로 내려가다”는 무덤이나 구덩이를 가리킵니다. 둘 다 땅 아래에 있습니다. 무저갱(계 20장)은 어떤 사람도 가지 않는 곳이며, 사탄이 마지막으로 영원히 불못에 던져지기 전에 천 년 동안 결박되어 있을 곳입니다. 반면 하데스는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 곧 믿지 않은 죽은 자들의 혼과 영을

받아들입니다. 그들의 영은 한때 죽을 몸 안에 거하였습니다. 혼과 영은 하데스로 가고, 흙으로 지어진 몸은 무덤에 (바다에서든 땅에서든) 자리를 얻어 심판의 부활을 기다립니다. 사람이 살아날 때, 그때는 하늘과 땅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데, 그는 하데스(그때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에 던져지는 것이 아니라 불못에 던져집니다. 그 불못은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 준비된 것입니다(마 25:41). 잠든 신자는 심판을 위해서가 아니라 영광을 위해 살아납니다(빌 3:20, 21).

“스올”이나 “하데스”라는 말은 하늘에 적용될 수 없습니다. 그것들은 하늘과 대립되기 때문입니다.

번역자의 주

신약에서 하데스라는 말은 다음 구절들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1:23(눅 10:15): 이 두 구절에서 하데스는 하늘과 분명히 대조됩니다. 주님은 가버나움에 하데스에까지 낮아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부정적인 의미가 분명합니다.

마태복음 16:18: 여기서 주님은 거듭남과 믿음으로 하나님의 집의 산 돌이 된 사람은 하데스의 문들이 이기지 못하며, 그러므로 결코 하데스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도 주님께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을 말씀하신다는 점에서 분명히 부정적입니다.

누가복음 16:23: 부자는 하데스에서 눈을 들고 거기서 고통 중에 있습니다. 나사로도 하데스에 있었다는 말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 부자는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것을 봅니다. 아브라함의 품, 곧 낙원은 하데스의 일부가 아니라, 둘은 분명히 구별된 장소이며,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건너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다.”

사도행전 2:27, 31: 사도행전 2:27, 31에 있는 시편 16:10 인용의 번역은 제 생각에는 옳지 않습니다. 칠십인역에는 문자적으로 *enkataleiphes eis haden*(“하데스로 버려두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동사의 기본형은 *enkataleipo*이며, 다른 곳에서는 “넘겨주다”(또는 “버리다”)로 더 잘 번역됩니다. 이 단어 *enkataleipo*는 신약에서 사도행전 2:27, 31 외에 8번 더

나오며, 6번은 “버리다”로 번역되었고(마 27:46; 막 15:34; 고후 4:9; 딤후 4:10, 16; 히 13:5), 한 번은 “남겨 두다”(롬 9:29), 한 번은 “소홀히 하다” 또는 “그만두다”(히 10:25)로 번역되었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여기에 **en haben**(누가복음 16:23에서처럼 여격)이 아니라 **eis haben**(“하데스로”, 대격)이 있다는 점입니다. 전치사 **eis**(“…로, … 안으로”)는 대격과만 함께 쓰입니다. 대격은 헬라어에서도 독일어에서도 움직임이나 방향을 가리킵니다. 원문에 **en haben**이 있다면, **enkataleiphes**를 “남겨 두다”로 번역할 수 있을 것입니다. **eis haben**이라는 표현은 이 가능성을 배제합니다. 여기서 문제는 서로 다른 사본 읽기의 문제가 아니라 분명히 번역의 문제입니다¹⁵⁰ (W. 켈리(W. Kelly)가 그의 책 *An Exposition of the Acts of the Apostles*와 *The Preaching to the Spirits in Prison*에서 자세히 설명한 내용을 참조하십시오).¹⁵¹

전치사 **eis**는 여러 곳 가운데 마태복음 18:20에 나옵니다. “내 이름으로 (문자적으로: 내 이름에로) 모인 곳에는”. 그리고 세례와 관련하여, 예를 들어 로마서 6:3, 4; 고린도전서 10:2 등에 나옵니다(세례에 관해서는 Elberfelder 성경(독일어 성경 번역본)의 서문 참조).

150. 다만 이 견해는 J. N. 다비(J.N. Darby)의 관점과 다릅니다. 다비는 이 구절들을 다르게 번역했습니다(J. N. 다비가 쓴, 하데스와 지옥에 관한 Elberfelder 성경의 서문 참조. *Coll. Writings*, 제13권).

151. W. Kelly, *The Preaching to the Spirits in Prison*, 1 Peter III. 18-20, Sunbury (Belivers Bookshelf), 133, 134쪽: “시편 16:10의 히브리어 단어는 스올 ‘안에’가 아니라 스올 ‘로’를 뜻하며, 사도행전 2:27이 앨퍼드(Alford), 라흐만(Lachmann), 티센도르프(Tischendorf), 트레겔레스(Tregelles), 워즈워스(Wordsworth), 웨스트콧(Westcott)과 호트(Hort)의 비평 본문(**eis haben**)에서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내려감을 포함하지 않는다. 그래서 Revised Version은 히브리어를 옳게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로 두지[스올에 넘겨주지] 아니하시리니’ 등으로 번역한다. 비록 헬라어는 잘못하여 ‘로’ 대신 ‘안에’로 번역하지만 말이다. 우리 주님께서 죽으셨을 때, 그분은 자기 영을 분명히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손에 맡기셨다. 그리고 회심한 강도는, 그 일이 아무리 늦게 일어났다 하더라도, 바로 그날 그분과 함께 낙원에 있었다(누가복음 23장). 이제 우리는 이미, 낙원이 하데스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으며, 말했듯이 하늘의 가장 영광스러운 부분이라는 것을 보았다. 한 사도는 낙원을 ‘셋째 하늘’과 연결하며(고린도후서 12:3, 4), 우리 주님께서는 또 다른 사도를 통해, 이기는 자에게 (영화롭게 될 때)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겠다고 말씀하신다. 분명히 하데스에서가 아니다(요한계시록 2:7). 구약에서는 하데스도, 죽음과 생명과 썩지 아니함도 분명하게 정해지지 않은 채로 남아 있었다. 그러나 이것들과 그보다 훨씬 많은 것이 복음을 통해 드러났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16장의 마지막 비유에서, 믿음도 사랑도 없던 부자가 죽은 뒤에 하데스에서 눈을 드는 모습을, 그러나 믿는 나사로는 신실한 아브라함 곁에서 복을 누리는 모습을 묘사하신다. 양쪽에서 건너가는 것을 막기 위해 그토록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었다. 하데스는 실제로 ‘멀리’ 있었다. 그리고 그곳에 머문다는 것은 ‘고통 중에’ 있다는 뜻이다. 나사로가 그곳에 있었다는 말은 한마디도 없다. 그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바로 시편 16:10을 인용하는 이유는, 불법한 자들의 손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신 그분을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이 죽음 가운데 머무시거나 죽음에 매여 계시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베드로는 25-27절의 이 인용으로, 주님께서 결코 하데스에 계시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몸이 무덤에 누워 있던 동안 주님의 영혼이 하데스에 있도록 허락하실 수 없었습니다. 그분의 몸이 썩음을 당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그분의 영혼도 하데스로 보내지지 않았습니다. 불법한 자들은 그럴 힘이 있었다면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르게 생각하셨습니다. 주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의 온전한 기쁨을 입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살리심으로써 이것을 가장 분명하게 증명하셨습니다. 하데스의 부정적인 성격을 이보다 더 분명히 보여 주는 구절이 있겠습니까?

요한계시록 1:18: 여기서 우리는 주님께서 사망과 하데스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것을 봅니다. 이 구절에서 주님은 심판자로 우리에게 소개됩니다. 요한계시록 20:11-15에서도 우리는 그분이 모든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거기서 사망과 하데스는 모든 죽은 자를 돌려주어야 하며, 그들은 심판을 받습니다. 사탄은 죽은 자들을 자발적으로 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서는 사망과 하데스에 대해서도 최종적인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6:8: 하데스는 사망이 타고 있는 청황색 말을 뒤따릅니다. 이 구절은 휴거 뒤에 땅에 임할 심판들과 관련됩니다. 사망이 죽이는 사람들을 하데스가 곧바로 받아들입니다. 물론 죽은 자들의 혼과 영만 받아들입니다. 그와 달리 이 기간에 목숨을 잃는 신실한 유대인들은 제단 아래에 있습니다(6:9).

요한계시록 20:13, 14: 여기서 사망과 하데스는 불못에 던져집니다. 사망과 하데스는 하나님께 대립하는 마지막 것이며, 그러므로 불못에 던져집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받은 신자의 영과 혼을, 그분께 대립하는 장소로 보내시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사망도 하나님께 대립하지만, 신자에게는 보이지 않는 세계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주님께서 그 전에 오시지 않는다면, 우리도 아직 죽음을 지나가야 합니다. 죄의 몸이 아직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주님께서 오신다는 것, 그리고 곧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빌 3:21).

베르너 뮐허(Werner Mueher)

7.2 여러 용어를 정리한 표

명칭	성경 구절	의미
스올 (히브리어)	구약에 65번; 예를 들어 창 37:35; 42:38; 44:29, 31; 민 16:30-33; 왕상 2:6, 9; 시 49:15; 141:7 등	우선 무덤, 땅속의 묘실. 그러나 또한 죽은 자들의 세계이며,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머무는 곳으로 구별되지 않음
하데스 (헬라이어)	마 11:23; 16:18; 눅 10:15; 16:23; 행 2:27, 31; 계 1:18; 6:8; 20:13, 14	믿지 않은 죽은 자들이 머무는 곳. 고통의 장소. 신약에서 하데스는 언제나 부정적인 의미를 가짐
낙원	눅 23:43; 고후 12:4; 계 2:7	잠든 신자들이 의식하며 기쁨을 누리는 곳
아브라함의 품	눅 16:22, 23	낙원의 다른 이름
불못 - 불과 유향으로 타는 못	계 19:20; 20:14, 15; 21:8 (마 25:46의 “영원한 고통” 참조)	끝없이 영원토록 심판의 고통을 겪게 될 사람들과 사탄과 그의 귀신들이 머무는 곳. 오늘날까지 아무도 불못에 있지 않음. 맨 먼저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그곳에 쫓겨나고, 사탄은 1000년 뒤에야 쫓겨나며, 그와 함께 모든 불신자도 쫓겨남.
지옥(헬라이어 gehenna)	마 5:22, 29, 30; 10:28; 18:9; 23:15, 33; 막 9:43, 45, 47; 눅 12:5; 약 3:6	불못의 다른 이름
무저갱 (히브리어 abbadon)	욥 26:6; 28:22; 31:12; 시 88:10; 잠 15:11; 27:20; 눅 8:31; 롬 10:7; 벧후 2:4; 계 9:1, 11; 11:7; 17:8; 20:1, 3	무저갱은 하나님께서 최종 심판 때까지 결박해 두신 타락한 천사들을 가두어 두는 곳이기도 함.
하늘	성경에 700번 넘게	성경은 첫째 하늘(= 대기권의 하늘), 둘째 하늘(우주, 별들 사이의 공간),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와 낙원이 있는 셋째 하늘(고후 12장)을 구별함
아버지 집	요 14:2	창조되지 않은 하늘. 신성의 세 위격께서 영원 전부터 거하신 곳이며, 하나님의 교회(회중)의 모든 신자가 들어갈 곳

8 참고 문헌

Ankerberg, J., *Fakten über das Leben nach dem Tod*, Pfäffikon (Verlag Mitternachtsruf) 2001

Ankerberg, J., *Fakten über Sterbeerlebnisse*, Pfäffikon (Verlag Mitternachtsruf) 2001

Bergmann, G., *Leben nach dem Tod?*, Gladbeck 1960

Brand, Reinhard, Godzik, Peter *Die gemeinsame christliche Hoffnung über den Tod hinaus und ihre unterschiedliche Auslegung*, 1992

Brinke, G. R., *Jenseitiges und Zukünftiges*, Frutigen

Brockhaus, R., *Botschafter des Heils in Christo*, “Unsterblichkeit der Seele, Seelenschlaf und Verdammnis”, 1919

Bouter, H., *Onnaspeurlijke Rijkdom*, Bijbelstudies over het Paradijs van God, Gouda, 2003

Cremer, H., *Jenseits des Grabes*, 1886, Gießen (TVG) 1987

Darby, J. N., *Die ewige Pein*, Neustadt (E.-P. Verlag)

Fijnvandraat, J. G., *Wiedergeboren – in Ewigkeit?*, Schwelm 1980

Grant, F. W., *Facts and Theories as to a future state*, North Carolina 1889

Hallesby, O., *Himmel, Tod und Hölle*, Wuppertal (Rudolf Brockhaus Verlag)

Hauke, Dr., Rainer, *Wo sind unsere Toten? Ein vernachlässigter Aspekt der individuellen Eschatologie* (교수 자격 취득 강연)

Heidler, F., *Die biblische Lehre von der Unsterblichkeit der Seele* (Beiträge zur systematischen Theologie), Vandenhoeck & Ruprecht

- Hole, F. B., *Das Feuer, das nicht erlischt*, Hückeswagen (CSV) 1987
- Ironside, H. A., *Death and afterwards*, Neptune (Loizeaux Brothers) 1924
- Jennings, F. C., *The Human Body, Its Source, History and Destiny*, Essex 1927
- Lockyer, H., *Was geschieht nach dem Tod*, Wetzlar (Verlag Hermann Schulte) 1976
- Lutzer, E. W., *Fünf Minuten nach dem Tod*, Dillenburg (CVD) 1999
- Ouweneel, W. J., *Das ewige Leben*, Neustadt (E.-P. Verlag) 1980
- Ouweneel, W. J., *Herz und Seele*, Dillenburg (CVD) 1991
- Ouweneel, W. J., *De leer van de mens*, Buiten & Schipperheijn, 1986
- Ouweneel, W. J., *Ende gut – alle(s) gut?*, Bielefeld (CLV) 1993
- Pache, R., *Das Jenseits*, Wuppertal (Verlag Sonne und Schild) 1957
- Pfannmüller, G., *Tod, Jenseits und Unsterblichkeit*
- Pollock, A. J., *Eternal Life*, London
- Rawlings, M., *Zur Hölle und zurück*, Hamburg (C. M. Fliß) 1996
- Rienecker, F., *Das Schönste kommt noch I, II*, Wuppertal (Verlag Sonne und Schild) 1964
- Rincke, H. W., *Vom Zustand nach dem Tode*, Basel, 1885
- Schwengeler, B., *엮음, Sterbeerlebnisse, Ufo, Anthroposophie*, Berneck, 1981
- Steinmeister, A., *Auferstehung – Realität oder Illusion*, Wuppertal (Telos) 1989
- Swihart, P. J., *Der Tod – wirklich anders?*, Bad Liebenzell, 1979
- Tapernoux, Marc, *Das ewige Gericht*, Zürich (Beröa Verlag) 1962

Zodhiates, S., *Leben nach dem Tod*, Dillenburg (CVD) 1978

다음 책들은 전체 또는 일부에서 반대 입장을 대변합니다

Cullmann, O., *Unsterblichkeit der Seele oder Auferstehung der Toten*, Stuttgart (Quell Verlag) 1986

Custance, A. C., *Journey out of time*, A study of the interval between death and resurection of the body, Ontario (Doorway Publication)

Le Seur, P., *Die Zukunft der Toten*, Wuppertal (Aussaat Verlag) 1974

Jukes, A., *Der zweite Tod und die Wiederbringung aller Dinge*, 1912 (1987)

Magner, J., *Zukunft ohne Tod*, Hamburg (Saatkorn Verlag)

Petry, P., *Allaussöhnung, Tod und letzte Dinge*, Pforzheim (Konkordanter Verlag) 1986

Raiber, H., *Wir werden was wir sind* (Chiron Verlag) 1986

Tobler, G., *Wann beginnt das ewige Leben*, Zürich (Advent-Verlag)

Tod und Leben, Studien zur christlichen Anthropologie, Genf (Edition Oikumene) 1840

Tomasi, M., *Tod und Auferstehung, Himmel und Hölle*, Zürich (Advent Verlag)

77 Fragen an die Gemeinschaft der Siebenten-Tags-Adventisten, 1988

사전 및 참고 도서

Handreichungen aus dem Worte Gottes, 월간지 1913-1938, Bielefeld (CLV)

Kommentar zum Neuen Testament aus Talmud und Midrasch, C. H. Beck, München (Strack & Billerbeck),

Texte der Kirchenväter, München (Kösel Verlag) 1963

The Bible Treasury, edited by William Kelly 1856-1920, Winschoten (H. L. Heijkop Verlag)

The Collected Writings of John Nelson Darby, Winschoten, (H.L. Heijkoop Verlag) 재판 1972

정기 간행물

An Outline of Sound Words, W. C. Reid, Edingburgh

Bibel und Gemeinde, Bibelbund 발행 잡지

De Bode van het heil in Christus, Vassen (Uitgeverij H. P. Medema)

성경 주석

Best, E., Second Corinthians, A Bible Commentary for Teaching and Preaching, Atlanta (John Knox Press)

de Boor, W., Der zweite Brief des Paulus an die Korinther, Wuppertal (R. Brockhaus Verlag) 1972

Godet, F., Kommentar zu dem Evangelium des Lukas, TVG

Godet, F., Kommentar zum 1. Brief an die Korinther, TVG

Grosheide, F.W., Paulus eerste Brief aan de Kerk te Korinthe, Korte Verklaring der Heilige Schrift, Kampen

Kelly, W., Notes on the second Epistle of Paul the Apostle to the Corinthians with a new Translation, London

McDonald, W., 2 Corinthians (Emmaus Bible School), 1961,

Ouweneel, W. J., Wij zien Jezus, Bijbelstudies over de Brief aan de Hebreëen

Ouweneel, W. J., De Openbaring van Jezus Christus, deel 1 en 2

Rienecker, F. Lukas, Wuppertaler Studienbibel, Wuppertal (Brockhaus Verlag)

Zahn, T., Das Evangelium des Lukas, TVG

성경 연구 도구

Begriffslexikon zum Neuen Testament, TVG

Bibleworkshop, Computer-Bibel, media C

Bromiley, G. W.,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New Testament, Eerdmans

Metzger, B. M., A Textual Commentary on the Greek New Testament, London, New York (United Bible Societies), 1971

Rienecker, Sprachlicher Schlüssel zum griechischen Neuen Testament

Vine, W. E., Expository Dictionary of New Testament Words, Fleming H. Revell

Wigram, G., Publishing Englishmans Greek Concordance

일반 문헌

Bruce, F. F., Zeitgeschichte des Neuen Testaments, Wuppertal (TVG) 1986

Gitt, W., Und die anderen Religionen?, Bielefeld (CLV)

Gitt, W., Schuf Gott durch Evolution?, Bielefeld (CLV)

Hunt, D., Whatever happened to heaven, Harvest House Publishers, Eugene, 1988

Josephus, F., Geschichte des Jüdischen Krieges, Wiesbaden (Fourier Verlag)

Josephus, F., Jüdische Altertümer, Wiesbaden (Fourier Verlag)

Scott, W., Doctrinal Summaries, Glasgow (G. T. Publications) 1982

Walvoord, J., *The Prophecy Knowledge Handbook*, Wheaton (Victor Books) 1990

각주

페이퍼백

W. & M. 데페(W. & M. Deppe)

Auswege oder Wege ins Aus?(『출구인가, 막다른 길인가?』)

320쪽

ISBN 3-89397-290-0

구루 공동체, 이단 종파, 신비 종교, 심리 집단들이 서구 세계에서 점점 더 인기를 얻고 회원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1980년대 이후로 우리는 헤아릴 수 없이 큰 신비주의(에소테릭)의 물결에 휩쓸리고 있습니다.

거의 같은 시기에 수백 년 동안 상상할 수 없던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큰 세계 종교들 사이의 대화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 사상을 다른 종교의 요소들과 섞은 사람들과 점점 더 자주 마주치게 되며, 그 어느 때보다 우리 시대의 여러 흐름과 씨름하도록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이 책은 종교적 다양성의 미로 속에서 방향을 잡는 데 좋은 길잡이입니다!

죽은 사람들은 살아 있습니까, 아니면 죽음이 모든 존재의 끝입니까? 사람은 영혼 수면에 빠집니까, 아니면 죽음 너머에서도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것은 모든 사람이 마음에 품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들에 답하고 또한 소망을 전하는 것이 이 책의 목적이며, 그 가운데서 영혼 불멸의 문제가 중심 주제를 이룹니다. 죽었으나 살아 있는 사람들 – 성경은 이 역설을 풀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다시는 끝나지 않는 삶의 시작입니다. 이 말이 참되다는 것은 ...에 의해 보증됩니다.